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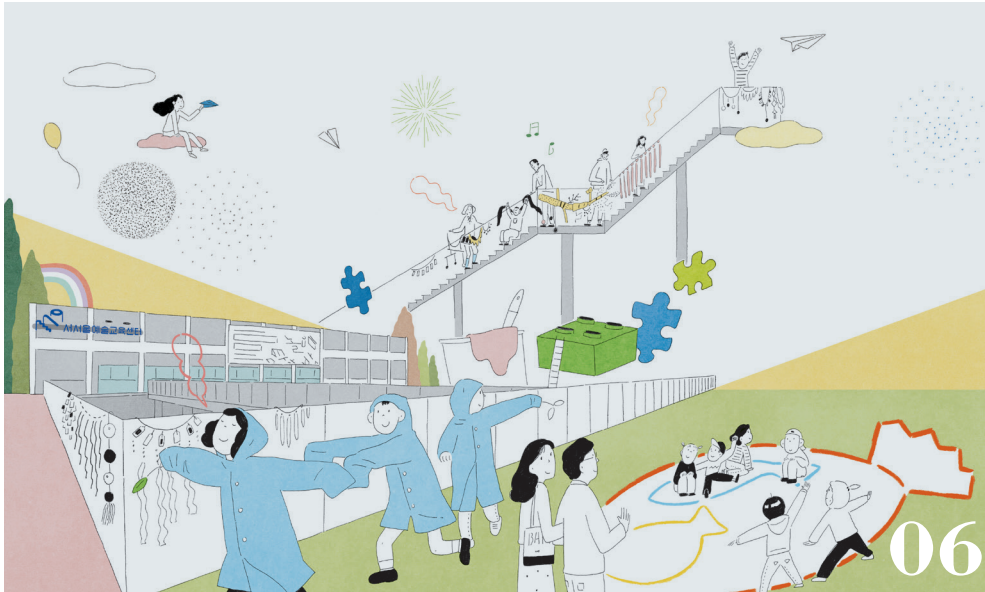
12. 7월 + 0
2월 17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1

2016





11월의 테마토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추세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예술을 일상에서 놀이처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10월 8일 개관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전용공간이다. 모든 아이와 어른이 자유로운 상상과 활동으로 채워가는 예술놀이 아지트가 되고자 한다.



사람과 사람

한글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이끄는 캘리그래퍼 강병인

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TV를 보고 먹거리, 화장품 등 생필품을 소비하며 생활한 이들 중 강병인의 캘리그래피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영화, 공연, 책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통 서예와 디자인을 접목한 아름다운 글씨”인 캘리그래피는 글자로 감정과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각인시키며 빠른 시간 안에 대중화됐다. 그 선두의 한 지점에는 한글의 원리와 그 아름다움의 확산을 목표로자 철학으로 삼은 강병인 작가가 있었다. 올해 한글날을 즈음해 전시 <한글글씨전>을 연 강병인 작가를 옥인동의 ‘강병인글씨연구소 숭통’에서 만났다.



진실 혹은 대담

‘아티스트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돼야 할까

예술인의 창작지원과 사례비 인정 문제는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술가의 생존 문제와 예술창작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아티스트피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내년부터 미술분야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기도 하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예술가에게 소위원회에서는 예술활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쟁점1

김영란법으로 직격탄 맞은 공연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오페라·클래식·뮤지컬 등 대형 공연이 의도치 않게 직격탄을 맞았다. 기업 후원과 단체 관람권 구매가 줄어들면서 공연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공연계는 5만원 이하 ‘김영란 티켓’을 내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해답이 ‘없다’.

contents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오니트(주)

디자인 오니트(주) 사진 249 스튜디오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발행일 2016년 10월 28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4 커버스토리 | 이달의 표지 작가 봄로야

테마 토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 08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공간, 지역을 바꾼다 | 호모 루덴스적 삶을 위해
- 10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의미와 방향 | 어린이·청소년의 진정한 예술놀이 아지트로
- 14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축제 현장 | 누구나 자유롭게 예술적으로 놀 수 있도록
- 18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정규 프로그램 TA를 만나다 | 예술교육의 실험과 실현 그 무한한 가능성

사람과 사람

- 22 한글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이끄는 캘리그라퍼 강병인 | '고운 글꼴'이 널리 피어나도록
- 28 방랑을 즐기며 일단 저지르고 보는 예술가 유목연 | 예술작업은 유희 있는 여행

- 32 진실 혹은 대담 | '아티스트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돼야 할까
- 38 예술가의 밥그릇 | 네온아티스트 김현수
- 40 서울 할나 | 단풍잎 한 마리, 단풍잎 두 마리...

이슈&토픽

- 42 쟁점 1 | 김영란법으로 직격탄 맞은 공연계
- 44 쟁점 2 | 공연단체 티켓 사재기로 도마에 오른 '공연티켓 1+1 사업'
- 46 화제 |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총회 참가기

50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공간, 공감

- 52 공간 1 | <2016 서울 상상력발전소: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
- 54 공간 2 | 지켜줘서 고마운 최순우 옛집
- 56 공감 1 | 뮤지컬 <천변카바레>와 <오! 캐롤>
- 58 공감 2 | 전시 <The Poets 시인들>과 <이야기가 있는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 60 공감 3 | 책 <언플래트닝, 생각의 형태>와 <자이 자이 자이 자이>

62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 64 메모리 인 서울 |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거리 세종로
- 66 서울 단상 | 청량리동 'coffee time'에서 보낸 시간
- 68 이명석의 썰(設) | 자취를 감췄던 '청춘 드라마'의 귀환
- 70 장운선의 음악 정원으로 | 독일의 음악과 음악관을 적극 수용한 일본
- 72 서울 건축 읽기 | 다시 돌아온 유토피아 '세운상가'

74 연극인 10분 희곡 릴레이 | 배해를 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76 11월 Calendar
- 84 편집 후기



주철환의 더다이즘, 두 번째

천 명의 문화PD

“다시 연출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자들의 단골 질문입니다. 저도 묻습니다. “차범근 감독에게 물어 보세요. 다시 뛰고 싶지 않느냐고,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이러실 겁니다. “지금 뛰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미래의 선수들을 후원, 지원할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재단의 대표를 맡은 지 두 달밖에 안 된 저의 꿈이 행복한 전임자(前任者)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저의 전력이 PD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갓 입사 후 선배 PD가 카메라 뒤에서 “액션!”이라고 외칠 때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모든 출연자와 스태프가 숨죽이고 있는 순간에 터져 나오는 고요 속의 외침. 그 주문(注文, 呪文)이 바로 ‘액션’입니다. 하지만 정작 PD들이 내다보는 건 액션보다 리액션(reaction)입니다.

‘리액션’은 액션에 대한 반응입니다. 배우들의 반응은 즉각 나타납니다. PD의 ‘액션’이라는 한마디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수백 명의 엑스트라가 갑자기 폭도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 달라진 풍경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깁니다.

PD에게는 외로운 결단의 시간입니다. OK냐, NG냐.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그의 안목과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PD가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청자의 리액션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작품에 대해, 이 장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재미와 감동? 무시와 외면?

달력이 두 장 남았습니다. 영어로 11월이 November인데 저한테는 그 말이 Remember로 들립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올해의 인물을 뽑으려면 저는 바둑기사 이세돌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4대 1로 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파고에게 박수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알파고는 리액션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파고는 무심했고 무정했습니다. 로봇은 감탄의 대상일 뿐 감동을 주진 못합니다. 반면에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인간적인 표정으로 겸손을 보인 이세돌은 우리를 몽클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선망 대신 희망을 그에게서 보았습니다.

즐거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할 일과 획기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000명의 문화PD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PD는 Producer, Director보다는 Programmer, Designer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기획하고 매개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문화PD입니다.

나이, 성별, 경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문화적으로 바꾸는 데 관심 있다면 지원하십시오. 감탄이 아닌 감동, 선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지원하십시오. 소방관, 경찰관도 좋고 단역배우, 대리기사도 환영합니다. 스님, 수녀님도 지원하십시오. 지원(志願)하시면 지원(支援)하겠습니다. 단, 두 가지는 가지고 오십시오. 열정과 열심은 필수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주철환



〈답 없는 공간 근사한 악몽, 풍선이 된 요도크〉
mixed media on linen | 84×143.5cm | 2016

이달의 표지 작가 봄로아

2014년, 기억의 성질과 모양, 짐 같은 기억, 지나간 기억이 가진 고독감 등을 그림과 글, 노래로 만들었다. 단어 '사라짐'을 언어 유희로 풀어 주인공 '사라'가 짐 같은 기억을 풀어내는 이야기로 구성했고, 〈사라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음반, 책, 전시와 공연을 선보였다. 이때 작업한 〈초겨울의 그림자〉(표지작)는 개인의 일상에서 건져 올린 멜랑콜리한 풍경 중 하나다.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빗바랜 간판과 시트지, 앙상한 가로수, 녹슨 양철 지붕이 해가 빨리 지기 시작하는 초겨울을 맞아 그림자를 길게 드리운 그날, 그곳을 꽤 오래 바라보았다. 너무나 평범해서 늘 지나쳤던 장면을 기억하고자 애쓴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억은 덮이고 드러내기를 반복하며 불확실한 형태로 남는다. 그럴수록 사라져 버리고 이야기할수록 왜곡된다. 떨쳐냈다고 생각한 기억도 본디 모습을 바꿔 다른 모양이나 성질을 갖고 계속 찾아온다. 결국 실재의 잔상과 흔적을 부여잡고자 작업을 반복하는 나의 태도는 기억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사라지게 만든다.

올해 선보인 〈답 없는 공간: 근사한 악몽〉은 그러한 반복 행위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한 작업이다. 개발과 재개발이 반복되는 도시의 공사 현장이 갖는 끝없는 파괴와 생성의 과정을 기록하며 이를 사적 기억, 꿈의 반복성과 엮어 일상의 불안, 두려움을 가시

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꿈의 시공간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악몽은 조각조각 흩어졌다가 새롭게 가공돼 정지된 화면이 된다.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탐색할 수 있는 기억과 닮은 미완의 풍경을 그리며 사유하는 과정을 앞으로도 반복하려 한다.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도록 '답이나 완성을 유예한 채 있는 힘껏 미완성을 반복하는 것'이 요즘 작업의 실천 내용이다.



표지작 〈초겨울의 그림자〉
mixed media on paper | 21×29.7cm | 2013

봄로아(김은진)

그림 그리고 글 쓰고 노래한다. 그림 소설과 음반을 함께 엮은 〈선인장 크래커〉(2008), 드로잉으로 표현한 독서 에세이 〈0페이지 책〉(2012)을 출간하며 다양한 예술 신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억에 관한 음반과 드로잉을 담은 〈사라의 집〉(2014)과 낙서를 가공해서 만든 책이자 노트인 〈누군가의 노트〉(2015) 등을 독립출판물로 엮었다. 지난 9월 〈답 없는 공간: 근사한 악몽〉이라는 타이틀로 10명의 아티스트, 비평가와 협업을 도모한 개인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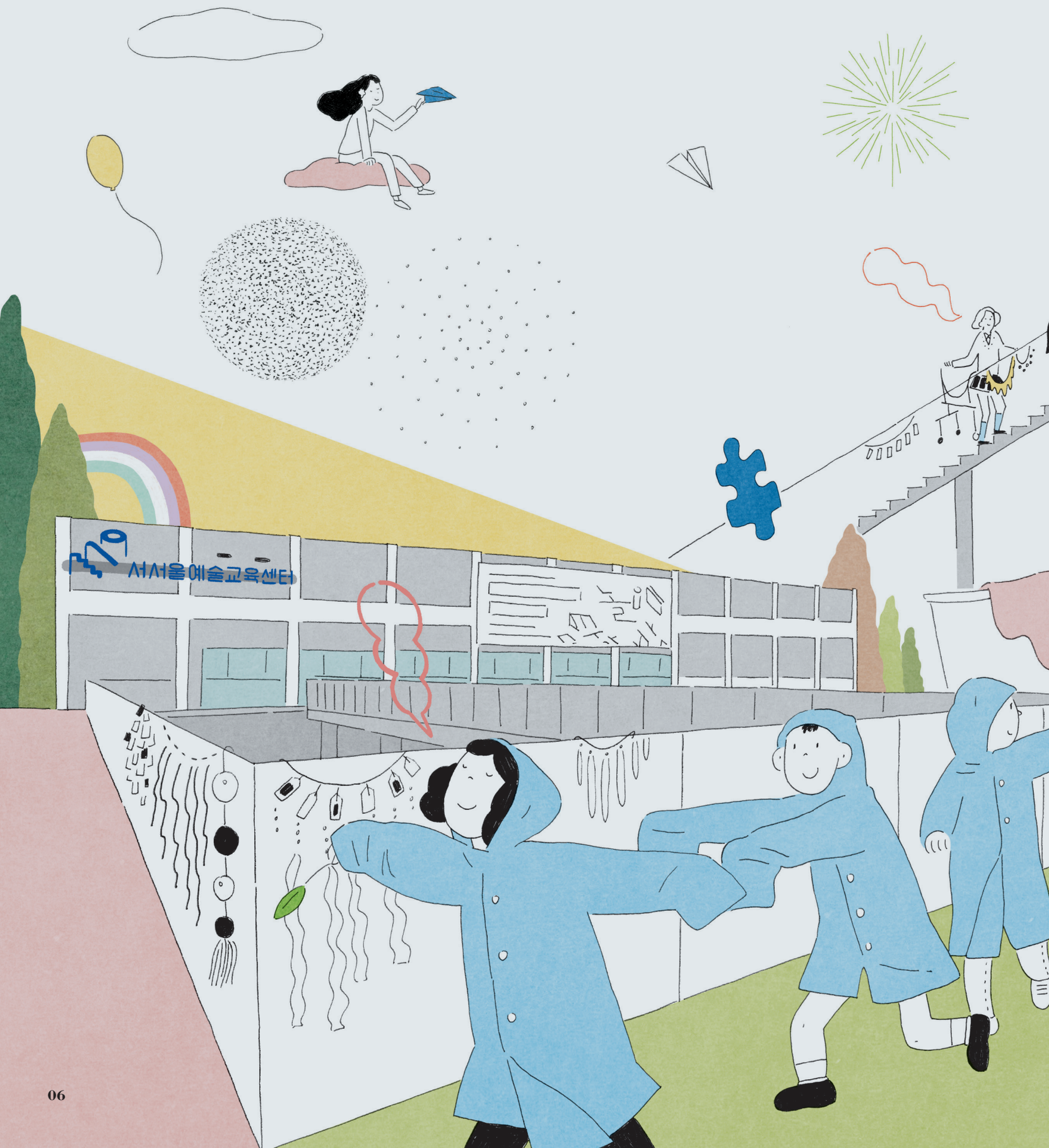


글 봄로아



〈답 없는 공간, 근사한 악몽〉

mixed media on linen | 35.5×30.5cm | 2016



서서울 예술교육센터 개관

가을이 한창일 때
당신은 노란 폭발들을 듣는가?

무슨 이유로 아니면 부당함으로
비는 그것의 기쁨을 우는가?

새때가 날아갈 때
어떤 새가 앞장을 서나?

벌새는 어떻게
그 눈부신 대칭을 이룬 채 있나?

- 파블로 네루다의 시 '47', <질문의 책> 중에서

질문으로 가득찬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옛 김포가압장의 물이 출렁이던 곳에 자유로운 상상력이
출렁이게 될 예술놀이 아지트가 개관했다.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전문공간으로는 국내 최초로 개관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그 시작을 전한다.
애써 지우지 않은 시간의 흔적 위에
이제 아이들의 시간이 자연스레 덧대질 차례다.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공간, 지역을 바꾼다

호모 루덴스적 삶을 위해

예술은 본디 목적 없는 것이다. 예술이 교육의 영역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의 효용을 따지기보다 충분히 경험하고 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지난 10월 8일 개관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온전히 예술의 경험과 창작과 놀이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예술, 비일상·무목적적 행위와 교육의 만남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즐거워야 할 배움의 공간으로서 학교는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벌써 40년 전 <학교를 넘어서>라는 저서를 통해 세계적인 교육운동가로 각인된 존 홀트*는, 학교가 서열과 등급으로 대다수를 실패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노예로 살아가도록 세뇌시키는 곳이므로 교육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사는 것과 배우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며 '모든 지식은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이다. 산업화가 주인공이 된 근대적 삶 이후 성인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삶에서도 공부와 일상은 격리되었고, 일상에서 놀이도 제거되었다. 예술은 가장 멀고 아득한 비일상, 그 자체였다.

21세기 현대로 넘어오면서 예술은 세계화한 생활환경에 맞추어 문화민주주의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두 개의 굵직한 담론을 형성하며 새롭게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탈(脫)포스트모더니즘으로서 예술이 비로소 그 어떤 특권층의 것도 아닌, 난해한 예술가들만의 전유물도 아닌 보편적 주제와 내용으로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공공자원으로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은 '창의성'이라는 매력적인 이름표를 달고 학교교육에 집중 지원되었다. 창조산업의 메카 영국에서 시작된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경제적 효과성 논의가 10



년도 되지 않아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Creative Partnership〉이라는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술가 파견 지원 사업을 본떠 만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해 10년 이상 학교수업을 보조해오고 있다. 예술가와 창조적 만남을 통해 학생 교육에 효과와 효율을 더하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술이 과연 교육에 효과와 효율을 더해야 한다는 도구주의적 관점으로만 접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이 교육이라는 불편한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교육은 미래 사회를 담당할 주역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그 역량이라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 아닌 예술의 부가적 혜택에서만 찾아지는 이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일인가? 교육의 본질은 경험이다. 존 듀이는 우리 삶에서 필요한 교육의 핵심이 지식교육이 아닌 감성교육이라는 점을 간파했다. 따라서 그는 삶의 질적 경험을 통해 변화와 성장이 완성될 수 있음을 그의 대표작인 〈경험으로서 예술〉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미국의 교육개혁을 부르짖었다. 우리의 인식과 삶은 항상 ‘상황적 연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황을 경험하고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예술교육에 대한 사고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

“놀이는 유년기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영적인 인간 활동이다.”

— 프리드리히 프로벨

“나의 작업은 예술이 아니라 놀이에 가깝다.”

— 모리츠 에셔

예술적으로 최선을 다해 놀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지난 10월 8일 서울의 양천구 신월3동에서는 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와 함께 소박하지만 다정한 얼굴들과 웃음소리가 넘치는 행사가 열렸다. 13년간 흥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김포가압장(정수장)이 ‘0816 예술아지트’로 재탄생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운영을 알리는 작은 축제가 열린 것이다.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했다면 진작에 철거했어야 할 폐산업시설이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역의 역사와 일상적 삶의 이야기가 담긴 예술적 창작의 무궁무진한 소재가 되는 새로운 공간의 탄생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 예술의 전당을 위시한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조성의 성격이나 2000년대 붐을 이룬 예술가 입주(residency) 중심의 창작공간의 성격과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성격의 예술교육 전용 공간이 만

들어진 것이다. 예산 부족 등으로 최소한의 공사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으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자유로운 공간으로 거듭나 찾는 이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의외의 효과에, 예술은 목적하지 않을 때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오랜 격언을 떠올려본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그러한 예술의 무목적성을 함축한 ‘놀이’를 핵심 콘셉트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미 북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는 학교와 문화시설이 아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제3의 공간으로서 예술교육 공간의 구성과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은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스스로 배우고 성장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관람이나 실기형 예술 활동이나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노는’ 경험이 미래의 삶을 구성하는 교육적 자원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센터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되었다. 이곳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경쟁의 삶과 교육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감을 ‘예술 놀이’를 통해 확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새로운 공간이 지역에 만들어내야 할 공간의 정치***일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호이징어가 ‘놀이적’ 인간을 명명했던 ‘호모 루덴스’의 의미를 예술 놀이를 통해 되살리는 일이 세계의 작은 한 편, 대한민국의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 놀이에는 분명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다. 놀이는 성패를 따지지 않으며 결과를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의무적인 과제도 아니다. 놀이는 상징적 언어가 형성되기 이전의 본능적인 느낌과 정서, 쾌락을 선사하고, 이것들은 창조적 통찰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우리 자신만의 세계와 인격, 게임과 규칙을 만들게 하고 지식을 변형시키며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깊어가는 가을에 동네 어귀,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 위 어디라도 좋으니 아이들과 운동주의 시 한 편 나눠 쓰며 예술적으로 놀아보는 건 어떨까? ⁵⁰²¹

* 전 세계 프리스쿨, 대안교육, 홈스쿨링, 언스쿨링(탈학교) 등의 교육개혁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교사, 교육혁명가이자 저술가.

** 201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은 860억 원이며, 전국 8,777개교(전국 1만 1,563개교의 약 76%에 해당)에 5,047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 현존 최고의 철학자 중 하나인 프랑스의 자크 랑시에르는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에서 공동의 공간을 구성하는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예술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이고, 기존의 감각 경험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활동을 공동의 공간에서 전개할 때 예술이 단지 저항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미학적 감성적 공동세계 형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간의 정치다.

**** 로버트 루트번스타인·미셸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예코의서재, 2007).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의미와 방향

어린이·청소년의 진정한 예술놀이 아지트로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추세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예술을 일상에서 놀이처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10월 8일 개관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전용 공간이다. 모든 아이와 어른이 자유로운 상상과 활동으로 채워가는 예술놀이 아지트가 되고자 한다.

어린이·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를 위한 아지트,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지난 10월 8일 양천구 신월동에 문을 열었다.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는 국내 최초인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센터 개관을 알리는 축제를 진행했다. ‘예술을 통한 일상 속 탐험, 즐거운 놀이, 새로운 발견’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축제에는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서울시민과 예술교육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이틀 동안 시민 2,500여 명이 참여해 예술교육에 대한 높아져가는 관심과 수요를 체감케 했다.

개관 축제를 찾은 어린이와 시민들은 처음 보는 낯선 공간에 호기심을 보이며 교육센터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구 김포가압장의 기존 구조를 최대한 살리고 인위적인 개조나 허물기를 최소화해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과는 상당히 다르다. 공사가 끝난 것이 맞는지 묻는 대다수 어른들의 질문이 무색하게, 아이들은 교육센터에 들어서자 판타지의 세계에 온 것처럼 자유로운 상상력을 마음껏 펼쳤다. 특히 물이 가득 차 있던 수조는 이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칠 것 없는 놀이터가 되었다.

누구나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터로

구 김포가압장은 1979년 준공되어 서울시 일대에 수도물을 공급하다가 영등포정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2003년 폐쇄되었고 이후 폐허처럼 장기간 방치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3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약 12년간 방치되었던 김포가압장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리모델링해 예술교육센터로 재탄생시켰다. 일상에서 과중한 학업에 시달리는 어린이·청소년이 탐험, 놀이, 발견을 통해 잃어버렸던 지적 호기심을 되찾고 창조적 예술놀이의 즐거움을 스스로 깨치고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어린이·청소년이 예술가처럼 상상하고 창작하면서 ‘실패 없는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 진지한 예술 경험이 바로 예술교육이며, 예술교육은 실패 없는 배움을 경험하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는 철학이 그 기저에 있다. 경제적 배경의 차이, 즉 잘살고 못사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아이들 누구나 이러한 실패 없는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다.

1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실내 전경.

2
야외 수조에서 놀이
중인 아이들.

공간을 채워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첫 번째 〈드림그림 아트캠프〉

교육센터는 준공 시점인 2016년 7월 이후부터 정식 개관한 10월 이전까지 실험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어린이·청소년 그리고 지역주민이 예술가와 함께 ‘공공미술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공간 조성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인위적인 공사를 최소화한 것처럼 인위적인 채우기를 지양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예술 작업으로 공간을 채워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인 〈드림그림 아트캠프〉가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한성자동차가 후원하는 미술 영재 드림그림 장학생과 대학생 멘토로 구성된 54명의 학생이 2박 3일간 ‘To be FREE’라는 주제로 아트캠프에 참여했



3, 5
〈드림그림 아트캠프〉.

4
안애경 공공미술
예술감독과 해외
작가들.

다. 서울문화재단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식 판매사인 한성자동차와 2014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4년 황학동 중앙시장 상인을 위한 쉼터 개선, 2015년 구로디지털단지역 벽화 작업을 통한 공공환경 개선에 이어 2016년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공간 조성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이어졌다.

아트캠프에서는 2016년 교육센터의 공공미술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안애경 아트 디렉터를 중심으로 노르딕워킹

그룹(Nordic Working Group)의 해외 작가 등 국내외 작가가 참여했으며 북유럽 예술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모자이크, 텍스타일, 음악(소리 수집), 정원 만들기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이 진행되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예술에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 ‘예술과 삶은 하나로 맞닿아 있다’는 공공 디자인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의 예술 작업은 교육센터 곳곳에 덧입혀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품이 되었다. 이처럼 교육센터를 찾는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공미술 작업을 통해 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느리지만 의미 있는 행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주중에는 학교 연계, 주말에는 주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중학생, 가족 등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중에는 학교와 연계, 주말에는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2016년 시범 운영된다.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다. 기존 학교 예술교육과 차별화한 미적 체험 예술교육으로 학교 밖 예술교육 공간에서 예술의 창작 및 놀이 활동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주말에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이 예술교육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개관을 앞둔 지난 7월에 프로그램을 공모해, 약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7개 프로그램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온몸으로 그린 그림' '무브무브 수조 놀이터' '꿈노리터 목공소' 등 선정된 프로그램은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연극, 문학, 무용 등 다양한 장르가 통합된 융복합 예술 장르로, 서울문화재단의 미적 체험 예술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구현되었다.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학교 및 학급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예술과 일상이 하나 되는' 열린 문화공간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2016년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 교육센터 상주 TA(Teaching Artist, 예술가교사) 선발을 준비하고 있다. 시각예술, 무용, 연극, 문학,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교육 전문가를 선발해 새로운 미적체험 예술놀이 콘텐츠를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상주 Arts Lab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문화재단은 2006년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TA를 매년 선발 운영해, 올해 기준 47명의 TA가 서울시내 초등학교 307개교에서 예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TA가 공교육 내에서 예술수업을 진행했다면,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상주 TA는 교실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교육센터의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가능성을 확장한 실험적 예술교육을 하게 된다. 교육센터는 앞으로 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활동 기반을 다지고 연구와 창작이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1월 즈음 공고될 예정이다.

교육센터가 들어선 양천구 신월동은 서울에서도 문화적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다. 교육열이 높은 목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한 리모델링 공사.
인위적 개조나 시설
하물기를 최소화하고
기존 구조를 최대한
활용했다.



2016년 10월
폐산업시설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예술놀이 아지트로
재탄생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동에 인접해 있지만 신월동 인근은 타 지역에 비해 문화공간이 유독 적다. 교육센터는 이곳이 어린이·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 플랫폼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소득 격차에 따라 예술교육의 기회가 양극화되는 현상을 지양하고,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예술과 일상이 하나가 되는' 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글
이은미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축제 현장

누구나 자유롭게 예술적으로 놀 수 있도록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를 위한
아지트로 개관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지난
10월 8일~9일 양일간 교육센터의 개관을
기념한 축제가 열렸다. 예술을 통한 일상적 탐험,
즐거운 놀이, 새로운 발견으로 다채롭게 채워질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축제 현장을 전한다.

야외 공연, 편 앤 버블의
〈버블 드래곤〉.



수돗물을 담아두던 야외 대형 수조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새로운 아지트가 만들어졌다. 20년 이상 물이 담겨 있던 공간과 건물 내부의 벽에는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이곳의 주인공은 물이 아닌 ‘아이들’. 10월 8일 개관 축제가 한창인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아이들은 온몸을 힘껏 움직여 그려낸 그림들로 센터의 야외 벽면과 바닥을 꾸며갔다. 자연을 소재로 만들어진 노랫소리와 시민들의 활기찬 대화음성은 오랜 시간 조용히 잠들어 있던 공간을 깨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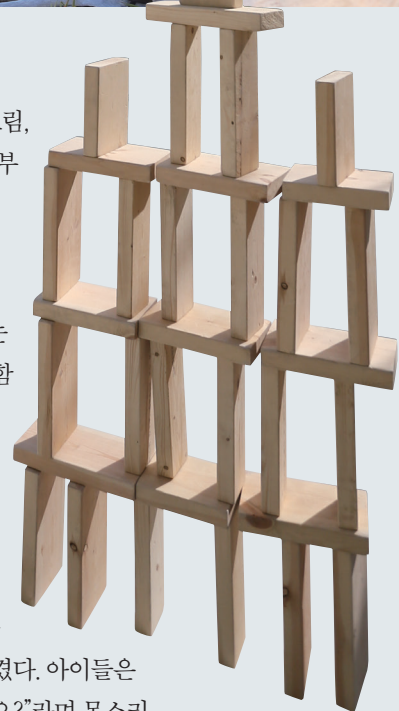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건물 앞 대형 수조 등 야외 공간과 건물 2개 층 등 총 7,000㎡의 규모다. 실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교육스튜디오 3개와 다목적실,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 TA) 연구실, 교육준비실 등으로 탈바꿈했다. 공간을 인위적으로 허물거나 변형하지 않은 리모델링 방향에 맞게, 실내 역시 가압장의 배진반실과 크레인실 등으로 쓰던 기존 공간 구조를 최대한 활용했다. 개관 축제일에는 야외에서 역동적인 탐구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실내에서는 아이들이 좀 더 차분히 작품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실내 1층의 다목적실에서는 아카이빙 전시 <물의 기억>이, 실내 2층의 스튜디오 A와 B에서는 아이들이 소집단으로

모여 자연에서 받은 영감이나 미래의 꿈을 그림, 조형물 등으로 표현해 자유롭게 스튜디오 내부에 전시하고 발표했다.

함께 짓는 꿈의 아지트

이전의 틀과 흔적을 지니고 새롭게 태어나는 공간이기에 이러한 의미와 체험의 재미를 함께 맛보는 프로그램이 축제 양일간 많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대표적인 것이 <업사이클 가드닝>. 페트병, 장화, 우유갑 등 버려진 물건에 꽃을 심어 나만의 화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부러진 나뭇가지에 알록달록한 리본을 감싼 후 시민들이 만든 화분을 이어 매달아 한 그루의 나무를 완성시켰다. 아이들은 “나무도 이제 추우니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라며 목소리를 모아 질문했다. 이 나무는 행사 내내 조금씩 모여 정원을 이뤘고, ‘녹색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깨진 접시 조각과 타일을 취향대로 골라 이어 붙여 모자이크 벽돌을 만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타일 모자이크>도 함께 진행됐다. 완성된 벽돌은 훼손되었거나 비어 있는 벽



1 버려진 물건에 꽃을 심어 나만의 화분을 만드는 <업사이클 가드닝> 프로그램.



2



3

2
10월 9일 오프닝
행사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이 <업사이클
가드닝>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3
예술교육 워크숍
'공간과 친해지기'
참여한 어린이.

면에 채워졌다. 모자이크 활동은 센터 벽면에 남아 있는 옛
흔적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외에도 바닥에 설치된 캔버스에
누워 몸의 선을 따라 그리는 <내 몸 사용설명서>, 목탄을 활
용해 움직임의 궤적을 온몸으로 그리는 <온몸으로 그린 그
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버려
지는 것들을 예술에서 활용해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옛것
과 새로운 것을 융화시켜 도시재생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었
다”고 설명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곳곳, 아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은 없었다. 센터로 내려가는 계단 난간에도 서툴게 매듭
지어진 리본이 묶여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꾸민 아
지트에서 신나게 놀았다. 야외로 나가 바닥에 깔린 대형 에
어캡에 누워 좌우로 뒹굴기도 했고, 나무로 만든 텐트 안에
들어가 블록 쌓기 놀이를 하기도 했다. 특히 <공간과 친해지
기>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
았다. 색색의 테이프, 천, 노끈 등 여러 도구를 활용해서 원래
수조였던 공간을 직접 탐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
램은 자연 속에서 몸이 공간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도
에서 기획되었다. 현장 선착순 접수로 정원 20명을 모집해
안전 사고에 대비했다. 이렇듯 센터는 준비한 재료를 아이들
이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안내하며 정형화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의했다. 아이들에게 도화지와 색 테이프, 색
연필을 주면 테이프로 색칠한 그림, 색연필로 칠하고 테이프
로 꾸민 그림 등 개성 강한 작품이 나왔다. ‘예술을 통한 일상
속 탐험, 즐거운 놀이, 새로운 발견’을 슬로건으로 개척된 축
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양한 예술로 시간과 공간을 스스
로 창조하도록 이끌었다. 천편일률적인 학업으로 인해 잃어
버렸던 예술적 호기심을 되찾아주고, 예술을 현재의 삶과 연
결시켜 창조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민이 센터의 주인이 되
어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 플랫폼의 모델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나가겠다”고 개관 소감
을 전했다.

옛터, 물이 기억하다

야외에서 예술놀이 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센터의 다목적실
에선 아카이빙 전시 <물의 기억>이 열렸다. 전시는 1979년,
시민들에게 하루 12만L의 물을 공급했던 가압장의 장소적
특성을 모티프로 구성되었다. 물줄기를 형상화한 비닐커튼
을 지나고 물 흐르는 소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면 <시간바
퀴> 모터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시간바퀴>는 과거 가압장
시절부터 센터가 들어선 현재, 그리고 창의예술교육의 보급
기지 역할을 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100여 장의 슬라이드 필
름으로 표현했다. 전시를 기획한 유후흥 작가는 “전자 기계
장치와 가상 이미지들은 낡지 않은 척하지만, 모든 것은 낡
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아닌 아날로그 모터를 선택했다”고 작품을 설

명했다. 모터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바퀴를 돌리면 사진들이 순서대로 바뀌어 벽면에 비친다. 시간이 쌓이며 변형된 수많은 사물 속에서도 제 모습을 오롯이 지킨 물의 기억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옛터가 버텨낸 세월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전시장에 드리워져 있는 천을 걷어내며 안으로 들어가 맞이한 <시간바퀴>는 김포가압장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타임캡슐이었다.

다목적실의 작은 방에서는 영상 전시 <버려졌던 공간에서 예술놀이 아지트로>가 열렸다. 10년간 방치되어 있던 김포가압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술교육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편집해 상영했다. 이 두 아카이빙 전시에서 사용된 음악은 실제로 서서울예술교육센터와 서서울호수공원에서 따낸 소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주변을 산책할 때 나는 걸음 소리, 수조 안에서 발을 구르거나 몸을 두드려 울리는 소리, 바람과 새소리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리를 기록해 작곡가 유하의 감독 아래 작업되었다. <물의 기억>의 시간바퀴 모터와 영상 아카이빙 전시는 10월 1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석해 관람할 수 있다.

먹고, 보고, 즐기다

축제 하면 단연 빠질 수 없는 먹거리 부스가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축제에도 들어섰다. '달시장'이라고 이름 붙인 먹거리 장터는 아이와 어른,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시장이다. 다과와 음료는 물론 떡볶이, 핫도그, 토스트 등 메뉴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보통 3,000~4,000원 하는 부담 없는 가격대로, 모든 메뉴를 주문 직후 조리해 신선함을 유지했다. 먹거리 부스 맞은편에는 거리예술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거리예술 공연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팀당 약 30분 동안 펼쳐졌다. 작은 극장H는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발한 퍼포먼스에 관객들을 참여시켜 큰 호응을 얻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자, 나무모형 등의 사물에 눈 스티커를 붙이면 생명을 얻어 소리 내고 움직이는 연극을 연출했다. 크로키 브라더스의 드로잉 쇼는 공연 마지막에 반전을 꾀해 지켜보던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두 남자가 흥겨운 음악

에 맞춰 춤을 추며 아크릴 판에 각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음악이 끝나갈 무렵 두 개의 그림을 겹쳐 세워 보니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이 완성됐다. 이에 공연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버블 드래곤이 보여준 머리 위로 훑날리는 오색 빛깔 대형 비눗방울 공연에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워했다.

'놀이가 되는 예술'이 붓집을 푸는 곳

10월 9일 일요일에는 오프닝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서울시교육감, 양천구청장, 강서교육지원청장, 문화예술교육계 인사 등 서울 예술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인사들이 센터를 찾아 개관을 축하했다. 임미혜 본부장의 안내에 따라 공간 전체 및 프로그램을 돌아보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축제를 어떻게 즐기는지 지켜봤다. 또 아이들과 지역 주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도 했는데,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업사이클 가드닝>에서 화분을 만들고 그 안에 식물을 심어 시민들과 정원을 조성했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축제형 개관 행사는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드림그림' 후원으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완공을 도운 울프 하우스프롱 한성자동차 대표도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학생, 지역 주민을 위한 예술교육센터가 마련되어 기쁘다. 학생들의 예술교육과 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
아외에서 진행된 그림
놀이터 '내 몸 사용
설명서' 프로그램.

글
박효린

사진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정규 프로그램 TA를 만나다

예술교육의 실험과 실현 그 무한한 가능성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예술 놀이터로 채워가는 주요한 이들 중 한 축은 예술교육가다. 어린이·청소년의 예술교육을 위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공간에서 예술교육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진행하며 아이들 각자가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새로운 공간이 가진 의미와 다양한 실험·실험 가능성에 대해 네 명의 예술가교사(TA)와 이야기 나누었다. 이유정, 김희경 TA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인 <SPACE 2016>의 기획자와 주강사이며 송지원, 노주연 TA는 주말 프로그램 <풍덩! 춤추는 공작소>의 주강사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 드린다.

김희경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TA)로 활동하며, 예술교육 연구소 넘나들이 연구원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일러스트 및 그림책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SPACE 2016>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생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패턴'이라는 주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창작 작업과도 관련이 있어 아이들의 생각과 반응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유정 예술교육연구소 넘나들이의 대표로,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예술교육 활동에 주목하며 시각 장르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대상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2011년부터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송지원 현재 서울문화재단 교과연계 <예술로 플러스> 프로그램 연구와 실행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예술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공간 설치미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노주연 무용을 전공했고,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로 6년째



2

활동 중이다.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사업 <예술로 돌봄>을 시작으로 현재는 학교 정규교과와 연계한 <예술로 플러스> 프로그램을 연구 및 실행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공간이 새롭게 생겨났다. 예술교육가에게는 새로운 공간에서 좀 더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교육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예술교육가들에게 이 공간이 주는 의미와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이유정 미술관이나 공연장 같은 예술공간은 건축물이나 공간 구성을 통해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예술교육에 대한 서울문화재단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아주 적절한 공간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은 깨끗하게 비어 있는 3차원 도화지 같은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될 것이고, 예술을 통한 다양한 활동이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지점에서 색다른 미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송지원 예술교육가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났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특히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이라는 점

에서 시각예술 전공자로서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로 활동하며 통합예술교육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은 예술교육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 스스로도 많이 성장한 값진 시간이었다. 통합예술교육은 다양한 예술 장르가 결합돼 장르 간 융합을 통한 풍부한 예술 표현 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하나의 고유 장르(시각예술)를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마주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점에서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는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통합예술교육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옛 김포가압장을 리모델링해 '수조'라는 독특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특색을 활용한 차별화한 예술교육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김희경 누구나 이 공간을 처음 보는 순간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 지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선근(sunken) 구조의 신비로움이 있고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면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서는 느낌이 든다. 청명한 하늘과 무채색 콘크리트의 대

1
야외 수조에서 놀이 중인 아이들.

2
<SPACE 2016>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



3
〈풍덩! 춤추는 공작소〉
프로그램의 주강사
노주연(왼쪽), 송지원.

4
〈SPACE 2016〉
프로그램의 기획자
이유정(왼쪽), 주강사
김희경.

비적 느낌, 공간 가득 남아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은 변화하고 사라져간 것들에 대한 오묘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공간이 주는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즐기다 수조 위로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 이 공간을 보고 있으면 판화가 에셔(M. C. Escher)의 〈상대성〉이라는 작품이 연상되고, 이 작품은 이번 〈SPACE 2016〉 프로그램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다.

센터 외부의 수조 공간은 지상이나 수조 난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바

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활동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이 예술 활동 과정에도 투영되기를 바란다. 활동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지원 이 공간이 ‘가압장’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공간 자체가 지닌 개성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간을 가득 채웠던 물이 빠지고, 흰 도화지같이 텅 비어 있는 이 공간에 예술을 새롭게 채워나간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공간에서 설치미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고자 한다. 무용이나 연극 등 다른 장르에 비해 미술은 한결 정적인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른이든 아이든 자신의 세계에 몰입하고 그것을 평면이나 입체로 공간 안에서 펼쳐내는 작업에는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센터의 특색 있는 공간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놀이와 같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의 예술교육 활동과 비교했을 때,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학교 밖 예술교육 공간에서 좀 더 자유로운 예술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노주연 학교 현장에서의 예술교육은 교실 공간의 크기, 정해진 수업시간, 교육 목표 등의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협소한 교실 공간과 학교에서 지켜져야 하는 여러 규칙의 제약은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하는 데 늘 많은 아쉬움을 준다.

하지만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한계와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공간 자체가 주는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공간을 캔버스 삼아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통해 차별화한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정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대상, 공간, 콘텐츠 등 구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과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담아갔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이유정 이 공간에 대해 기획자들이 받은 인상 중 서로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가장 큰 특징인 3차원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 관한 이야기로 의미를 확장하고, 인공적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규칙,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규칙이 존재하고, 그것을 읽어내야 하는 순간이 존재한다.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런 규칙들을 읽어내고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아이들은 흥미로운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SPACE 2016>을 통해 아이들은 반복과 규칙의 과정을 거쳐 무언가 멋진 것이 만들어지고, 패턴을 읽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예측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변화를 만드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노주연 예술을 즐거운 놀이처럼 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은 놀이하는 그 과정 속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배우게 된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지역의 흉물로 버려져 있던 이 공간이, 예술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과 에너지로 가득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싶다. 아이들이 이 열린 공간에서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통해 보다 긍정적이고 건장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좋은 변화를 기대해본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김희경 자유학기제 선택수업으로 몇몇 학교에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 공간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학교 밖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해방감을 즐기는 것이 역력히 느껴진다. 마음의 자세도 달라 자신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놀이와 예술 활동의 경계가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공간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던져줘도 자연스럽게 놀이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작품이 된다.

학교 예술교육에서는 교과 학습 목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예술 체험을 끌어내기 어렵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러한 제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의미 만들기 집중할 수 있다. 아이들이 남긴 여러 후기 중 '멋진 노가다'라고 표현한 친구가 있었다. 예술 활동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과 성취감 등 예술의 한 속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한다.



5

앞으로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어떠한 공간이 되길 바라나.

김희경 아이들에게는 순수하게 예술을 즐기고 나누는 경험의 장, 예술교육가에게는 열린 예술교육에 대한 꿈과 의지를 구현하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더불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이유정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늘 새롭고 신기한 것으로 가득한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 그들이 어른이 된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이곳이 멋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송지원 '예술적 놀이공간'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길 바란다.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5년, 10년 후 성장한 모습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멋진 미래가 그려져 그 시작을 함께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두근거린다.

노주연 많은 예술교육가가 다양한 실험과 시도로 만든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다. 예술교육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가이지만 예술가이기에 예술가의 기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5
〈풍덩! 춤추는 공작소〉 프로그램.

글
이은주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한글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이끄는 캘리그래퍼 강병인

‘고운 글꼴’이 널리 피어나도록

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TV를 보고 먹거리,
화장품 등 생필품을 소비하며 생활한 이들 중
강병인의 캘리그래피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영화, 공연, 책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통 서예와 디자인을 접목한 아름다운 글씨”^{*}
인 캘리그래피는 글자로 감정과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음을 각인시키며 빠른 시간 안에
대중화했고 그 선두의 한 지점에는
한글의 원리와 그 아름다움의 확산을
목표이자 철학으로 삼은 강병인 작가가 있다.
올해 한글날을 즈음해 전시〈한글글씨전〉을 연
강병인 작가를 옥인동의 ‘강병인글씨연구소
술통’에서 만났다.

^{*} 강병인 저서 〈글꼴 하나 피었네〉(2009) 중에서





‘강병인글씨연구소 술통’(이하 술통)은 강병인 작가의 작업실이자 워크숍, 전시 등이 함께 진행되는 공간이다. 상수동을 떠나 지난해 봄 지금의 옥인동에 새롭게 터를 잡았는데, 이번 전시 〈한글글씨전〉(10. 7~11. 7, 서촌 길담서원 및 강병인글씨연구소 술통)은 한글 완성 573년·반포 570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옥인동 공간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는 행사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고향과도 같은 동네이기에, 한글의 원리와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작품에 반영해온 강병인 작가에게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셈인지도 모르겠다. 글자를 쓰는 게 마냥 좋아 이미 중학교 때 스스로 ‘영묵(永墨, ‘영원히 먹과 함께 살겠다’는 뜻)’이라는 호를 지었고, 캘리그래피의 가치를 일찍 파악하며 대중화에 많은 공을 들인 그는 이제 한글의 입체화, 공간화로 작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전시가 한글날을 기념하는 동시에 지난해 서촌으로 작업실을 옮기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곳으로 오게 되셨나요.

대개 세종이 나신 곳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광화문에 세종을 모신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서울시에서 추진한 ‘한글 마루지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한글회관 건물에서부터 경복궁역을 거쳐 통인시장 방향으로 쪽 올라오다 보면 세종 나신 표지석이 통인시장 가까이에 있는데, 그 일대를 한글문화관광지(한글가온길)로 꾸미는 사업이죠. 그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 일대의 공간 상황에 대해 살펴보게 됐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

다. 그게 이쪽에 새로 자리를 잡게 된 첫 번째 계기였어요.

다른 하나는 전에 작업실이 있던 홍대 앞 지역이 너무 상업화한 점이에요. 홍대 앞 지역은 오랫동안 문화의 생산지역 역할을 해왔는데 근래 문화의 소비지로 점점 변화하면서 그 소음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두 가지 계기가 서로 비슷한 시기에 맞물렸죠. 제가 한글로 먹고사는 사람이다 보니 세종이 나신 곳, 한글이 태어난 곳에서 글씨를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홍대 앞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지역이죠.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내보시니 어떤가요?

원래 이곳은 마당과 담이 있는 2층 양옥이었는데 오픈된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제 목표는 ‘한글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이에요(웃음). 한글은 단숨에 못났다고도 하는데 그 단순 명료함이 한글의 중요한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세종의 한글 정신을 어떻게 잊고 지킬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 ‘세종의 한글 정신이 꿈꾸는 터’로 이곳을 규정하게 됐어요.

사실 작년 봄에 여기 오면서 생각한 것은 한글갤러리, 한글가게 등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면 한글과 캘리그래피를 볼 수 있구나’ 하는 곳이 되는 것이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정말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주민들이 이웃해서 조용히 지내고 계신데 제 욕심을 차리기 위해 시끌벅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1년 동안 노심초사하며 마을 분들과 소통하고 너무 상업적이지 않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나누는 공간이

“세종이 꿈꾼 것은
백성들의
지식 확장이었는데

저는 글자의
예술·문화적인 가치를
확장하고 싶은 것이죠.”





되게끔 제 의지를 조금씩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1년 반 만에 공간을 오픈한 것이죠.

이곳이 선생님께는 고향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일 텐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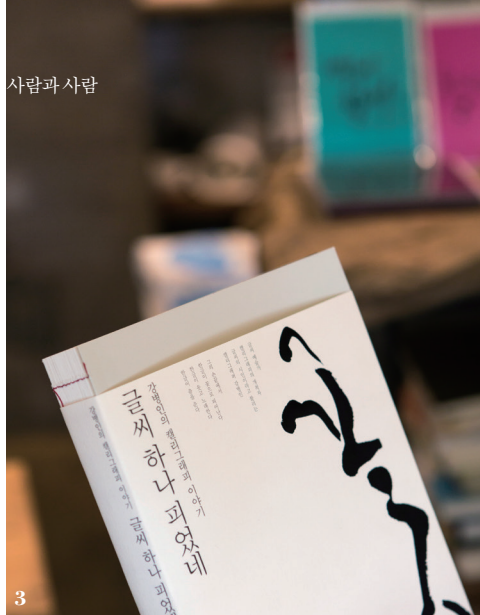
세종의 기념관을 만드는 일과 세종의 생가 복원 등이 한글학회, 한글 관련 단체 등 민간 차원과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이지 않나 싶어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한글이 참 고운 말인데 글꼴도 말처럼 예쁘네’ 라는 점을 알리는 활동이요. 사실 활자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첫째 목적이지만, 저의 작업은 글에서 꽃이 피어나고 춤도 추고 하는 것이에요. 세종의 한글 정신이 이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꿈꾼 것은 백성들의 지식 확장, 지적 능력의 향상, 그래서 많은 백성이 두루두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저는 글자에 예술·문화적인 가치도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확장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예술적인 기능’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는데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캘리그래피가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네모난 형태인데 디지털 시대에서 보면 이는 무척 실용적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붓으로 흘려(네모 밖으로 나가도록) 쓰면 그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글을 세종이 처음 만들었을 때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종은 그걸 의도하진 않았어요. 원형은 원형 그대로의 틀을 지니고, 그걸 응용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게 후대의 몫이라고 봅니다.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형태에 집착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글의 원형은 판본체에 가깝습니다. 그 판본체가 오늘날 고딕체의 원형이고, 명조체의 원형이 서예의 궁체죠. 궁체는 정자와 흘림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한글의 어마어마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꽃’이라는 글자는 처음부터 꽃으로 피어나지 않아요. 처음(겨울)에는 씨앗으로 있다가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가지를 냅니다. 그러면서 꽃을 흐드러지게 피우고 숲을 이루죠. 그것은 고딕으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한글은 생명력을 품고 있는 글자예요. 초성이 중성이 되고 중성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담은 원리이고 이 의미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죠. 이는 세계 어느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점입니다.

- 1** 옥인동의 술통 입구와 마주한 담에 아름답게 봄꽃이 피었다. 필동 스트리트 뮤지엄에서도 전시된 작품 <봄꽃, 만남>(2016).
- 2** 전시 <한글글씨전>의 제1전시 ‘고운 글꽃 피우며’ 전경. 제1전시가 진행 중인 길담서원은 술통에서 가까운 곳으로, 인문학 공부방을 겸한 책방과 전시공간(한뼘미술관)이 있는 옥인동의 대표적 문화공간이다.



3



3
강병인 작가의 신작
에세이 <글씨 하나
피었네>. 표지의
'꽃'에서 강 작가가
설명하는 한글의 원리와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4
강병인 작가의 작업물이
배곡히 들어차 있는
술통 공간.

5
<한글글씨전>의
제2전시 '춤추고
노래하고' 전경.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는 가운데,
왼쪽 아래 보이는 '섬'은
대형 구조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고
강 작가가 귀띔했다.

6
[문화+서울]의 제호도
강병인 작가의
작품이다.

“비슷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도
자기 성찰, 자기 해석이
뒤따를 때

입체적인 좋은 글씨가
나옵니다.”

“‘꽃’이라는 글자는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설명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글씨를 쓸 때마다 생각하고 표현하는 원리이기
도 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필니다. 그때 초성 ‘ㄱ’은 나뭇잎
과 꽃잎입니다. 그리고 중성 모음인 ‘ㅏ’는 나무기둥과 나뭇
가지이며, 이는 모두 땅 위에 있으니 양이 됩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게 하는 중성 ‘ㅓ’은 땅속의 뿌리
이며 음입니다. 그렇다고 양이 늘 양으로만 머물지는 않습니
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꽃은 떨어집니다. 이때 양은 음
이 되며, 겨우내 땅속에서 양분을 저장하는 뿌리는 반대로
양이 되어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글씨를 써보면 그 글씨는 꽃과 닮아 있습니다.

이렇듯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의 모아쓰기를 통해 그
글이 가진 의미를 자연스럽게 글끝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 강병인 저서 <글씨 하나 피었네>(2009) 중에서

요즘 캘리그래피가 많이 대중화했는데 한글의 의미보다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글이 문화로서 대중
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점도 있을 것 같
은데요.

흘려 쓴다고 모두 캘리그래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약을 두거나 틀에 가두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든 과도기가 있고 그 과정을 거치면 거기서 분화, 발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캘리그래피의 영향을 받아 한글 그
래피티도 나올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또 글자만이 아
니라 그림과 글자를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문인화의 성격을
끌어온 작품들도 볼 수 있고요. 다양성의 추구는 다소 부작
용이 있더라도 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일
을 하는 사람들 각자의 태도가 중요할 거예요. 자신의 글씨
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원리나 의미를 품고 있는
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올바르게 정립돼 있다면,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 공부하고 고민해서 채워나갈 수 있으리
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부족하고 처음부터 잘할 수
는, 꽃을 피울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전혀 우려하는 바가 없진 않아요. 캘리그래피 자격
증을 준다거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캘리
그래피는 서예입니다. 하나의 예술 분야이고 디자인의 한 장
르이며 예술적 가치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예술이나 디자인
에 자격증을 줄 수 있을까요? 일방향의 기준을 둘 수 없는 분
야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관공서에서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한다는데,
자격증 문제를 따지려면 그런 맥락에서 관공서와 현 제도의
문제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캘리그래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말씀하셨듯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이겠죠. 연구소에서 수업도 진행하
시는데, 캘리그래피에 뜻을 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으로 조언하
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요.

앞서 언급했듯 글을 쓰는 이의 태도와 ‘내가 쓰는 글에 대한
해석’입니다. 막 흘려 써서는 안 돼요. 꽃이 흐드러지게 필 순
간이 되면 흘러 써도 좋지만 그런 때가 아닌데 ‘ㄱ’을 마구 흘
려 써선 안 되겠죠. 옹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엔 쓰
는 사람의 경험도 묻어나겠고요.

글씨를 쓰는 데 고민을 많이 하는 이들에겐 ‘자기 해석
이 들어가지 않으면 남의 글씨가 돼버린다’고 얘기하곤 합
니다.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자기
글씨예요. 세상엔 전혀 새롭게 뚝 떨어져 창조되는 게 없으
니까요. 비슷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도 자기 성찰, 자기 해
석이 뒤따를 때 입체적인 좋은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작업하신 것 중에 영문도 있던데요. 한글을 작업할 때와 영문을 작업할 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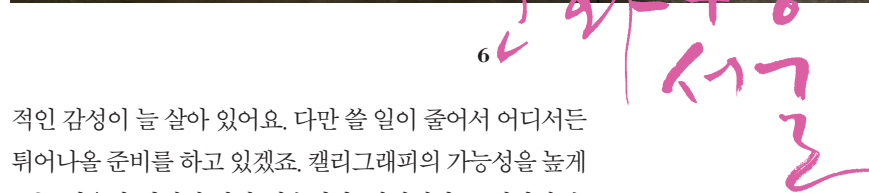
캘리그래피는 영어 알파벳에서 나왔습니다. 영문 캘리그래피는 장식적인 부분이 많은데, 물론 알파벳에도 예술적인 가치가 충분합니다. 쓰임에 맞게 표현해야 하는 것은 같고요. 다만 도구의 차이가 있는데, 알파벳이 깃털의 뿌리를 이용해 쓴다면 한글은 깃털의 털을 이용해 쓰는 것이죠. 뿌리는 각이 지고 딱딱해서 글자를 예쁘게 쓸 수 있는데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털을 이용해 쓰면 삼라만상을 다 넣을 수 있죠(웃음). 기분에 따라서, 먹물의 농담에 따라서 표현할 여지가 아주 다양해지거든요. 일반적인 도구를 사용하면 알파벳과 한글 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없는데 붓을 잡으면 달라져요.

지난 2007년에는 ‘봄날체’를, 지난해에는 ‘영목체’라는 서체를 출시 하셨습니다. 서체는 글씨를 정형화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손으로 쓰는 캘리그래피와 상반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서체를 개발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서체를 만드는 것은 글자를 정형화하는 작업이고, 판매 등 상업적인 요소가 많아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는 손으로 쓴 하나밖에 없는 글자인데, 그걸 서체화하면 캘리그래피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담감도 없진 않죠. 다만 지난 15년 동안 제 서체도 계속 변해왔는데 그런 변화를 정리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체는 한번 만들어두면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예를 들어 1980년대 말에 만들어진 서체가 지금도 컴퓨터(온라인)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쓰여 남아 있죠. 이런 작업이 없으면 제가 제 서체를 보관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또 한글 서체를 만들려면 2,350자는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글자를 그만큼 쓰지는 않게 되죠. 서체를 만드는 것은 제 나름의 정리인 셈이에요. 시간이 흘러 언젠가 ‘아 이런 서체가 강병인이란 사람에 의해 나왔구나’ 하는 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글자를 직접 쓰는 것이 생활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그래피, 나아가 글자 자체(타이포그래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될까요.

산업화, 정보화, 디지털화 등으로 세상이 점점 변화하면서 기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는 아날로그



적인 감성이 늘 살아 있어요. 다만 쓸 일이 줄어서 어디서든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겠죠. 캘리그래피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디지털화, 도시화할 수록 사람들이 자연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손으로 적은 글자 안에 삼라만상과 아침 점심 저녁의 기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캘리그래피는 생명력이 강할 것이라고 봅니다.

강병인 작가는 요즘 캘리그래피의 평면 작품에서 나아가 한글을 입체화, 공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욕이 ‘아이러브뉴욕(ILOVENY)’라는 브랜드를 캐릭터화, 조형화하며 세계적으로 각인시켰듯, 한글도 그 뛰어난 조형성으로부터 입체화하고 기능을 살린 공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각가 이근세 씨와 함께 2010년 ‘한글 세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꽃’ ‘춤’ 등 글자가 가진 의미가 생명력을 더해 입체로 살아남을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다. 전시가 진행되는 술통에 가면 벽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과, 언젠가 큰 건축물로 지어져 많은 시민에게 휴식을 선사할 ‘쉽’을 만날 수 있다.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짓고 알리기 위해 강병인 작가는 아직 할 일이 많다.

글
이아림
사진
김창제

방랑을 즐기며 일단 저지르고 보는 예술가 유목연

예술 작업은 위트 있는 여행

7년간 미술과 동떨어진 무역회사 근무 경력에 홈리스 경험까지 있는 피자 아티스트 유목연. 최근 파리 시테(CITE, 삼성문화재단 후원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작가로 선정(2015)되고 두산연강예술상(2016)까지 받으며 주목받고 있는 그의 예술 프로젝트가 제안하는 새로운 여행을 알아보았다.

예술 행위를 통해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 맺는 과정이 주축이 되는 커뮤니티아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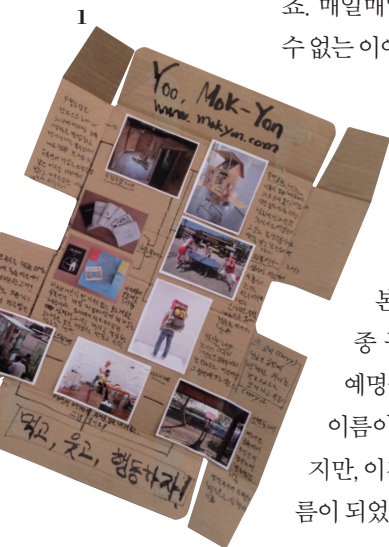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성향입니다. 주변과 빈번한 교류 없이 지내다가 수년 전에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서 다양한 선정자 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가벼운 접근으로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좋은 예술적 결과를 도출하는 걸 보고 제 마음에 반향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교류 과정 속에 스스로 예술 활동을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만 생각해왔구나 하고 느끼게 된 거죠. 그동안 고수온 태도에 대한 반작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작업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소통과 만남을 통해 어떠한 현상이 만들어지는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고 싶어서 진행해온 작업이 현재 제 작업의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일종의 ‘나만의 게임’이 된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소통과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가 기대되는 게임이요(웃음).

‘유목연’이라는 이름이 도시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작업하는 작업 성향과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데, 본명인가요? 아님 전략적으로 만든 이름인가요?

유목연은 작업 활동을 위해 만들어낸 가명이고, 본명은 이용훈입니다. 지원을 받아볼 요량으로 각종 공모에 신청할 때마다 떨어지다 보니 각기 다른 예명을 만들어 신청했고, 그중 지원금 수령에 성공한 이름이 ‘유목연’이죠.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였지만, 이젠 ‘유목연’이라는 예명이 제일 많이 불리는 제 이름이 되었네요(웃음).

얼마 전 마무리한 개인전 〈나뭇가지를 세우는 사람〉(2016. 9. 7~10. 8)이 전문가들과 관람객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전시에서 상영된 영상을 보면 계속해서 기다란 나뭇가지를 수직으로 세우려고 하는 행동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 행동의 이유는 뭔가요?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애초부터 바닥에 똑바로 설 수 없는 나뭇가지를 세우려는 하찮고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노라면, 많은 사람이 무관심하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간혹 하나둘은 이상해 보이는지 관심을 갖고 다가오죠. 이러한 행위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누군가만 있다면, '너도 세워봐'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세워볼래?' 하면서 소통을 시도하죠. 이러한 과정 속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교감이 오가요. 매순간 행위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반응이 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이

저는 항상 기대되고 즐거워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모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정답이라고 정한 뒤, 그 목표 방향으로 사람들을 강요하며 몰고 가잖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 정답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무의미하다고 통용되는 행동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각자 정답과 기준은 다양하다는 거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정해진

1
작품 <택배박스>
(2015).



“예술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고
심각한 내용을
담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웃을 수 있는
매개체로서
예술행위를 하고 싶어요.”



2
〈히든키친〉
(배낭식 주방 및
조리도구,
40×25×40cm,
2014).
3
〈히든키친〉
설치 전경(2014).
4
〈목연포차(미니멀)〉
(나무 및 조리도구,
가변크기, 2014).

를 따라만 가지 이게 개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나뭇가지를 세우는 반복적 행위, 즉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무한 반복하는 건 다양함을 이해하고 지켜봐주는 배려심 없이 너무 획일화 되어가는 세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질서에 도전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외부의 시선은 어떤가요?

기자 한 분이 가느다랗고 긴 나뭇가지를 세우고, 쓰러지면 또 세우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 ‘기반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현대인의 홀로서기를 보는 것 같다’고 해석하셨는데 이러한 해석은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봐요. 관심이 없다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아무런 해석이나 반응이 없거든요. 이처럼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예요. 파리공원에서든 그렇고 안산에서도 그렇고 대체로 무관심하죠(웃음). 효율적이거나 유의미해 보이지 않으니깐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즐거울 수 있고 남들에게도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이라도요.

사람과 사람 간 소통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도록 동기를 만드는 게 작업의 핵심인 것 같은데, 〈목연포차〉의 이동 가능한 카트로 만든 1인 포장마차나, 〈모두를 위한 핑퐁테이블〉의 원형 탁구대 등 특별한 오

브제가 커뮤니티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이처럼 재치 있는 오브제는 어떻게 만드나요?

특별히 무언가를 의도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만들어내는 성격이 아녜요. 일단 저지르고 보는 편입니다. 원래 주변의 것을 내가 필요한 무언가로 만드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개조의 달인입니다.

프로젝트 중에 만들게 되는 오브제에 대해서 예술품으로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남들은 예술품을 만든다고 골머리를 싸매는데, 저는 반대로 예술품이 아닌 무언가로 인식되게끔 하자는 주의예요. 이상한 강박증인데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둥그런 탁구대나 이동형 포장마차 모두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는 플랫폼 역할의 오브제 이상으로 보이지 않기를 고집합니다. 절대적으로요. 아직까지 제가 만든 오브제를 구매하겠다는 사람 또한 없었으니 나름대로 성공한 거 아닌가요(웃음).

‘예술과 생활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 ‘예술과 비예술의 구분을 파괴하는 작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의 파괴는 예술의 새로운 확장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관심 끌기용 전략적 행동일 수도 있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근거와 세간의 평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예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앞서 말했듯 개인적으로 무의미했던 직장 생활보다는 제가 즐거운 무언가를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금을





할 뿐이죠. 이건 관심이 아니잖아요. 확대해보면 일반인들도 나름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취급을 당하겠어요. 노숙을 경험한 적도 있고 밥 한 끼의 소중함과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을 알기에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요.

근래 작업 중 재미있는 반응이나 관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인가요?

이케아(IKEA) 아시죠? 이걸 변형해서 '유케아(UKEA)'라는, 지하철 내 광고 게시판을 활용한 작업을 했는데, 1호선 2호선처럼 지하철 각 호선이 있잖아요. 광고를 본 시민들이 '몇 호선에서 이걸 몇 시에 봤다' '몇 호선에도 이 재밌고 신기한 유케아 광고를 봤다' 는 등 계속해서 제 개인 홈페이지에 댓글로 반응이 주욱 달리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니다. 어떤 호선 관리 측에서는 경고를 보내기도 하셨고, 어떤 호선에서는 이해를 해주신 건지 아직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일상에서 이러한 작은 도발이 즐거울 수 있다면 이게 예술이 아닐까요? 경고도 먹고 많은 반응도 얻고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니다. 반응을 보여주신 많은 분도 즐거워하셨고요.

작가로서 계속 작업에 담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예술이라고 해서 너무 무겁고 어렵고 심각한 내용을 담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고 웃을 수 있는 매개체로서 예술 행위를 하고 싶어요. 서로서로 만나서 함께 만들어가는 순간을 기억으로 공유하고 상호 간 이해의 폭을 조금이라도 더 확장할 수 있다면 그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유목연의 작업은 ○○○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유목연의 작업은 유머러스한 여행이다.' 매번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목적지도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시간을 갖게 될지 예측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매 순간 작업은 저에게 여행 같아요. 다만 이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즐겁고 힘이 되는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라죠. 좋은 여행의 추억처럼요. '유머러스한 여행', 이게 제가 바라는 제 작업의 목표랍니다.

역시 유목민 맞으시네요(웃음). 앞으로도 유머러스한 여행이 계속 되어서 더 많은 작업의 결과를 보고 싶네요. 좋은 작업 많이 보여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 5
〈당신의 어깨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냥 웃어요. 마사지〉 (설치 퍼포먼스, 2015).
- 6
〈극히 개인적인 가이드북 시리즈〉 (2011).

신청하게 되고, 이 지원금으로 작업하면서 남으면 최소한의 생활비로 씁니다. 목연포차를 끌고 나가 커피도 건네고 국수도 말아 드리면 5,000원도 받고 때론 1만 원도 받는데 그럼 이걸로 재료도 사고 찜질방에 가서 잠도 자죠. 이러니 저에게 예술 활동이란 곧 생활이고, 생활이 예술 활동인 셈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건 밥 한 끼이고 사람들과 건네는 다정다감한 관심의 대화입니다. '잘 버티셨나?' '잘 해 나가고 있는 듯하다' 등 서로 응원해 주는 말 한마디 처럼요. 제가 하는 행위가 직장 그만두고 예술로 밥 벌여 먹고 사는데 당연히 생활이 되죠. 저는 예술을 몰라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외부 해석의 혼란함에 감탄하며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제 예술이고 아니고는 저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예요.

한때 카드 빛에 몰려 노숙 생활도 경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험 때 문인지, 생존가이드북과 강의 영상 자료의 대상이자 목연포차의 주 소통 대상이기도 했던 홈리스들과 프로젝트가 많이 연계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 접근이 쉬워요.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밥 한 끼를 제공하게 되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죠. 홈리스 분들도 한때는 사회에서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며 인정받는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무의미한 존재로 치부되잖아요. 이들도 가족과 친구가 있는 소중한 존재임에도 아무도 관심이 저주지 않는 게 슬픈 현실이죠. 그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라며 '재활'이라는 명목으로 정해진 틀에 맞춰 재생산하려



서우석



김상철
설동준



박은선



‘아티스트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돼야 할까

예술노동의 대가

예술인의 창작지원과 공공정책에 의한 예술가 동원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례비 인정 문제를 놓고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술가의 생존 문제와 예술 창작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아티스트피(Artist Fee)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미술 분야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기도 하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예술가의제 소위원회에서는 예술 활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안상학



최선
임인자



김해보



사회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발제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예술인소셜유니온 정책위원장
	설동준	前 정가악회 운영실장
	박은선	리슨투더시티 디렉터
	안상학	시인,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토론	최선	설치미술가
	임인자	독립문화기획자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일시	2016.10.11(화) 15:30~18:00	
장소	남산예술센터 1층 예술교육관	

발제1 예술노동, 두 개의 길로 이어진

발제자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예술인소셜유니온 정책위원장

예술노동에 대해 얘기할 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측면과 예술가들이 필요를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개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이하 유니온)은 예술 활동을 크게 신분 보장, 생계 보장, 활동 보장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분 보장은 이 사회가 누구를 예술인으로 지칭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생계 보장은 왜 예술인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보장이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보장은 공모사업에서 빚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행정의 도구적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현행 사회보장 체계는 임금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인은 기존의 체계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체계 내에 예술인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의제라는 기술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예술노동의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의해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의 특징은 하나의 제도로 사회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사회보장 체제에 넣는 것과 다른 특수한 제도로 보충하는 형태로 병행하지 우리와 같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예술노동이 필요하고 이것을 전제로 할 때만 예술인들의 삶이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축으로 예술노동은 일종의 필요를 만드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누가 예술가냐고 했을 때 스스로 예술가라고 명명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예술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행위를 예술로 명명하고 그 활동에 따르는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이 과연 예술가와 공공 현장이 수평적 관계로 만나서 예술가의 자율성이 보

내가 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예술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행위를 예술로 명명하고 그 활동에 따르는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예술인소셜유니온 정책위원장

장되는 형태인지, 공공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는 수탁에 가까운 창작인지 판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에는 창작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에 활동 보장과 생계 보장 개념이 포함된 예술노동에 대한 보장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일비나 인건비 개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발제2 예술노동의 시간당 단가는 얼마가 적당한가?

발제자 설동준 前 정가악회 운영실장

저는 국악단체 정가악회에서 6년 정도 경영과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정가악회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적 틀을 타고 예술가 동인의 형태에서 고용예술가로 구성된 상근단체로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돌도 있었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술단체들은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객원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장점은 단체에 손해가 안 납니다. 굳이 리스크가 없는 운영구조를 뒤로 하고 상근제를 한 것은 지원금이 끊어지더라도 무조건 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르예술의 발전이라는 고민 때문입니다. 어떤 장르는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 장르에 속해 있는 예술가가 느끼는 책무성이 있습니다. 작품으로 승부를 내려면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누가 요청했을 때만 일하지 않고 항상 모여서 작품의 발전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시스템 도입 전에 해볼 수 없는 규모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6년 동안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 2~3편을 꼽는다면 이 시기에 만든 작품입니다. 예술적 성과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경영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선택을 하지 않죠. 세 번째는 최저 임금제도에 맞춰가는 것이죠. 삶의 기본적인 최종 방어선입니다. 현장에서 느낀 안타까움은 노동부에서 주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금조차 예술가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세 가지 접근법을 취한 후의 결론은 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공공기관과 공모사업 형태로 일하면서 느낀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 노동에 대한 인정 부분인데요. 흔히들

개런티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죠. 이게 문제인 것이 개런티라는 단일 항목에 묶어버리면 준비 노동이라는 정당한 시간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2회 공연에 250만 원이라고 올리면 개런티가 너무 많다고 교부 신청에서 거절당해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부적절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술노동의 대가를 인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시장을 정부가 왜곡시킨 두 가지 경우 중 하나가 재능기부였습니다. 나머지는 국공립 예술단체가 무료 공연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관람객들이나 참가자들에게 적절한 비용을 받아야 하잖아요. 지방 공연 영업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 하나가 ‘국립ooo은 무료 공연 온다던데’ 였어요.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국립 단체가 무료로 나오면 민간 단체는 뛰어들 영역이 없습니다. 시장이 없는데 무슨 돈을 벌 수 있고 예술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제3 아티스트피 논쟁에 대한 소회

발제자 박은선 리슨투데이시티 디렉터

저는 베이스는 미술이지만 다른 사회활동도 같이 하면서 도시 문제에도 개입해왔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사회에서 예술가를 진짜 무시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술가를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시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티스트피는

예술가들에게 무조건 돈을 주자는 뜻이 아니고요. 1968년 캐나다 전역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큰 전시를 진행했는데 미술관에서 일하는 수위 노동자, 큐레이터, 청소 노동자, 선물가게 직원들은 모두 돈을 받는데 예술가만 돈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시를 보이콧한다고 하면서 카팍(CARFAC)이라는 미술가협회를 만들었어요. 캐나다는 전략적으로 국공립기관부터 공략해서 아티스트피를 주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전시를 같이 준비한 작가들에게는 증빙 가능한 재료비만 일부 지급하느냐는 질문을 한 것이죠. 사실 아티스트피만 주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가는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다른 일은 거의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집중해야 하거든요. 준비 기간에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티스트피 공청회를 처음 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어렵게 운영하는 작은 공간들이 ‘아티스트피를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는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티스트피는 여러 가지 장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보편복지가 0점인 상황에서 아티스트피를 받아서 얼마나 상황이 나아지겠어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전시할 때 너무 소모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아티스트피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미술생산자모임에서 아티스트피 연구를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합니다.



발제4 문학 창작 활동과 원고료

발제자 안상학 시인,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저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욕망을 추구하는 부류와 뜻을 추구하는 부류가 있는데요. 작가들은 주로 뜻을 좇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창작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작가회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이 2,300명이예요. 회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요. 구성원들 자체가 가난한 시인, 소설가뿐이잖아요.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고 있고, 서울문화재단과 MOU를 맺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력 소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인력, 임금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은 정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조직 차원에서 뜻은 좋지만 운영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들 중에 전업작가는 거의 없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나 소설을 쓸 때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좋아서 시작한 것이고 살다 보니 사회에서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정도입니다.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을 다른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잘나가는 일부 소설가들은 소설 쓰기에만 몰입하고 남는 시간에 심사, 칼럼 기고, 강연 등을 해서 부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갑니다. 시인들은 병행한다고 해도 사실 밥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전업작가가 가정을 꾸려가기는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어떤 소설가는 상금을 5,000만 원 받았는데 빚을 갚고 나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예술위에서 하는 개인창작지원도 줄어들었고요. 원고료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공공기관에서 우회적으로 지급되던 문예지에 게재되는 원고료 지원사업도 끊어진 상황입니다.

여러 논쟁적인 요소가 많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이면서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선 김상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분과 생계와 활동을 보장하는 세 단계가 연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요. 아티스트 피의 핵심은 아티스트라는 신분 보장인데 모든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통하는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예술가의 책무성을 가지고 상급 제도를 과감하게 실험한 결과, 가장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국공립 기관부터 아티스트피를 지급하자는 얘기에는 동의합니다. 아티스트피는 정착이 잘 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부분

국립단체가 무료로 나오면 민간단체는 뛰어들 영역이 없습니다.

시장이 없는데 무슨 돈을 벌 수 있고 예술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동준 前 정가악회 운영실장

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료비 항목으로 정산해야 했는데, 아티스트피를 작가에게 주면 또 다른 아티스트에게 갈 수도 있고 상상하지 못하는 쪽으로 확대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분에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인자 음악 쪽에서는 국공립단체 무료 공연을 맡췄었는데요. 연극 분야에서는 국공립단체가 제작 극장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어요. 예술적인 퀄리티는 좋지만 그러면서 민간 극단이 많이 해체되고 미학이 사라져버렸어요. 재단과 같은 기관이 민간 극단을 후원하는 형태에서는 인건비와 아티스트피가 책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문학은 상급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미술, 연극, 모두 상급으로 전환해서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지금 정산이 아니라 아티스트피를 못 받는 것이 문제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견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만큼은 예술가가 소유할 수 있으려면 제작비 지불 방식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기관에서 아티스트와 작업할 때는 초창료 형식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민간 극단 배우 대부분은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연간 소득이 400만 원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장이 있고 공공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성을 해결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보 문학 분야는 정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반대로 상급 형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정산할 필요가 없어졌고 아티스트피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술노동에서 가장 인정받기 어려웠던 부분이 가장 쉽게 풀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우석 상급 단체를 운영했던 정가악회는 단원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설동준 최소 15명, 최다 30명이었습니다.

서우석 30명의 월급을 지급하신 거고, 그 수준은 대략 최저임금수준이었다…?

아티스트피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예술가는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일은 거의 하지 못하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은선 리스튜디오 디렉터

아티스트피가 예술에 세금을 투입하니깐 엄격하게 써야 한다는 기재부의 입장도 살리고 동시에 문화계를 살리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최선 설치미술가

설동준 최저임금에 조금 더한 수준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이 경력을 인정해줄 수 없는 거였어요. 10년을 노력했건, 작년에 들어온 단원이건 줄 수 있는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요.

서우석 시장에서의 티켓 판매 수익 중심이었나요, 지원 위주였나요?

설동준 실질적인 구조는 공공이 60~70%, 민간은 30~40% 정도였습니다. 30명 정도 운영할 때 연간 예산이 10억 원 정도였거든요. 민간단체치고는 큰돈이었는데 운영해보면서 느낀 것은 3억~4억 정도가 한 민간단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겁니다. 민간 수익 구조를 더 늘리기는 버거웠고 그 다음부터 공공으로 매우는 것은 후원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을 연구할 때 공연예술계의 가장 큰 이슈는 준비노동에 대한 가치 산정이었습니다. 이를 어떤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설동준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정이 안 되니까 작품을 만들고 객원을 부를 때 연습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요. 공공은 제도적인 틀이 있고요. 방법을 찾자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실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평균을 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잖아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준비노동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창작지원사업은 제작 과정이 들어가 있는 지원사업이라 연습비 책정이 인정되지만, 요즘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문화복지사업의 경우 준비노동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건 제작지원사업이 아니다, 발표된 작품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지는 이해되는데요. 의문을 가

진 건 공연예술 작품이 ‘큐’ 하면 바로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제공연을 할 때는 준비노동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예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이라는 기금 출처에 따른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둘 다 필요하거든요.

김상철 지금 예술가가 예술가로서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는 단순히 접근해야 합니다. 공공행정이 사업의 제공자로서가 아니라 예술가를 고용하는 주체로서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요 공모사업에서 계약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륜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해주는 것이죠. 공연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협상해서 공연 시간 외 얼마큼의 시간을 전체 계약기간으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시간 개념의 계약을 하는 방식은 재단에서 해볼 만한 시도 아닌가 해요.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주셨는데요. 아티스트피의 기저에 있는 예술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을 법제로 명확하게 하고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면 대표자 인건비 인정, 원고료 문제 같은 것도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박은선 아티스트피를 받는다 해도 여전히 가난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솔루션이 단일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아티스트피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지금 기본적인 복지는 엉망이고 선별 복지밖에 안 되잖아요. 미술에서는 전시 준비하는 기간에 한해 가능한 것이고 문학이나 타 분야에서도 정할 수 있겠지만 속성으로 하면 마찰이 생길 겁니다. 기왕 하는 거 공청회도 하고 차분하게 충분히 수정하고 해도 됩니다.

김상철 이미 한국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그것의 흔적을 만들면서 왔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끄러운 단면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분명 거친 면을 만들어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예술노동 관련 논의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거기에서 주저하는 거예요. 자기 장르 안에서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지 그 임계점을 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는 인상을 받거든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일정 정도 의지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쪽에서 먼저 큰 선을 그어주는 것,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파열음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다 모여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불신합니다.

김해보 사실 기존의 시장 제도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것은 확실하고, 공공에서 그것을 커버하려는 의지가 약했던 것도 확실한데, 공공롭게도 예술인 고용보험제나 표준계약서 문제나 노동 의제에서 오히려 더 빨리 몰아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내년 보조금에서 자부담까지 무조건 정산하라고 기재부에서 던져버리거든요. 이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부보다 더 큰 외부의 동력이 와버리는 상황입니다.

최선 제가 기재부에 찾아가서 아티스트피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무관이 작가가 잘못 정산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저희는 세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번은 일본에 초대되어서 전시를 하고 돌아가려는데 디렉터가 아티스트피 라면서 봉투를 줬어요. 거기에 '수고비'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었고 영수증도 받아 갔어요. 돌아와서 그것으로 1년가량 살 수 있었어요. 한국은 아티스트피를 대체할 단어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고비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통용되는데요. 아티스트피가 예술에 세금을 투입하니까 엄격하게 써야 한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살리고 동시에 문화계를 살리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김해보 시법적으로 하려면 미술관에서 예산 코드를 잡을 때 항목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요. 결국 충분한 예산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기존에 100만 원 주던 것을 쪼개서 주었다고 해도 도움이 될까요. 지금 항목을 인정해서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과 충분히 인정하라는 것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인정하는 것은 시장의 문제이기도 해서 공공에서 인정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존재 인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은선 저희는 올해 서울문화재단 지원금을 받았는데 저희는 인건비를 10원도 못 써요. 그러면 유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가 불법을 시키는 거예요.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공립에서 하는 전시에도 참여하는데 명목이 생겼음에도 아티스트피랑 합쳐서, 아티스트피 30만 원, 재료비 70만 원 이렇게 쥐버려요. 그것을 가지고도 4명이 두 달을 사는 거죠. 좀 더 세밀하게 논의되고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안상학 정책 구상에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 중에서 어디까지를 예술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상철 이 사람이 예술가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예술가



겠죠.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가의 경계는 흐리게 두고 잡힐 수 있는 대상의 수준을 높이는 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단속적으로 고용되는 건설노동자에게 어떻게 실업급여를 주냐고 했을 때 이들은 파업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묘수가 일한 시간을 모두 체크해서 그 시간의 합산이 2년 동안 180일 이상이면 고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회보장체계가 있고 거기에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술가를 최대한 거기에 얹힐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것이 방법입니다. 논의가 계속 예술가의 범위나 노동자나 아니냐로 가게 되면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든 구조입니다.

임인자 저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제작과정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창작 이후의 유통과정에서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티스트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술의 경우 거래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창작과정에서도 아티스트피에서 소외되고 기관에서도 이중적으로 소외되는 구조라고 봐요.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피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후원은 거래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핵심에 두어야 해요. 시장에서의 거래 여부에도 초점을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상금 형태로 제공하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대표자들은 사용자라기보다 그 단체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보아야 하는데, 이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부조리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강요되는 예술가들의 활동도 적정한 가치가 산정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문제였다는 생각을 평소 해왔는데 아티스트피 논의를 통해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선행적으로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 활동의 사회경제적 가치 산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6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는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열려
'아티스트피'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사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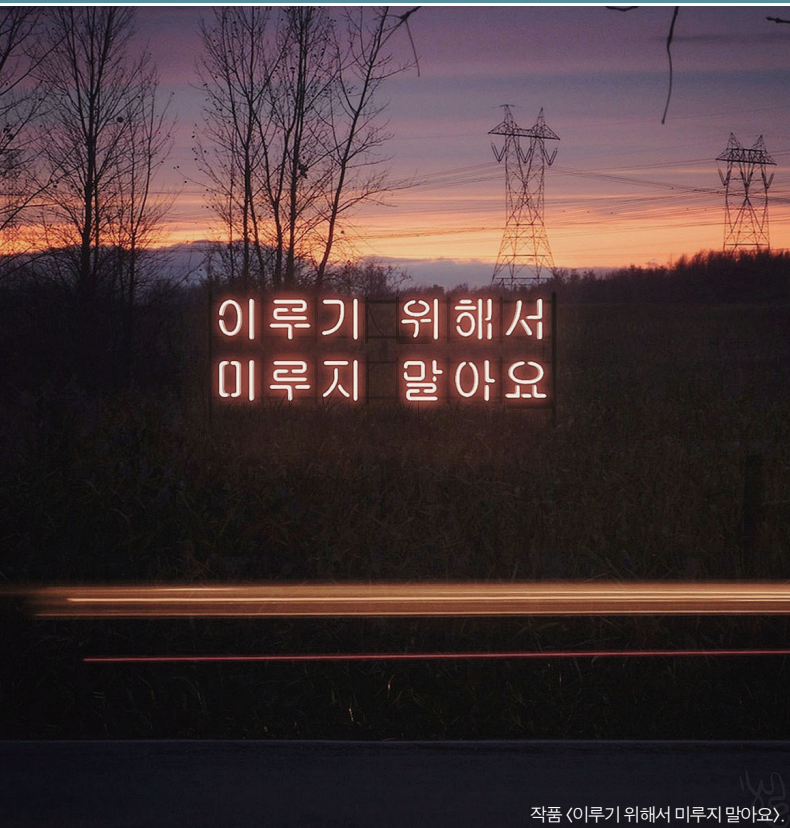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김창제

네온아티스트 김현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빛의 언어 'NEON language'

‘네온사인’은 화려한 도시의 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던 단어이자 장치다. 다양한 폰트와 그림, 빛깔로 특정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1990년대 무렵 간판에 많이 쓰였다. 오랜 불황을 거치며 인기가 시들해진 네온사인이 요즘 SNS에서 다시 각광받고 있다. 고요한 풍경 속에서 은은한 빛으로 간결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미지에는 ‘NEON language’라는 이름이 붙었다. 김현수 작가는 이 작업으로 이름을 알린 대표적인 아티스트다.



작품 <이루기 위해서 미루지 말아요>

Instagram

@kxxhyunsx



♥ 좋아요
#NEON language



김현수 작가가 웹과 개인 SNS 계정에만 업로드하는 작품들. 작품의 비율과 메시지의 간결함은 SNS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NEON language’는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애뜻한 감정의 짧은 메시지를 빛이 나는 네온사인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한글 타이포 네온사인 이미지 작업이다. 나는 사람들이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에만 작품을 업로드하고 그 공간을 통해 사람들과 주로 소통한다. 작업할 때도 SNS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다.

작품을 보면 배경이 되는 장소에 한글 네온사인 장치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는데, ‘NEON language’ 장치는 실제 유리관과 전기 등 복잡한 도구들로 구성·설치된 조형물이 아닌 컴퓨터 합성 작업을 통한 결과물이다. 배경 사진 위에 네온사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사진 속 장소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미지 작업이다.

위로받고 싶던 때 발견한 빛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4년이다. 당시 나는 직장에서도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거나 생각한 디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고 싶은 건 해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직장이기에 내가 진행하고 싶은 방향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내 감정과 마음이 담긴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며 스크랩하고 기록해왔다.

그러던 중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패턴으로 생활하는지 SNS 속 다른 이들의 글과 사진을 통해 흐름을 살펴보게 되었다. 며칠간 천천히 살펴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업, 취업으로 인한 걱정이나 반복되는 생활 패턴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시간 여유가 없는 내 상황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이미지를 SNS에 올리는 이들은 사실 다들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길 원한다. 그런 흐름을 보며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줄 만한 메시지를 담아 편안한 이미지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무엇, 이를테면 네온사인 같은 것 말이다.

당시에는 상점 간판 같은 광고용 네온사인이나 외국 아티스트의 영문 네온사인 작품은 종종 접할 수 있었으나 한글 네온사인은 쉽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한글을 이용해 친근하면서도 색다른 매력의 빛을 내는 네온사인 이미지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 경험과 감정, 생각을 토대로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인 메시지를 이미지에 표현해, 누구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SNS 공간에 업로드함으로써 많은 이와 공감과 위로의 소통을 시도했다. 그렇게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다 보니 지금의 'NEON language'라는 네온 그래픽 작업이 되었다.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곧 작업실

'NEON language'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가상의 네온사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제 네온사인 장치를 만들 때처럼 많은 시간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공간적인 제약도 받지 않는 작업이다. 컴퓨터와 그래픽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곳이 곧 작업실이 된다.

작업할 때엔 먼저 작품에 담을 메시지를 선정하는데,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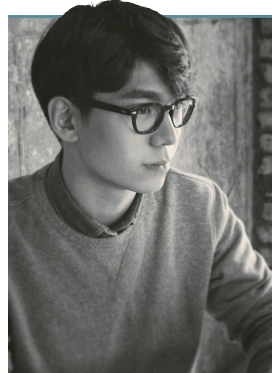
의 내용에는 당시 계절이나 환경이 주는 분위기를 반영하곤 한다. 오랫동안 생각을 구축하기보다는 수시로 문득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두고 이를 작업에 반영하는 편이다. (그것이 작업에 필요한 간결한 메시지를 얻는 데 더 효율적·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글을 선정한 후에는 그 글에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를 고른다. 그다음 네온사인의 컬러를 맞추고 사진 속 배경의 주변 환경과 기타 요소의 분위기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미지 수정 작업을 한다. 그렇게 사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한글 네온사인의 완성된 이미지는 해가 지는 시간 나의 SNS에 업로드해 사람들과 공유한다.

메시지를 전하는 '네온사인'의 가능성

1990년대 옥외광고로 거리를 화려하게 꾸미던 네온사인은 최근 예술작품이나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네온사인은 시각적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유연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빛을 내는 다른 장치(조명)들과 차별된다.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해 또 다른 시도를 해본다면 'NEON language' 작업이 그렇듯 아름다운 빛으로 신선한 매력을 발하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NEON language' 외에 나는 또 다른 감성을 담은 작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온라인에서만 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 좀 더 가까이 접하고 소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다. 손바닥 만한 정사각형 이미지가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듯 다음 프로젝트 역시 메마른 일상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줄 사소하지만 특별한 것이 되었으면 한다.

글·사진
김현수
SNS를 통해 자신만의
감성과 메시지가 담긴
한글 네온사인(Neon
language) 그래픽
이미지를 선보이며
대중의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kxxhyunsu
블로그
vvio77.blog.me



네온그래픽(Neon language) 작업을 잘하려면?

① 메시지에겐 감정의 적정선을 고려한다.

내 감정에 충실해 나에게만 힘이 되는 메시지는 다른 이들과의 소통이 아닌 '나만의 표현'이 되어버린다. 공감으로 만들어지는 소통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항상 메모하는 습관

문득 떠오른 생각, 찰나에 느낀 감정을 메모해두고 나중에 꺼내보면 종종 신선한 자극이 된다. 이런 기록들을 작업에 잘 활용하는 편이다.

단풍이 한 마리
단풍이 두 마리
어, 가을이 움직인다

- 유강희 시인의 동시 <금붕어>





김영란법으로 직격탄 맞은 공연계

오페라·클래식음악, 존폐 위기에 놓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오페라·클래식·뮤지컬 등 대형 공연이 의도치 않게 직격탄을 맞았다. 기업 후원과 단체 관람권 구매가 줄어들면서 공연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공연계는 5만 원 이하 ‘김영란 티켓’을 내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해답이 ‘없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불뚝이 엉뚱한 곳으로 튼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몸을 사리느라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민간 오페라단인 라벨라오페라단 이강호 단장의 말이다.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오페라계는 거의 ‘초상집’ 분위기다.

오페라와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같은 대형 공연의 경우, 기업 후원과 단체 관람권 구매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메워왔다. 그런데 공연 관람권이 대체로 5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이기 때문에, 초대권을 선물용으로 사용하던 기업들이 움츠리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올가을 공연을 앞둔 몇몇 민간단체는 공연을 보류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년 전에 후원 기업을 찾아야 하는 클래식공연 기획사들도 내년 굶직한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한 현실에서 속만 태우고 있다. 몇몇 대형 뮤지컬의 경우에는 이미 기업 티켓 구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형편이다. 안 그래도 오랜 불경기로 인해 힘들었던 공연계가 김영란법으로 일부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이다.



고육책으로 5만 원 이하 '김영란 티켓' 내놓아

이러한 가운데 공연계에서는 '고육지책'으로 5만 원 이하의 '김영란 티켓'을 선보이기도 했다. 클래식음악 공연기획사 빈체로는 오는 12월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지휘 거장 마리스 안손스와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내한 공연의 티켓 가격을 2만5,000원으로 낮췄다. 콘서트홀 2, 3층 전체를 최하 등급인 C석(2만5,000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빈체로 측이 상당한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기업 협찬·후원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일단 선택한 방법이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바로 다음 날인 9월 29일 개막한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개막공연 티켓 값을 내리고 모든 공연비를 1만~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초대권 발행과 리셉션도 모두 없었다. 서울의 한 공연장도 김영란법 시행 직후 열린 공연에서 초대권용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가인 3만~4만 원 좌석 비율을 소폭 늘렸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공연계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공연예술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또한 5만 원 이하 초대권 규정을 '프레스티지 티켓'에 일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티켓가

가 5만 원이 훌쩍 넘는 공연이 수도룩한데, 소극장 연극 등을 제외한 대형 공연의 경우 직접 티켓을 사서 취재해야 하는 기자도, 홍보를 해야 하는 기획사 측도 난감한 상황이다.

한 공연 전문 기자는 "프레스콜이나 리허설을 통해 보는 공연은 완성도가 떨어지고 공연의 3요소 중 하나인 관객 반응을 살필 수 없다"며 "단지 공연을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취재를 하러 가는 것인데 티켓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문화접대비 제도에 반하는 법 될 수도

정부는 그간 기업의 문화 소비 활성화를 적극 장려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기업이 거래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줬다.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과 문화 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지출이 대폭 줄어들게 생겼다. 한 공연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의도와는 다르게 문화접대비 제도에 반대되는 법이 돼버린 셈"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융성은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사실 그간 문화접대비 비중은 정말 미미한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간 기업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은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재철 국회의장이 최근 국세청이 제출한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 접대비는 45조4,357억 원인 반면 문화접대비는 277억 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마저 불투명해진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공연계의 어려움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봤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부터 당장 해외 스타 아티스트나 유수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은 보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협찬이 줄어들면 관객 부담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손수연 음악평론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문화계 전반에 삭풍이 몰아칠 것"이라며 "특히 오페라처럼 제작비가 많이 드는 공연예술은 저변 확대는 커녕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손 평론가는 "기업의 문화 접대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방법이나, 공연계 특수성에 맞는 시행령 개정 등이 시급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 공연기획사 빈체로는 큰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12월 예정한 지휘 거장 마리스 안손스 내한 공연 티켓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췄다.
2 지난 10월 무대에 오른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토스카>의 한 장면.



2

글 전해원
아시아투데이 기자
사진 제공 빈체로, 국립오페라단

공연단체 티켓 사재기로 도마에 오른 ‘공연티켓 1+1 사업’

‘공연티켓 1+1 사업’ 이게 최선인가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연 시장이 얼어붙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단체·극단에 공연티켓 가격을 지원하는
‘공연티켓 1+1’사업을 마련했다. 이 제도를 악용해 자신이 속한 극단의
티켓을 사재기하고 보조금을 챙긴 이들이 최근 적발됐다.
급하게 마련한 정책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 먼 ‘교육지책’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로 침체된 공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연티켓 1+1 사업’이 꼭 그런 모양새다. ‘1+1 사업’은 공연 티켓 1장을 구입하면 1장을 무료로 증정하고, 해당 티켓 값을 국고보조금으로 결제한다. 장르도 연극, 무용, 클래식부터 대중음악, 전통예술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30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사업을 실제로 추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488건에 대한 지원금으로 약 245억 원을 썼다.

사업 시행 전부터 “공연계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금만 타갈 수 있다” “인기 있는 공연에만 관객이 쏠리게 된다”는 등 업계의 우려는 존재했다. 사업이 끝난 뒤 오히려 관객의 가격 저항이 생겨 공연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그럼에도 사업이 진행된 건 당시 메르스로 인한 공연 예매 취소율이 42%에 달하고 공연 시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36.1% 감소한 상황(2015년 6월, 인터파크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교육지책’ 카드를 꺼낸 셈이다.

결국 문제는 터졌다. 자신이 기획한 공연 티켓을 사재기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극단 대표들이 지난 9월 잇따라 기소된 것. A극단 대표 손모 씨가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은 무려 5억 1,000만 원에 달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문예위를 속이기 위해 인터넷 예매 사이트 계정 2,200여 개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예위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 계정으로 무료 티켓을 포함, 총 4장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손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해 1억 4,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다른 극단 대표 남모 씨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 류모 씨 등 11명은 약식기소됐다.

국민 세금 낭비한 셈... 사업 관리 엄격하게 했어야

문예위는 온라인·현장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입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일부 중지한 바 있다.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조금 환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예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전 ‘티켓 판매 시 준수 사항’ ‘사재기 등을 할 경우 처벌 사항’ 등을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해당 약정서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물론 앞으로 3년 동안 문예위의 모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예위의 이 같은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공연티켓 1+1

공연티켓 2장 중 1장은 무료

감성충전이 필요한 날! 딱 좋은 공연 한 편!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공연예술계를 지원합니다!

공연티켓 1+1

티켓 2장을 예매하면 1장은 무료인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1+1티켓으로 재미있는 공연도 보고, 소중한 추억도 만드세요.
티켓도 두 장,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공연기간 (티켓 예매 가능기간) 1차 : 08.18~08.31 (08.18~08.31)
2차 : 09.01~12.31 (08.27~12.31)
3차 : 10.01~12.31 (09.25~12.31)

예매 가능 공연 공연티켓 1+1 지원 신청작품만 가능
(1+1 혜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모바일, 고객센터 예매는 2차 오픈 (08.27)부터 가능합니다.

예매 방법

1. 예매하기
2. 20
3. 좌석선택
4. 가격선택
5. 후원자정보 입력 및 결제
6. 티켓 수령

유의 사항

- 공연티켓 1+1 혜택은 지원대상 공연(공연장)에 한하며, (후보)공연 무료 지원
- 공연티켓 1+1로 예매 시, 다른 가격의 공연과 같이 예매할 수 없습니다.
- 공연티켓 1+1은 지원 대상 공연과 공적 합계가 됩니다.
- 공연티켓 1+1로 예매 시 지원 대상 공연, 공연장 연장에서 공연하는 공연도 지원 대상입니다.
- 후원자 정보 입력 시 공연티켓 1+1 신청이 완료됩니다.
- 공연티켓 1+1 지원 상품은 후기 제출과 무관하며, 신청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 공연티켓 1+1 지원으로 예매 후에는 후원자 정보, 후원 금액이 불가합니다.



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당 공연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으면 공연의 전체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며 “문제가 드러나고도 계속 지급해 낭비된 예산이 9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문예위는 규정 위반 처리 기준에 ‘지급 중지 또는 환수’라고만 표기돼 있을 뿐 ‘전액 환수’라고 명시되지 않아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단 입장이다. 또 “문제가 적발된 단체로부터 ‘추가 문제가 있다면 지급된 (나머지)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고발도 감수하겠다’고 명시한 각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물론 문예위로서 이 같은 지적이 억울할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자평한다. 당초 ‘공연 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 관객의 티켓 구매를 유도할 수 있었고 실제로 지방 관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국고보조금이 결국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불릴 정도로 악용 소지가 많고 부정 지급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두루뭉술한 규정을 명확히 보강하고 사업 초창기부터 엄격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어야 했다.

메르스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티켓을 공짜로 추가 증정하는 방식의 사업이 정말 공연 시장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관객이 바라는 건 당장의 무료 티켓 1장보다 ‘돈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양질의 공연’일 것이다. 무려 30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한 사업이 싹쓸한 뒷맛을 남기는 건 그 때문이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는 법이다.

글
박다혜
머니투데이 문화부
기자

사진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 뒤늦은 대처라는 아쉬움이 가시지 않는다. 모니터링 결과 부정 지급이 적발된 단체에도 계속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일 IP로 티켓을 대량 구매한 한 단체의 경우 사재기한 티켓 금액 224만 원에 대한 지급은 중지됐으나 나머지 구입 티켓에 대한 지원금 2,830만 원은 그대로 지급됐다.

문예위는 해당 사업 신청 제외 대상으로 ‘공연예술 시장을 교란시킨 공연 또는 단체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 대상 단체’를 명시했다. 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모니터링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단체가 적발됐을 때 해당 단체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총회 참가기

문화가 세계도시의 미래를 리드하려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총회(Summit)가 지난 10월 5일~7일 3일간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미래를 창조하기(Creating the Future: Culture taking the lead in world cities)'로, 세계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전 세계 문화정책 일선에 있는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도시의 미래, 문화의 역할

소비에트 시절 관료들의 숙소와 관청으로 쓰였다는 대규모의 메트로폴 호텔, 소비에트 실용주의의 육중한 건물들 위에서 빛나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 첨탑들, 볼쇼이 극장 바로 옆에 위용을 과시하며 서 있는 의회 건물, 그리고 그 뒤에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문구 위에서 손을 치켜들고 서 있는 마르크스 동상... 소비에트 시절의 유산이 모스크바의 문화정책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모스크바에서 첫날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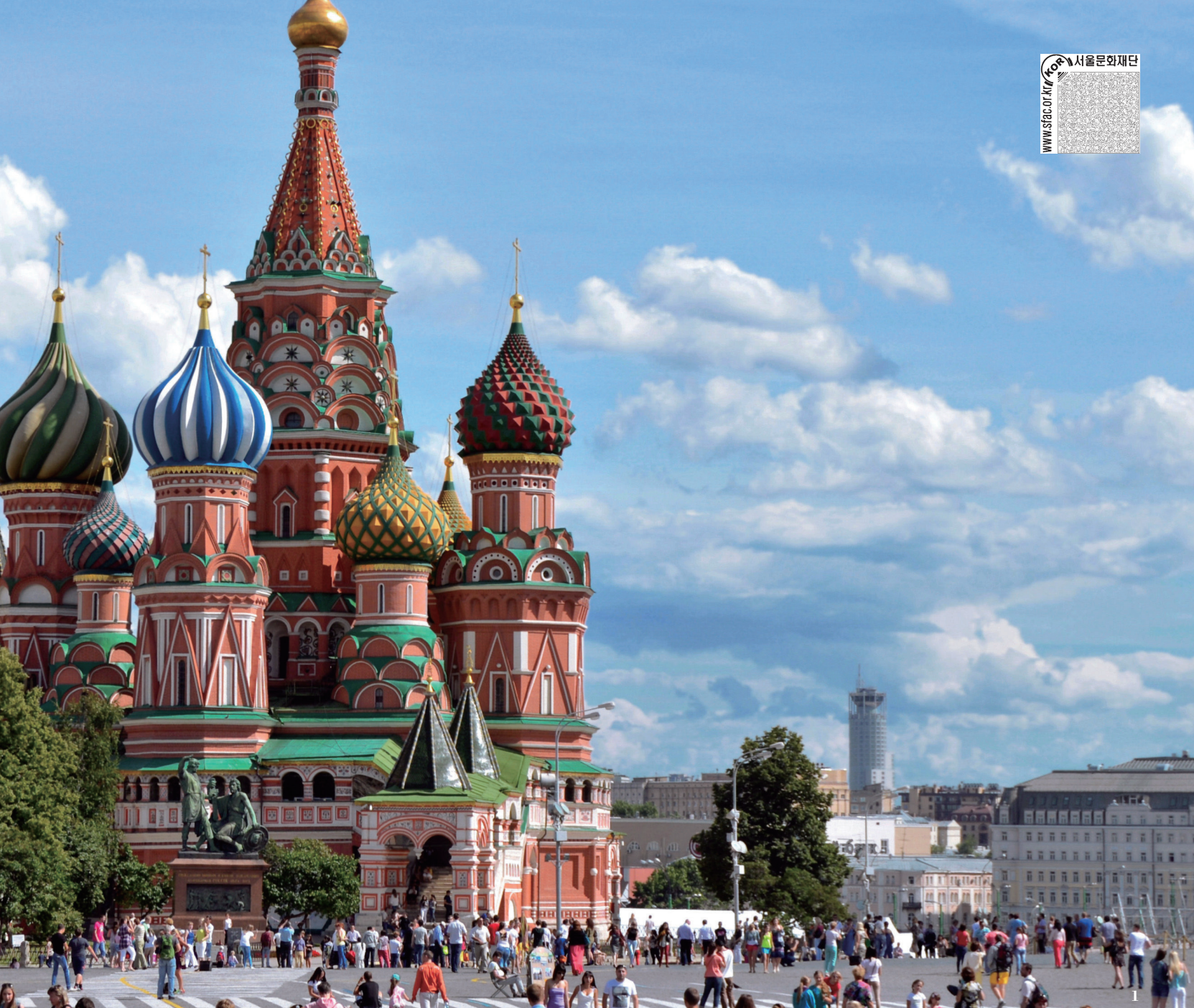
세르게이 소바닌(Sergei Sobyenin) 모스크바 시장은 개막식에서 400여 개의 공공 공원 재정비 사업의 성과를 자랑하며 모스크바를 문화도시로 소개했다. 소바닌 시장은 취임 후 무제한 예술공원(Muzeon Park of Arts), 고리키 공원(Gorky Park) 등을 문화적으로 재생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소바닌 시장은 개막 연설에서 "예전에는 도시들이 공장을 유치하려고 싸웠다면, 지금은 창의성, 재능, 투자, 도시 개발 효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싸우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수용소 군도>로 유명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렉산드르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의 부인이면서 동지였던 나탈리아 솔제니친(Natalia Solzhenitsyn) 여사가 기조강연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변화의 속도에 무서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고, 시대의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역할이



라고 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가능하고, 그것이 더욱 '문명적인 인간상'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WCCF 의장을 맡고 있는 저스틴 사이몬스(Justine Simons OBE) 런던시청 문화부시장은 "미래 도시의 상을 상상하고 구상해내는 것"이 바로 세계도시 문화정책가들의 숙제라고 제시했다. 지금 세계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도시 인구의 급증, 자가 상승과 주거난, 환경문제 해결에서 문화가 '황금실'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WCCF의 오래된 토론 주제다. 어쩌면 모스크바에 모인 23개 세계도시 대표단*은 모스크바 시장의 정치적 주문, 솔제니친 여사가 언급한 시민사회의 문화적 우려,



WCCF 의장이 그리는 문화정책가로서의 리더십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사흘간의 총회에 참여한 것이다.

영역을 가로지르는 문화정책의 리더십

WCCF에서 생각하는 미래의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역할이 이번 총회 첫 번째 세션의 주제로 설정되었다. 바로 '영역을 가로지르는 문화정책의 리더십(Weaving the golden threads-cultural leadership beyond our role)'이다. 보다 문화적인 도시로서 상황이 조금은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런던의 문화부시장도 런던 도시계획에서 문화 분야 계획은 달랑 1페

이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도 런던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문화 플랜이 있지만, 물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서술한 도시계획이 더 강력한 실행력과 구속력을 가진다.

토론 패널들은 이론가들이 아니고 현장 실무자들인 만큼, 다른 정책 영역과 소통은 결국 '안면 행정'이 중요하다는, 만국 공통의 진리를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뉴욕시에서는 보건, 이민, 도시설계 담당 부서에서도 상주예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하이에서 온 참가자는, 가운데 존재하면서 배우러 오기를 기다리는 '유니-버시티(uni-versity)' 방식에서 탈피해, 문제가 있는 곳으로 전문가를 내보내는 '멀티-버시티

1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있는 성바실리 대성당. 러시아 정교회 성당으로, 게임 <테트리스> 메인 화면에도 등장한다.



2
개막식 직후 전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네 번째가
각각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 저스틴
사이몬스 런던시
문화부시장(WCCF
의장)이다.

3
알렉산드르 솔레니친의
부인이면서 동지였던
나탈리아 솔레니친
여사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multi-versity)’ 방식의 문화기업가 양성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진 엑스포(Expo) 세션 중 하나가 암스테르담 시청에서
작년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브레인스토
밍이었다. 런던의 유명한 빅댄스(Big-Dance) 연출가이기도 한
저스틴 사이몬스 부시장은 브레인스토밍 내용을 직접 정리하면
서, 경계를 가로지르는 문화적 리더십 만들기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리더십에는 행정에 대
한 폭넓은 이해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는 활동가 정신,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 기질, 본인의 고유한 가치를
믿는 자부심(Authentic to yourself)까지 폭넓게 제기되었다.

다음 날 진행된 분임토의 주제 중 하나인 ‘창의력 vs. 행정
의 규칙(Creative Power vs. Administrative Order)’ 역시, 예술
가로서 문화행정의 수장을 맡고 있는 그의 문제의식이 강하게 반
영된 것이라고, 사무국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BOP 컨설팅의 연

구진이 귀띔해주었다.

모스크바 솔리안카 미술관(Solyanka State Gallery)의 표
도로 파블로프 안드레비치(Fyodor Pavlov-Andreevich) 관장
의 폭로성 발표는 매우 논쟁적이었고, 마지막 날 공개 토론회에
서도 확인되는 모스크바 문화계의 기류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아방가르드한 행위예술가로 세계적으로도 꽤 알려진 그는 직접
미술관 재원 조성을 위해 본인의 몸을 관객들이 마음대로 하도
록 내맡기는, 나체의 죄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최근에 이
미술관에서 예정된 행위예술 작품이 당국의 검열로 불허된 사태
를 소개했고, 런던에서 온 참가자는 “자유가 없는 미술관 관장이
도대체 무슨 정책적 역할을 할 수 있나?” 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에 “그는 많은 미술관 중 하나의 박물관을 담당하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은 모스크바 시청의 문화 담당자
의 답변을 들으면서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이 떠오르기도 했다.

문화정책과 기후변화

여러 정책 영역을 가로지르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정책
의 리더십을 기대하는 이번 총회에서 의욕적으로 도입한 것이
둘째 날 개최된 ‘기후변화와 문화정책: Breaking boundaries-
bringing culture into the climate conversation’ 세션이었다.
세계도시들 간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구성된 C40 기후리
더십 그룹(C40 Climate Leadership Group)의 대표 안나 비치
(Anna Beech)와 NGO 단체인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
의 앨리슨 티첼(Alison Tichell) 대표가 패널로 초대되어, 기후변
화 대응과 관련해 문화예술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거듭 역설했
다. 하지만 WCCF 사무국에서는 올해 세계도시의 우수 정책 사
례집을 만들면서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하나의 주제로 별도로 제
시했지만, 실제 사례가 별로 없어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스크바에서 발표한 공원 녹지에 대한
시민의 의식,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과의 상관관계였다. 문화예
술이 도시의 환경을 보다 살기 좋게 하면서 동시에 젠트리피케이
션을 일으키듯이, 공원 녹지도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다. 자본주의화한 도시에서 도대체 ‘좋은 것’이 ‘계속 좋은 것’으
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문제들,

서로 다른 맥락에 따라야 할 해법

행사 마지막 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개 정책 토론회는, 러시



아 구성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인 ZIL 문화극장(ZIL Culture Centre)에서 개최되었다. ZIL 문화극장은 1937년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진 최초의 문화시설인데, 당초 리카체프(Likhachev)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지어졌다고 한다. 그동안 각 도시의 문화정책 담당자들끼리 속내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던 총회의 관행을 깨고, 올해 처음으로 일반인을 초청한 정책 세미나였다. 온라인으로 방송되고, 시민과 소통한다는 취지에 ZIL 문화극장의 장소성은 충분히 부합하는 듯했다.

하지만 ‘미래의 문화정책 어젠다: What next for culture in world cities?’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결국 모스크바 문화에 술계와 문화정책 당국 간의 긴장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두 살쯤으로 보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려며 질문하는 아빠는, 정부가 지나치게 공공 문화시설 중심으로만 투자하고 관리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담아서, 민간 영역 문화 기관에 대한 자원 조성 방안과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물었다. 오히려 가장 자본주의화한 뉴욕에서 온 패널은, 세금을 낸 시민이 의사결정하는 정부 예산과 기부자가 혼자 결정하는 기부를 통한 자원 조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드리드에서 온 패널은, 실사 영리 추구형 문화사업이라도 그 기반이 되는 토양을 조성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자원이 더 이상 국가 소유가 아닌 상황에서 여전히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해야 할지는 불명확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스페인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고흥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세계도시들이 직면한 문제는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해법은 결국 시민의 의식 수준과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찾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세계도시문화리포트(WCCR) 2015〉에서 서술했듯이, 모스크바 시장을 포함한 모스크바 시민들은, 공원을 비롯한 도시 공간과 환경 전체를 문화로 인식하는, 광의의 문화 개념을 사용하는 듯했다. 이처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정치·사회적 맥락이 다른 도시들이 모여서, 같은 문제 사례를 공유하되,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은, 그 도시의 맥락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년에는 서울에서, ‘문화도시에서 문화시민도시로’

서울이 내년 총회 유치 도시라는 사실은 총회 첫날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폐막식에서 공식 발표된 후, 특히 아시아 지역의 회원 도시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에서 아시아적 맥락을 반영해보자고 의기투합하는 등 내년 서울 총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각국의 큰 기대감 속에서 치러질 2017년 총회의 주제는 서울문화비전 2030과 연계한, ‘문화도시에서 문화시민도시로: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행복함!(The Creative-Civic City: By The Citizens and For Their Happiness)’이 제안되었다. 기존의 도시 마케팅 중심의 ‘창조도시’와 인프라 중심의 ‘문화도시’ 만들기에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시민도시’로, 세계도시들이 문화정책의 중점을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초청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협업 워크숍 방식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정책개발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Leadership Programme)이 처음으로 병행될 예정이다. 유럽 중심의 문화정책 논의가 아시아로 넘어와서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해볼 일이다.

* WCCF의 회원 도시는 총 25개 국가의 33개 도시인데, 이번 총회에는 23개 도시만 참여했다. 참가한 도시는 서울, 도쿄, 상하이, 홍콩, 선전, 싱가포르, 런던, 애든버러, 암스테르담, 브뤼셀, 파리, 이스탄불, 스톡홀름, 마드리드, 모스크바, 빈, 바르샤바,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몬트리올, 토론토, 부에노스아이레스다.

4 ZIL Culture Centre 전경.

5 총회 마지막 날 ZIL Culture Centre에서 진행된 공개 정책 세미나.

글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사진
모스크바 시청, 김해보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 호에서는 흐한 나무와 풀포기의 풍경 안에 장소가 보낸 봄~겨울의 시간을

모두 덧칠해 담아내는 허수영 작가의 <Garden>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인물을 설정하고

인물의 눈코입과 표정을 지워내 관객들로 하여금 묘한 궁금증을 갖게 하는 구나 작가의 <Double>을 소개한다.



허수영

Garden

캔버스에 오일

91×116.8cm

2016

750만 원

‘바람난 미술’ 사용법

- 나는 시민입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기업입니다. 작품을 구매 혹은 대여해서 우리 회사의 예술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내 작품이 시민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여와 판매의 길도 찾고 있습니다.
 - 바람난 미술 전체 작품을 보려면? 바람난 미술 온라인 아트 갤러리를 방문해보세요.
www.sfac.or.kr/artsgallery
 - ‘바람난 미술’ × 다음(Daum) 카카오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storyfunding.daum.net/partner/sfac#
- * 문의 02-3290-7140(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쿠나
Double

캔버스에 오일
165 × 135cm
2016
400만 원



〈2016 서울 상상력발전소: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

예술과 기술, 사람이 세운 시간을 만났을 때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도시에서 흔히 겪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예술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을 보다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세운상가 장인의 기술과 예술가의
상상력을 융합한 프로젝트 〈2016 서울상상력발전소: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가 지난 10월 7일부터
30일까지 세운상가에서 열렸다.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지난해 세운상가를 거점으로
해 대중의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진 세운상가를 알리고자 〈2015
서울상상력발전소: 다시 만나는 세운상가〉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민과 만났다.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을 도입해,
예술가와 세운상가 메이커들의 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레코드페
어, 워크숍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구성해 선보였다. 그
런데 하나 빠진 게 있었다. 이 멋진 행사에 정작 세운상가 상인
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 올해는 이를 고려해 세운
상가 장인과 메이커의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했다. 본행사 전인
6~8월 3개월 동안 세운상가의 장인 8명과 예술가 4명이 만나
기술을 교류하는 '메이커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본
행사 기간에 시민과 함께 진행할 워크숍을 탄탄하게 기획했다. 3
개월간의 협업 과정은 10월 7일에 열린 개막식 행사 중 쇼케이
스를 통해 발표됐다.

‘장인×메이커’ 협업의 새로운 시도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에서는 세운
상가 내 협의체의 대표자를 만나 프로젝트에 함께할 기술장인
(상인) 추천을 요청했고, 상인 한 분 한 분과 적극적으로 커뮤니

케이션한 끝에 10명의 장인을 섭외했다. 또한 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는 4개 팀(유상준, 전유진, 서영배, 산딸기 마을)을 섭외해 이번 행사를 통해 개발하고 싶은 워크숍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그렇게 지난 7월 7일, 10명의 세운상가 장인과 4팀의 메이커가 처음 만나며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가 시작됐다.

고양이와 반려인을 위한 스마트 장난감 ‘캣치캣츠’를 개발해 제품화에 성공한 리틀보이사이언 유상준 대표는 ‘아두이노(Arduino)’를 활용한 하드웨어 회로 보드를 이용해 세운상가의 소리를 녹음하고 이용자만의 소리를 디자인해서 연주할 수 있는 ‘DIY악기’를 제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세운상가의 ‘차박사’라 불리는 차산전력의 차광수 대표와 말하는 로봇, 공룡 로봇을 제작한 자연기술랩의 이천일 대표가 자문에 참여했다.

컴퓨터공학과 음악을 전공하고 이를 활용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전유진은 고(故)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술 디렉터 아트마스터의 이정성 대표와 함께 작업했다. 전유진 작가는 아날로그 TV를 활용해 오디오 비주얼라이저로 선보이는 보드를 만들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이정성 대표로부터 아날로그 TV를 분해하는 방법, 각각의 부품들의 역할, TV의 화면을 구성하는 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실제로 출력되는 화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메이커를 위한 다양한 기술 자료와 매뉴얼, 소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하드카피월드’를 운영하는 서영배 대표는 다른 메이커들과 다르게 국내 최초로 브레드보드 키트를 제작·생산한 흥인전자의 장은진 대표와, 메이커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두이노’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스케치라는 프로그래밍 형태로 구현해보며 알려주는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 또 아두이노를 활용한 ‘반응형 네온사인’ 만들기에 사용할 EL 와이어 컨트롤러와 관련한 주의 사항 및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현성하이테크 한영만 대표가 자문에 참여했다.

지난해 <2015 서울 상상력발전소: 다시 만나는 세운상가> 워크숍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산딸기 마을’은 당시 선보인 ‘라즈조이박스’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했다. 기존에 없던 앰프와 스피커를 추가했고 이 과정에서 앰프와 스피커에서 나오는 미세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동성전기통신의 권영길 대표와 기술 자문을 진행했다.

‘만드는 문화’의 메카, 지금 더 흥미로운 세운상가

10월 7일(금)~9일(일)에 진행된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 오프닝 행사에서 ‘메이커스 플랫폼’의 주인공들은 지난 3개월의



과정을 집약해서 관객에게 선보였다. 전유진 작가는 워크숍에서 시민들이 제작할 ‘오디오 비주얼라이저 보드’를 활용한 전자 음악 퍼포먼스를 펼쳤고, 유상준 대표는 메이커 문화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DIY악기’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쇼케이스 부스에서는 ‘메이커스 플랫폼’ 과정을 공개하는 전시가 진행됐다. 세운상가를 30년 넘게 지켜온 차산전력의 차광수 대표는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세운상가에 있는 기계부품, 전자기판, 모터, 바퀴 등을 활용해 만든 연쇄반응 기계장치를 제작·공개해 명실공히 ‘예술가’로 거듭났다.

이 밖에 이번 오프닝 행사에는 1980~90년대 초반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번성한 ‘음반 도소매상’을 회고하기 위해 이 중심에 있던 ‘영레코드’를 재현하는 ‘세운뮤직마켓’이 열렸다. 청소년 시절 최신 음반을 구입하기 위해 세운상가를 드나들던, 지금은 30~40대가 된 ‘세운상가 키즈’ 8팀이 셀러로 참여해 ‘뽕판’ 등 LP, 기타 음반을 판매했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관객이 부스를 찾았다. 이 밖에도 누구나 참여해 과학 기초 원리를 배워보는 ‘3분체험키트’ 만들기, 고장 난 음향기기를 고칠 수 있도록 무료 검진권을 나눠주는 세운수리실(With 수리수리협동조합), 추억의 빈티지 워크맨 판매 부스, 세운상가 장인에게 들어보는 ‘텐테이불 바늘의 모든 것’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세운상가의 상인 및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작년보다 진행이 훨씬 수월해졌음을 체감한다.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가 당장 세운상가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에서 선보인 ‘메이커’ 문화가 많은 이에게 알려지고, 세운상가 상인·장인과의 협업과 소통이 활발해진다면 모두에게 필요하고 환영받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감히 기대해본다.

*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은 ‘제작자 운동·문화’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 사용할 물건을 직접 만드는 DIY(Do It Yourself)에서 더 나아가, 각자의 설계 도면을 공개하고(오픈소스)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보며 직접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하는 운동·문화다.

- 1 세운상가의 중정 격인 5층 공간에서 진행된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 오프닝 행사.
- 2 오프닝 행사에서 전자음악 퍼포먼스를 선보인 미디어아티스트 전유진.
- 3 쇼케이스 부스에는 차산전력 차광수 대표가 세운상가에 있는 기계부품을 활용해 만든 ‘연쇄반응기계장치’가 전시되었다.

글
서금슬
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사진
서울문화재단

지켜줘서 고마운 최순우 옛집

그리움이 깃들인 아름다움

최순우 옛집의 대문은 열려 있다. 한번 들어가볼까
망설이면서 문을 두드리거나 문틈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
동네 주민은 물론 시민 누구나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다.
한적한 성북동에서도 큰길이 아닌 좁은 골목길 안에 있어서일까.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번잡한 바깥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되어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자연스럽고 소박하다.

1 최순우 옛집 전경.

2 사랑방 입구.
건너편으로 보이는
용자살창과 뒤뜰이
정갈하다.

3
지난 10월
김우영 사진전이
열렸을 당시,
공간 사진이
전시 작품인 줄 알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작품과
공간이 잘 어우러졌다.



최순우 옛집은 그리 크지 않다. 중정을 지나 뒤뜰까지 한 바퀴 돌아 나오면 금방이다. 오히려 크지 않아서 좋다. 그래서 더 찬찬히 들여다보게 된다. 처마 밑에 마침맞게 놓여 있는 물확, 돌로 반듯하게 짜인 우물, 원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커다란 함지박, 대청에 다소곳이 놓인 소반, 부드러운 필체의 현판(두문즉시심산(杜門卽是深山), 문을 닫으면 곧 깊은 산중이다)까지... 집안 곳곳에 남아 있는 해곡 최순우 선생(1916~1984)*의 손길과 뛰어난 안목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원래는 1930년대에 지어진 평범한 한옥이었지만 1976년 선생이 이사 온 후로 손수 만 들고 가꾼 것이라고 송지영 학예사(2007년부터 근무)가 설명했다. 뒤뜰에는 무성할 정도로 나무를 많이 심었으며 달항아리를 놓고 보고, 벼루와 수석을 집안 곳곳에 전시하기도 했다고. 덕분에 3월 산수유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모란, 수국, 산국(山菊)까지 갖가지 꽃이 번갈아 피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다

이 집의 백미는 뒤뜰이다. 방문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조용히 들어와서 뒤뜰 툇마루에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뒷집의 높은 벽 때문인지 한옥의 골은 선 덕분인지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옛집에서 활동하다 다른 곳에 취직한 자원활동가들도 직장 생활이 힘들 때면 찾아온다고 한다.

사랑방의 창으로 보이는 뒤뜰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다. 정갈하고 쾌적한 비례의 용(用)자살창은 그 풍경을 담아내는 훌륭한 액자 역할을 한다. 지난 10월 8일까지 열린 김우영 사진





전을 찾은 시민들이 언론에 보도된 공간 사진을 전시 작품인 줄 알고 물어보았을 정도다. 이 공간을 사랑하는 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한 작가 덕분에 공간과 잘 어우러진 전시가 나왔다.

미닫이의 창살은 용자살이 가장 정갈하고도 조용할뿐더러 황금 룰이 적용된 쾌적한 비례의 아름다움을 갖추어 온갖 잔재주를 부린 어느 완자살창보다 한 수가 높았다... 말하자면 용자살창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세련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중에서

사랑방을 비롯한 집의 내부는 생전에 찍은 사진과 자주 드나들던 분들의 얘기를 참고해 최대한 비슷하게 해놓았다. 원래 사용하던 목가구나 소품도 있지만 선생이 작고하기 전에 책과 소장품을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해, 지인이나 제자들이 기증한 것으로 다시 꾸몄다. 사랑방 뒷문의 ‘오수당(午睡堂)’ 현판은 선생이 좋아하던 김홍도의 글씨를 판각해 만든 것인데, 친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최순우가 사랑한 전시품〉展(2016. 12. 31까지)에 전시 중이다.

사람이 가꾸고, 그를 아끼는 사람이 지킨 집

옛집에 한번 가볼 계획이라면 방문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11월 30일까지만 문을 열고 4개월간 겨울잠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긴 시간 문을 닫는 아쉬움에서인지 11월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선생이 직접 쓴 글을 전

시하는 〈밀화빛 따사로움〉展이 있고, 미학 강의는 11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00주년 기념 강좌(11월 12일, 19일)도 2회 열린다. 2009년부터는 성북 지역의 문화 예술인을 발굴해서 매년 1권씩 책도 내고 있다. 최순우 옛집 외에도 권진규 아틀리에, 도래마을 옛집, 고희동 가옥 등을 운영하는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사무국은 실 틈이 없을 듯하다. 작은 공간이 참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 싶었는데 역시 ‘사람’이었다. 송지영 학예사는 “저를 포함해 4명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보존의 의미를 알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저희는 공간 덕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냥 와서 많이 좋아해주시니까요. 직원들도 다 뭐 하는 걸 좋아하고요.”라며 미소 짓는다.

2002년 문화계 지인들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모아 헐릴 위기에 처한 집을 매입하고 2004년 시민들에게 개방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시민문화유산 1호이지만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도 많다. 정기후원회원은 800명, 자원활동가는 연 60명 정도. 연간 1만4,000명이 찾는데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다. 다른 공간들과는 다르게 원래 집이었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이가 많다. 방명록처럼 받은 엽서를 보여주는데, 시도 있고 스케치도 있고 캘리그라피도 있다. 언뜻 보아도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 “저희도 그냥 보관하고 있기는 아까워서 이 집에 사연이 있는 분들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치 그림에 지친 듯 해쓷한 얼굴로 나를 반기고, 호젓하고도 스산스러운 희한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

-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중에서

“최순우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고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내 알리고 이를 보존하는 데 일생을 바친 최순우 선생의 후손들이 뜻을 모아 지켜낸 집. 그 마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줘서 사무치게 고맙다. ⁵²²

* 본명은 희순(熙淳), 개성 출생으로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냈으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등의 저서가 있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사무국

뮤지컬 <천변카바레>와 <오! 캐롤>

1960년대 청춘들의 BGM과 함께

중장년층의 감성을 울리는 뮤지컬 두 편이 늦가을 정취가 물씬한 11월에 나란히 찾아온다. 4일 개막하는 <천변카바레> (~27일까지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와 19일 개막하는 <오! 캐롤>(내년 2월 5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이 그 주인공이다.



뮤지컬 <천변카바레>는 가수 배호의 음악을 모티프로 1960~70년대 서울과 청춘들의 성장통을 담았다.

두 작품은 창작 뮤지컬과 라이선스 뮤지컬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무엇보다 196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의 노래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는 점이다. <천변카바레>는 한국의 배호, <오! 캐롤>은 미국의 닐 세다카의 노래로 이루어졌다.

급격한 현대화의 성장통 속 서울, 청춘, 그리고 배호의 노래

<천변카바레>, 11. 4~27,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배호(1942~1971)는 친근한 트로트와 모던한 스탠더드 팝이 섞인 창법에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1960년대 후반 한국 가요계를 석권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빠져 살았던 그는 1963년 가수로 데뷔했다. 밴드의 보컬 겸 드러머로 밤무대에서 인기를 끌다가 1966년 녹음한 <돌아가는 삼각지>(배상태 작곡, 이인선 작사)의 대히트로 국민적인 스타가 됐다. 신장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는 쉴 틈 없이 배상태-이인선과 콤비를 이뤄 <비 내리는 인천항부두>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비 내리는 명동> <마지막 잎새> 등 50여 곡을 쏟아냈다. 그러나 신장염 악화에 따른 폐렴까지 겹치면서 인기 절정이던 29세에 요절했다. 그후 오랫동안 그를 흉내낸 가짜 배호 음반이 판을 치기도 했다.

뮤지컬 <천변카바레>는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시골에서 상경해 배호 모창 가수가 되는 춘식의 이야기를 다뤘다. 춘식은 공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에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가수 배호가 출연한다는 천변카바레에 놀러 갔다가 얼떨결에 웨이터 생활을 시작한다. 이곳에서 그는 밤무대 가수 미미와 사귀다가 버림받자 실의에 빠진다. 그러나 동경하던 가수 배호가 세상을 뜬 뒤 모창 가수 '배후'로 활동하게 된다. 천변카바레에서 사랑과 배신, 타락을 경험하는 춘식은 급격한 현대화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서울의 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배호의 노래 10곡 외에 외에 한명숙의 <노란 샤쓰의 사나이>, 신중현의 <커피 한잔>,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등 1960~70년대 인기곡 10곡 등 총 20곡이 나온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9인조 빅밴드가 사이키델릭한 사운드로 1960~70년대 클럽 음악을 세련되게 재구성할 예정이다.

2010년 초연된 이 작품은 한국 창작 뮤지컬에서 처음 시도된 시리즈 뮤지컬이다. 박태원의 모더니즘 소설 <천변풍경>에서 이름을 따온 '천변' 시리즈 뮤지컬은 한국 근현대 대중음악사를 토대로 그 시대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삶을 그려왔다. <천변카바

레)는 1930년대 만요(漫謠)를 음악감독 하림과 맛깔나게 그려 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천변살롱>(2008년 초연)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다. <천변살롱>과 마찬가지로 대중음악평론가 강현과 방송작가 박현향이 대본을 쓰고, 대중가수 콘서트를 주로 연출 해온 김서룡 청운대 교수가 연출을 맡았다. 이번엔 뮤지컬 배우 고영빈과 최형석이 춘식 역을 맡았다.

닐 세다카의 음악과 1960년대 청춘들의 사랑 <오! 캐롤>, 11. 19~2017. 2. 5, 광림아트센터 BBCH홀

한편 닐 세다카(Neil Sedaka, 1939~)는 1960~70년대를 풍미 한 팝의 전설적인 거장이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연주와 작곡 에 뛰어났던 그는 1957년 가수로 데뷔했다. 2년 뒤 여자친구인 가수 캐롤 킹을 위해 만든 노래 <오! 캐롤>이 히트하면서 스타덤 에 올랐다.

싱어송라이터인 그는 작사가 하워드 그린필드 등과 함께 500곡 이상 작곡했으며, <원웨이 티켓>(One Way Ticket) <캘린더 걸>(Calendar Girl) <유 민 에브리싱 투 미>(You Mean Everything To Me) <브레이킹 업 이즈 하드 투 두>(Breaking Up Is Hard To Do)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이들 노래는 사랑과 이별에 관한 솔직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아직도 사랑받고 있다. 그는 1983년엔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됐으며,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뮤지컬 <오! 캐롤>은 세다카의 히트곡 21곡으로 만든 작품으로 2008년 미국에서 초연됐다. 한국 타이틀은 '오! 캐롤'이지만 원제는 '브레이킹 업 이즈 하드 투 두(헤어지는 것은 힘들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 캐롤'이 더 알려진 데다 귀에 쏙 들어오는 제목이라 바꿨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첫사랑과의 결혼식 당일 신랑에게 바람맞은 주인공 마지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 로이스가 마지의 신히여행지였던 파라다이스 리조트로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된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리조트 쇼의 바람둥이 가수 델, 소심하고 어수룩한 매력으로 작곡가를 꿈꾸는 게이브, 화려한 스타였으나 지금은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사장인 에스더,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사랑했지만 고백 못한 간판 MC 허비까지 6명의 러브스토리를 담았다. 한국 공연에선 남경주·서영주·서범석·전수경·김선경·이유리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들이 캐스팅됐다. 이 가운데 뮤지컬배우 1세대 남경주와 전수경은 이번 작품에서 무려 30번째로 호흡을 맞춘다.



닐 세다카의 음악을 모티브로 한 <오! 캐롤>에서는 한국 뮤지컬 1세대 배우들의 연기호흡을 보는 것도 재미 요소 중 하나다.



글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주)뮤직웰,
쇼미디어그룹



전시 <The Poets 시인들>과 <이야기가 있는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그 자체가 작품인 미술관으로

미술관에 갈 때면 항상 왠지 모르게 설렌다.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영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말 니들이 코스로 미술관을 잡는다. 만추의 가을빛이 짙은 강원도 산속 미술관 두 곳에서 '가을 감성'이 물씬 풍기는 전시를 나란히 열고 있다.

수목화가 된 자연×꿈에서 본 듯한 풍경

<The Poets 시인들>, 9. 29~12. 11, 이상원미술관

강원도 춘천시 화악산 계곡에 자리 잡은 이상원미술관에서는 <The Poets 시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반기 기획전을 열고 있다. 사진전으로 김보섭 작가의 <연평도의 바위> 연작 20여 점과 <낮달(Daytime moon)>이라는 전시명으로 박형근 작가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작품은 모두 1~2m가 넘는 대작이다.

두 작가의 개인전은 각각 자연 및 풍경을 담은 작품으로서 사진의 특성상 있는 그대로의 외부 대상을 촬영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시적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김보섭 작가의 작품은 마치 수묵산수화가의 눈으로 포착한 자연과 같다. 검은 바위와 대기, 바다의 정경에 깊고 웅장한 자연의 경이를 느낄 수 있다.

박형근 작가의 작품은 자연의 풍경과 건물 또는 실내의 풍경에 최소한으로 개입한 작가의 손길이 어우러져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느낌을 선사한다. 현실세계를 넘어선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우화적이며 꿈의 세계와도 같고 미지의 우주를 그린 듯한 작품이다. 전시는 12월 11일까지.



이상원미술관은 춘천 도심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화악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이상원미술관'이라는 이름은 춘천이 낳은 국내의 대표적인 극사실주의 작가인 이상원 화백의 이름을 따 지어졌다. 독학 화가로 유명한 이상원 화백은 처음에는 극장 간판 그림이나 주문 초상화를 그렸다. 1970년 건립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영정 초상화로 유명해졌고,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초상화 등 국빈 선물용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돌연 모든 주문 초상화 작업을 중단하고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전업작가로 돌아섰고 지난 2000년부터 고향 춘천으로 내려와 예술혼을 불태워왔다.

지상 5층의 둥근 미술관은 전시 면적만 1,500m²이며 작가 스튜디오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5개 동을 합하면 대지 면적 1만5,737m², 연면적 4,789m²에 이른다. 특히 계곡을 따라 숙박 시설인 뮤지엄 스테이가 들어서 있어 가족 여행을 겸해 찾아보면 좋다.

책에서 걸어 나온 일러스트레이션

〈이야기가 있는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전〉,

9. 8~2017. 2. 26, 뮤지엄 산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오크밸리에 자리 잡은 '뮤지엄 산'(관장 오광수)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겨냥해 특별 기획전 〈이야기가 있는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전〉을 열고 있다. 뮤지엄 산은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곳으로 유명하다.

전시는 '이야기가 있는 그림'과 '미술과 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구분되어 전시된다. 청조갤러리1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주제로 세계적 권위의 그림책 대회에서 수상한 한국 작가 14명의 원화와 아트프린트가 전시된다. 청조갤러리2에서는 미술

과 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김환기, 이중섭, 천경자 등 뮤지엄 산 소장 작가들의 표지 그림을 포함해 시, 소설, 문학잡지 등 문인과 화가들이 함께 작업한 도서류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책 속에서만 숨 쉬고 있던 그림들을 전시장 안으로 들여와 인쇄물이 아닌 원화를 관람객들이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전시는 어린이 책 박물관이나 몇몇 작은 화랑에서 소규모로 개최되었을 뿐 미술관 차원에서 다뤄진 적이 없는 분야인데 국내에서는 뮤지엄 산이 처음으로 개최해 그 의미가 더 크다.

최용준 뮤지엄 산 학예실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더 나아가 일러스트레이션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스쳐 지나친 우리 일상 속 출판 미술에 관심을 가져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2017년 2월 26일까지 계속된다.

뮤지엄 산은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건축과 예술이 하모니를 이루는 문화공간으로 유명하다. 2013년 한솔뮤지엄으로 문을 열었다가 이듬해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올해로 개관 3주년을 맞는 이곳의 연간 관람객은 10만여 명에 달한다. 미술관을 둘러싼 거대한 인공 연못 위에 건축물이 떠 있는 듯한 모습이 신비롭기까지 하다.

각종 야생화가 만발한 플라워가든, 조각정원, 신라 고분을 모티브로 한 스톤가든을 외부에 두고 있다. 기획전 외에 상설 전시로 전혁림, 남관, 박수근, 유영국 등의 작품을 보여주는 〈한국 미술의 산책1: 서양화〉전이 열리고 있으며, 빛과 공간의 예술가인 제임스 터렐의 대표작을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 1 김보섭
〈연평도의 바위_3〉.
- 2 춘천 이상원미술관 전경.
- 3 최미란 작가의 작품.
'2010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그림책 〈둘로 지은 절
석굴암〉의 한 장면이다.
- 4 원주시에 자리한
뮤지엄 산은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곳으로 유명하다.

글
이경택
문화일보 기자

사진 제공
이상원미술관,
뮤지엄 산

소통,
의미,

멀리 있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일 때 그것은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의 언어는 여전히 희망적일까?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이 많아진다. 넘겨짚고, 넘어진다. 싸움은 미움이, 학문은 향문이 된다. 오해의 서식지에 악취가 진동한다. 그리하여 만화(Comics), <언플래트닝>과 <자이 자이 자이 자이>를 소개한다. 동갑내기 두 만화가에 의해, 언어(글)와 비언어(그림)는 이제 하나의 질료가 된다. 지지고 볶으며 의미와 소통을 추동한다.

언어와 이미지의 중첩... '시각적 사고'의 탄생 <언플래트닝, 생각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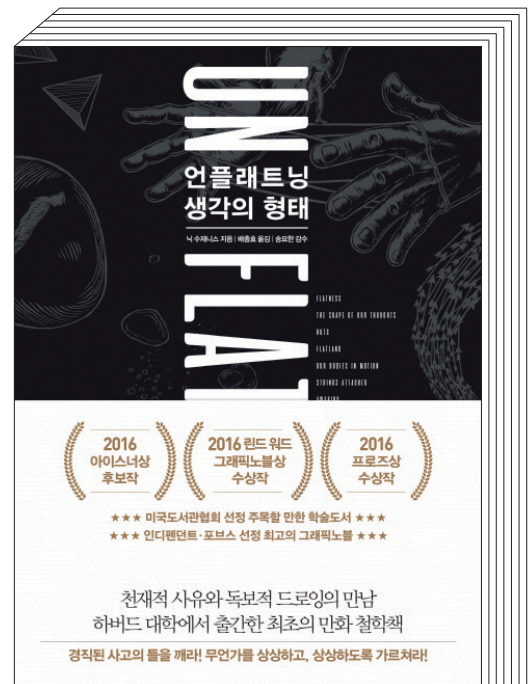
닉 수재니스 지음·배충호 옮김, 책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의 양식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일지 모른다. 오랫동안 언어(글)는 사유의 주요 수단으로 특권적 지위를 누려왔다. 이미지는 그 보조 수단에 머물렀다. "사유의 수단이 시야를 규정한다"는 전제에 따르면, 이것이 오해의 시작이다. 만화책 맞냐고? <언플래트닝>(Unflattening·평평하지 않게 하기)은 결코 만만한 만화가 아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나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등 참고 문헌만 250권이 넘는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출간한 첫 번째 만화책"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부제가 '생각의 형태'다. 익히 상식이라 믿어왔던 것을 주물러 울퉁불퉁하게 주물(鑄物)하려는 게 책의 목표다. 지난해 출간돼 올해 린드워드 그래픽 노블상, 프로즈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그 수준을 인정받았다.

책 <언플래트닝, 생각의 형태>와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오해와 불통... 만화가 나서다

※ 주의. 이 코너는 매번 글로 구성된 책을 소개하는 코너로 알려져 있다.
이건 소통에 다가서려는 불통의 글이다. 글만으론 언제나 부족하다.



이목구비 없이 잠든 채 동일한 보폭으로 걸어가는 인간 군상이 자주 등장하는데, SF영화 <스타트렉>과 스위스 조각가 알베르 토 자코메티의 청동상 등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것이다. 독일 철학자 마르쿠제가 경계한 이 '1차원적 인간'은 바로 "그냥 지금처럼 살지 뭐"라고 자위하는 누군가다. 초월을 잊고 제자리를 고수하게 하는 시야. 만화의 주요 모티프이자 주요 장면으로 등장하는 작품이 바로 영국 작가 에드윈 에벗의 SF소설 <플랫랜드>(1884)인데, 2차원에 사는 주인공 '정사각형'이 3차원에서 온 이방인 '구(球)'를 만나 다른 세계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얘기다.

저자 닉 수재니스(43·미국)를 최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 교육대학원 박사 논문을 만화로 그려 제출해 통과한 최초의 인간이다. 논문 제목이 '언플래트닝-다차원적 학습의 시각과 구두적 연구'였다. 그는 이를테면 '정사각형' 무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한 '구'다. 언어와 이미지가 이분법적 분류를 넘어 동시에 의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 표기법과 표상적 이미

지의 한계를 넘는 것. 통합하는 것. '그러니까 만화야말로 복잡다단한 인간을 표현할 미래의 매체다, 짜샤.' 그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어이, 그래봤자 넌 네 말만 할 거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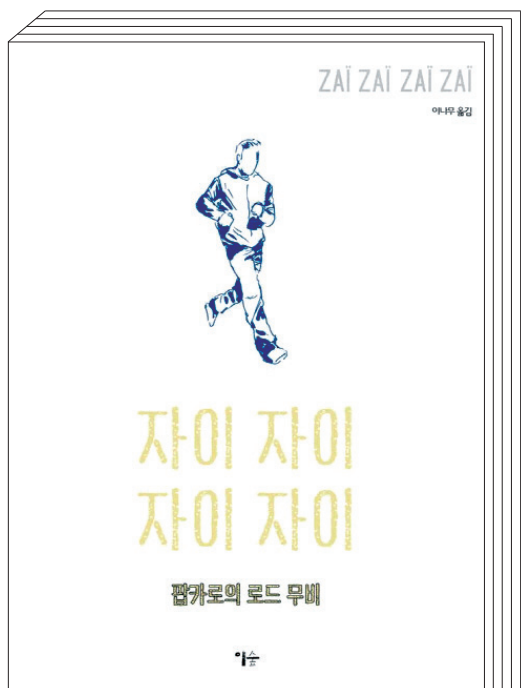
〈자이 자이 자이 자이〉, 팡카로 지음·이나무 옮김, 이숲

〈언플래트닝〉이 꽤 찬 만화라면, 〈자이 자이 자이 자이(Zai Zai Zai Zai)〉는 비워낸 만화다. 여기 등장하는 인간들은 서로 의사소통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그냥 자기가 내뱉고 싶은 말을 하고 행동할 뿐. 일단 줄거리부터 어이가 없다. 무명 만화가가 슈퍼마켓에서 회원카드 없이 물건을 구매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 용의자가 된다. 경찰이 출동하고, 취재진이 급파된다. 모든 목격자와 추격자, 도망자는 정상이 아니다. 이를테면 도망 중에 주인공은 고등학교 여자 동창 소피를 만나 그녀의 집에 초대받는다. 그녀는 남편을 소개한다. "남편은 열경화성 중합과 저온생물학적 환경에서의 등온선 결정화 작용으로 발생하는 고분자 결합의 발열성을 전공한 엔지니어야." 겸손한 남편은 더 쉬운 단어를 택해 다시 설명한다. "난 열경화성 중합과 항냉동적 환경에서의 등온선 결정화 작용으로 발생하는 고분자 결합의 발열성 전문가지." 겸손한 남편이 자랑스러운 소피는 그에게 키스하고, 둘은 주인공이 앞에 있건 말건 2페이지에 걸쳐 격렬한 섹스를 벌인다. 제목도 소통을 조롱한다. 저자에 따르면, '자이 자이 자이 자이'는 프랑스 가수 조 다생(Joe Dassin)의 댄스 음악 후렴구일 뿐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한다.

그림체는 대충 하는 말처럼 불완전하고, 때론 단색의 덩어리처럼 보인다. 인물의 이목구비와 표정은 희미하며, 컷에 담긴 동작은 극도로 경직돼 있다. 이 어색한 분위기는 만화와 독자 사이에서도 이어진다. 대충 후루룩 읽은 뒤엔 '이게 뭐 개수작인가?'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작가 팡카로(43·프랑스)의 전략은 69페이지의 이 짧은 만화를 여러 번 읽게 하는 것이다. 무의미에서 의미를 캐내는 방법은 그 밋밋한 표면을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뿐일지도. 30분을 투자해 두 번 정독한 결과 알아낸 사실이 있다. 숨겨진 71페이지가 있었다.

글
정상혁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사진 제공
책세상, 이숲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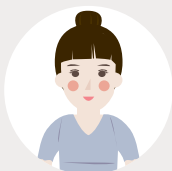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리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sfac.or.kr) - 열린광장 혹은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을 발송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예술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현재 대학교 4학년 2학기로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수업을 들으면서 예술강사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예술강사가 되어 문화예술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막막해서 글을 올립니다.



예술적 상담소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이면 진로 문제로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때이지요? 저 또한 그 시기에 많은 고민을 했지요. 그런데 저는 재미있게도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먼 사회생활을 경험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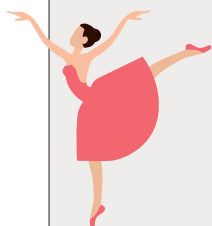
고 그리고 난 뒤에 현재의 Teaching Artist(TA, 이하 예술가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을 상담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저는 학부 졸업 후 2년 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로 예술교육에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방향하던 때에, 정말 우연히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가교사 모집 공고(현재는 1월에 공고가 난답니다)를 보게 되었어요. ‘내가 경험한 예술강사와 무엇이 다를까?’ 하는 호기심이 컸죠.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기에 지원서부터 내게 되었고 수업 모의 시연과 면접을 거쳐 합격하게 되었답니다(지금도 이 과정은 변함없이 진행



<http://bit.ly/ltAX44>



된답니다). 지원서를 쓸 때부터 수업을 계획하고 모의 시연할 부분은 지도안으로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죠. 수업 계획과 관련된 것은 학부에서 배운 교육적인 부분들과 경험 그리고 예술교육 자료(예술교육정보자료관 sfac.or.kr/html/education/information.asp를 방문해 보세요)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요즘은 워낙 인터넷 활용이 용이하고 정보가 넘쳐나기에 본인이 하고자 한다면 자료 수집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재단은 예술가교사, 교사, 직장인, 일반인 등 서울시민을 위한 국내외 워크숍을 항상 준비하고 있답니다. 먼저 그것들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를 통해서 재단의 예술교육 방향과 분위기를 미리 체험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안 될지도 몰라’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도전하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끊임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다 보면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 나만의 활동 계획이 서게 되니,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열린 마음이 주는 선물

여러 해 TA(예술가교사)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면 바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나’를 경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매 학기 무용, 연극, 시각, 음악, 문학 등 여러 예술 장르가 모인 통합예술수업을 개발하는 연구 시간을 가진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과정이 무척 힘들었어요. 무용만 열심히 해온 제가 다른 예술 장르를 전공한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않은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과정이 저를 성장시켰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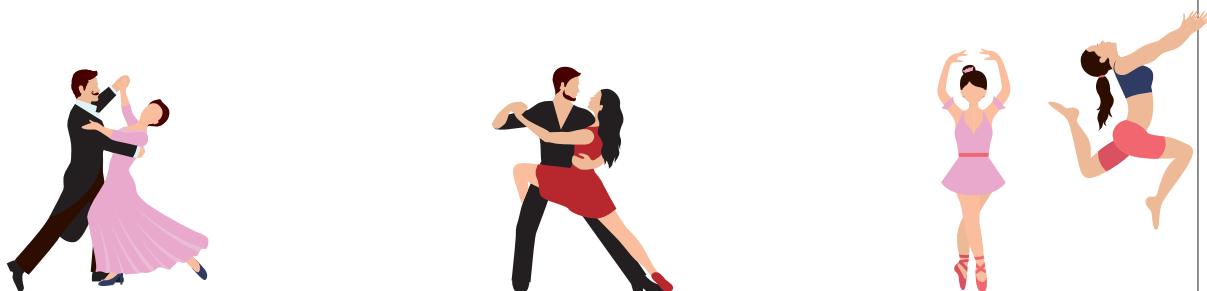
단지 제가 준비한 것은 ‘열린 마음!’ 대학생 때부터 다양한 사람과 함께해오고 있는 봉사활동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직접 행동해보는 과정이 저희의 연구 과정과 매우 닮아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타 예술 장르를 공부하고 시야를 넓히게 되었는데, 어느새 그게 제 것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배움과 나눔의 그 짜릿한 순간들을 꼭 경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반복된 후에는 성장한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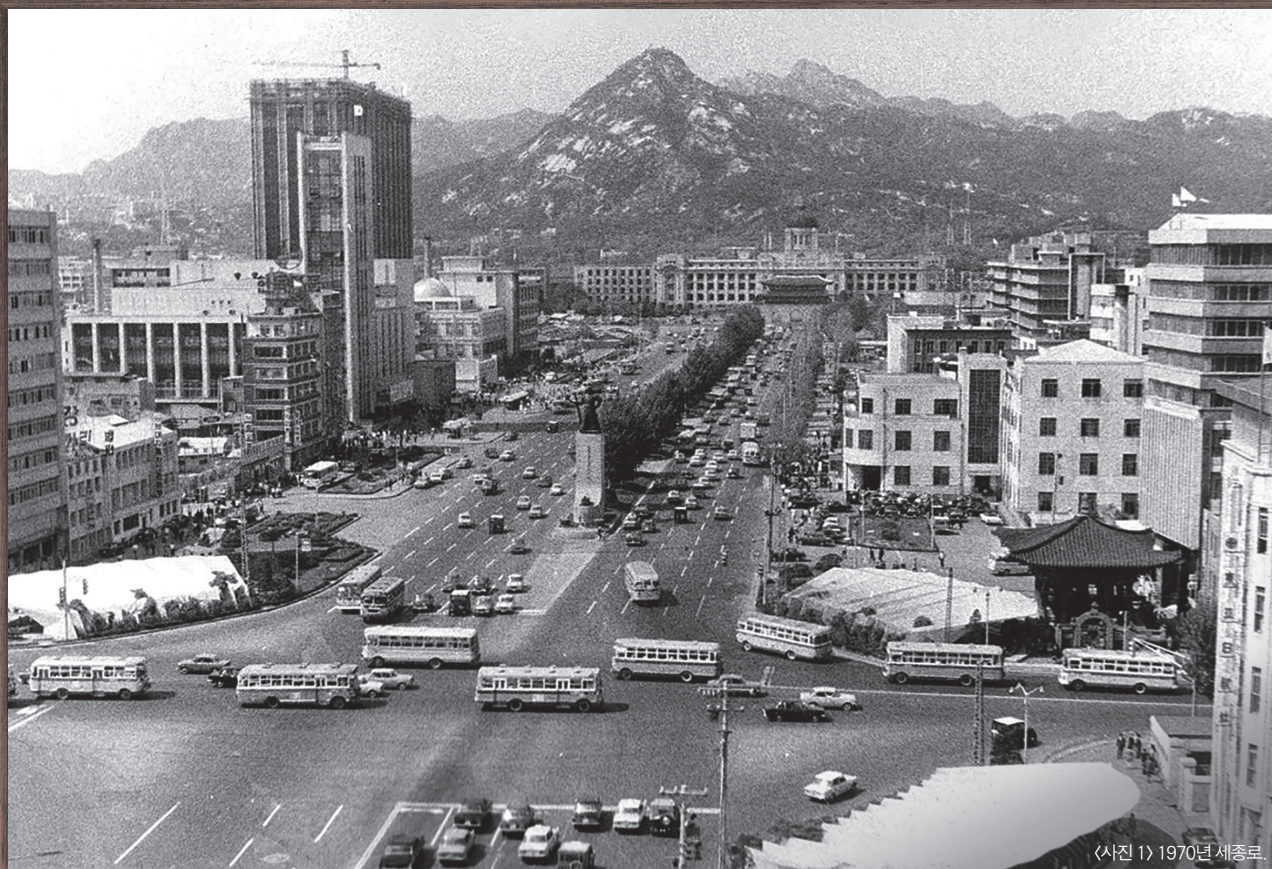
나는 예술이 되고 예술은 삶이 되고

고민 상담 글을 보내주신 분도 무용을 시작하신 지 아마 꽤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워낙 어릴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예술가로서의 전문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셔야 해요. 예술가교사, 예술강사가 된다고 예술가로서의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술가로서 더 깊고 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전문가적 영역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죠. ‘내가 가진 전문성’이 있어야 다른 영역과 만나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답니다. 특히 ‘움직임, 춤’은 언어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아주 멋지고 본능적인 것이기에 자신이 그 매력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삶이 예술 그 자체라고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주변에서 예술이 필요한 순간을 스스로 느껴본 적 있으세요? 바람이 지나가는 순간, 날씨를 느끼는 순간, 소리를 듣는 순간, 서로가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순간 등 우리 주변의 환경은 모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한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곧 예술이 우리 삶에 주는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그것들을 느끼게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순간으로 이끄는 게 예술가교사, 예술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과 이 선물 같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할게요. ⁵²⁷



답변
최아영
서울문화재단
무용분야 예술가교사
(TA 2010~2014,
PTA 2015~현재).
봉산탈춤 전수자



〈사진 1〉 1970년 세종로.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거리 세종로

600년 넘게 서울의 중심은 이곳

조선시대에는 현 서울 종로구 세종로를 '육조(六曹)거리' '육조 앞' 등으로 불렀습니다. 경복궁의 남쪽 정문인 광화문 앞 좌우에 의정부를 비롯한 주요 관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건설할 때 너비 58자 규모로 뚫은 대로로, 해태 석상이 있어 '해태 앞'이라는 명칭도 얻었습니다. 또 고종이 즉위 39년인 1902년 '청경기념비각'을 세운 후 '비각 앞'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비각 앞에는 서울시와 전국 각 도시 간의 거리를 표시하는 도로원표가 있어 지리적 중심지로서의 의미도 큼니다.

이 거리의 이름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나지막한 황토 언덕이 있던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 '황토현(黃土峴)'이라는 지명이 붙었고, 광화문에서 황토현까지의 대로 명칭은 1910년 한일강제 병합 때 '광화문통'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1946년 10월 1일 옛 중앙청 정문에서 황토현 사거리까지의 길이 500m 구간을 도로로 지정한 뒤 세종대왕의 묘호(廟號)를 써 세종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서울의 중심도로 세종로

세종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상징하는 중심 도로로, 일제강점기에 도로 너비가 53m로 축소되었다가 1952년 3월 25일 현재와 같이 넓어졌습니다. 왕복 16차선으로 뻗어 있던 이 도로는 2009년 중앙에 광화문광장이 들어서며 10차선



〈사진 2〉 완공 앞둔 정부종합청사

으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길이 0.6km, 너비 100m입니다. 역사 복원과 조망권 확보, 문화공간 창조를 위해 조성된 광화문광장은 너비 34m, 길이 557m 규모로, 2008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009년 8월 1일 일반에 개방했습니다.

세종로 가까이에는 광화문과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등이 자리하고, 도로 양옆으로 정부서울청사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부 주요 기관이 있습니다. 또 세종문화회관과 종로소방서, 종로구청 등 공공기관과 미국·오스트리아·네덜란드·핀란드 등의 대사관이 있으며 대형 건물도 즐비합니다.

〈사진 1〉은 1970년 세종로의 모습입니다. 광화문 뒤로 중앙청이 위치해 있고, 왼쪽으로 정부종합청사(현 정부서울청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청 건물은 1995년 8월 15일 해체, 철거됐습니다. 오른쪽 청경기념비가 뒤편에 전매청(현 교보생명 빌딩)이 있었고, 그 옆으로 서울중앙전신국이 보입니다.

당시에는 교통량이 지금처럼 많지 않아 거리가 한산합니다. 사거리에 시내버스들만 줄지어 달리고 있는데요. 도로 중앙에 가로수가 있고, 그 맨 앞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서인지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을 이끄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광화문광장이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해줬지만 도로는 답답했죠. 예전

모습에서 서울 중심 도로다운 위용이 느껴집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나입니다.

47년의 시간, 세 번 이름 바뀐 ‘정부종합청사’

정부종합청사는 1967년 착공해 1970년 완공됐습니다. 〈사진 2〉는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신축 당시 이곳에는 내무, 상공, 농림, 문교, 보사, 체신, 건설부와 과학기술처 등 8개 부처가 입주했습니다. 1996년까지 26년 동안 정부종합청사로 불려온 이곳은 1997년 정부대전청사가 완공된 후 정부세종청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82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된 경기 과천 정부제2청사도 이때부터 정부과천청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대전청사가 외청 중심으로 꾸려진 점을 감안해 1999년부터는 정부중앙청사로 또다시 명칭이 바뀌었고, 지난해 세종시에 정부세종청사가 완공된 후 올 1월 1일부터 정부서울청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광화문 앞으로 삼륜차와 교복 입은 학생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 없는 모습이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겹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사진
김현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청량리동 'coffee time'에서 보낸 시간

꿈을 간직한 이들의 호우시절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해 보낸 시간은 그리 깊이 남지 않는 듯하다.

아침에 습관적으로 마신 커피, 가벼운 농담을 나눈 동료나 친구,
고단함을 안고 탄 귀갓길 〇〇〇번 버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한때 보낸 일상이 소중하고 그림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요즘 최지훈 사진가에게는 청량리동에서 보낸 때가 그렇다.



나는 지금 외국에서 지내고 있다. 작은 수로와 골목들로 이뤄진 이 도시에 머물면서 이곳으로 여행 온 이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한다. 낯선 타국에서의 삶은 기대만큼 신나지도 생각만큼 고되지도 않다. 이색적이지만 하던 풍경이 제법 익숙해진 후로는 새벽 늦게 잠들어 때가 되면 밥을 챙기고 일정에 맞춰 사람들을 만나고 남는 시간에 무얼 하며 무료함을 달랠지 궁리하는, 서울에서 보낸 나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간으로 채워진다. 시간이 빌 때는 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을 찾아 들어가보는데, 운이 좋으면 싸고 분위기 좋은 카페나 바를 찾아내기도 한다. 바에서 커피를 내리고 말을 건네는 낯선 얼굴의 익숙한 몸짓을 지켜보고 있으면 어슴푸레 떠오르는 어떤 동네의 풍경,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분명해지는 기억들이 있다

대학 시절 내가 일했던 그 카페는 인적이 드문 길에 있었다.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인데도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대신 그 거리엔 나무가 많았다.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다웠지만 특히 가을이 되면 세상이 온통 노란 빛으로 물들었고, 잘 닦인 가로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휴일에만 문을 여는 작은 수목원도 만날 수 있었다. 서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하고 고즈넉한 풍경을 가진 동네였다. 고려대와 경희대 사이에 위치한 이 동네가 행정구역상 청량리동이라는 사실을 안 건 한참 뒤의 일이다. 'coffee time'은 청량리동 산책로의 길목에 있었고,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들른 것을 계기로 나는 휴학과 동시에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지금은 다소 시들해졌으나 그때는 카페라는 공간이 주는 문화적인 냄새에 한창 취해 있던 시기였다. 귀여웠던 허세가 일상 of 노고로 변해버리는 건 순식간이었는데 하루에 아홉 시간씩 주 6일을 내내 서서 일하는 건 생각 이상으로 고된 노동이었다. 지난한 시간을 견디게 해준 건 유리창 너머의 변함없이 평화로운 거리와 함께 일하던 다정한 사람들이었다. coffee time에는 저마다의 꿈을 간직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의 카페를 준비하던 두 아이의 아빠, 요리가 취미인 사법고시생, 서울대 출신

의 영화학도, 일본에서 온 유학생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와 가치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일하고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공간과 계절을 사이좋게 향유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점점 어렵게만 느껴지는 지금에 와서야 깨닫는다. 그때가 그저 '운이 좋았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호우시절이었음을. 아직도 또렷하다. 주스용 과일을 사러 청량리 시장까지 걸어갔던 길, 돌아오는 길에 곧잘 들르던 시장 냉면집, 식사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 산책하던 홍릉수목원과 미로 같기만 하던 부흥주택지구, 주방에 삼삼오오 모여 만들어 먹던 하루키 샌드위치와 비빔밥, 짧은 일본어와 영어를 총동원해 나쓰코 누나에게 설명해야 했던 어려운 한국말, 함박눈이 오던 퇴근길에 막차를 놓치고 언 손을 호호 불며 걸던 회기로, 청춘이 고달퍼 울부짖으며 땀방울로 건너가던 종암대교 위의 함박웃음까지. 우리는 고된 하루를 버티기 위해, 불안한 미래를 감추기 위해 열심히 동네를 활보했고 어느 사이엔가 자연스럽게 그 동네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우리의 추억이 자본에 더는 잠식당하지 않길

나는 이 도시로 오기 전에 잡지 <브로드컬리>의 사진작가로 참여했다. <브로드컬리>는 '좋은 가게는 오래가면 좋겠다'를 모토로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 로컬숍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계간 연구지다. 높은 원가와 임차료, 프랜차이즈의 물량 공세, 소비자의 무관심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힘겹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때마다 이 가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잘 버텨주기를 바라게 되었다.

이제 coffee time은 그곳에 없다. 단골이 꽤 많은 가게였지만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카페가 생겨나면서 벌써 몇 년 전에 오리백숙집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흘러가버린 시간의 틈 사이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물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어쩌면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남겨두는 게 자연스러운 테지만 역시나 아쉬운 마음을 숨기기 어렵다. 내 욕심이 지나친 것일지 모르나 자본의 논리에 따라 추억의 지분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심히 안타까울 뿐이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분명해지는 기억들이 있다. 그때 그곳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 심드렁하게 지나치고 마는 지금의 자리는 나중에 이곳을 떠난 후에야 분명해질 것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뻔한 말이나 지키기 참 어려운 오늘의 작은 바람이다.

글
최지훈
대학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하고 지금은 프리랜서 사진가로 일하고 있다.
잡지 <브로드컬리>에 참여했다.

그림
Meg

자취를 감췄던 '청춘 드라마'의 귀환

청춘, 그 빌어먹을 청춘의 드라마

21세기, 청춘이란 단어는 '푸른 봄'보다는 '멍든 봄'으로 읽힌다.

분명히 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많은 이들이 안은 기본값은 '꿈과 사랑'이 아닌 '낙오감과 빛'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유행하던 청춘 드라마가 오랫동안 자취를 감춘 이유다. 올해 오랜만에 등장한 두 편의 청춘 드라마가 눈에 띈다. <청춘시대>(JTBC)와 <혼술남녀>(tvN). 이들의 미덕은 이 시대 청춘의 누추한 현실과 고민을 섬세하게 다루면서도 가능한 판타지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장이 나대지 마! 푸를 청(靑)에 봄 춘(春)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니? '청춘(靑春) 드라마'는 20세기의 골동품이야. 풋풋한 젊은이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도전과 성장통의 이야기는 한때 우리 TV의 메이저 장르였다. 20대 초반의 짧은 순간에 예외적인 자유를 허락하며 그 시절에만 가능한 꿈과 사랑에 모두 눈을 맞추기도 했다. 그러나 혹독한 취업 전쟁 속에서 젊은 영혼들은 스스로를 포기의 세대, 잉여의 존재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를 틈타 30~40대가 추억의 학생복을 꺼내 입고 청춘의 라벨을 흠쳐가기도 했다.

선부는 기대인지 모른다. 그런데 요즘은 뭔가 눈에 띈다. 작지만 반짝이는 젊음의 이야기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얼떨결에 하우스메이트가 된 다섯 여대생이 등장하는 JTBC의 <청춘시대>와 노량진 학원가의 애환을 담은 tvN의 <혼술남녀>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 시대는 다시 청춘 드라마를 허락할 준비가 된 것일까?

자유·도전·낭만이 허락했던 20세기 청춘

청춘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젊다. 20세기 초반 계몽 잡지들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젊은 연배를 뜻하는 중립적인 말이었지만, 1920년대 근대문학에 의해 특별한 감각의 말로 변신하게 된다. 광복 이후에도 이런 의미는 이어졌고, 청춘은 인생에서 특별히 예외적인 시기이며 자유와 도전이 허락되는 때로 여겨졌다. 1970년대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가 등장하고, <바보들의 행진> <고래사냥> 등 대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인기를 모으며 청춘에는 황금의 테가 돌린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려 했고,

여타의 세대들도 청춘의 무모함에 예외적인 너그러움을 보이기도 했다.

1980~90년대의 실제 대학가에는 민주화의 열기가 거셌지만 TV 속에서는 아기자기한 청춘 드라마가 크게 유행했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 <우리들의 천국> 등 대학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최고의 인기를 모았고, 대학 동기인 신입사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질투>가 청춘 트렌디 드라마의 시대를 열었다. 여기에는 사실 일본에서 버블경제 시기에 낭만적으로 채색한 청춘물-영화, 만화, 드라마, 광고, 음악-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가 청춘 드라마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상적인 이미지는 이때의 것들이다.

구제금융 시기 이후 경제적 위기와 실업률의 증가는 청춘의 환상을 앗아갔다. 혹독한 취업 전쟁, 학자금 대출 부담, 저임금 알바, 비정규직의 불안함 등이 '20대 초반의 예외적 몇 년'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유의 통과외레론도 힘을 잃었고, 포기가 당연해진 세대는 청춘의 활력을 잃어갔다.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등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의외의 성공을 거두기는 했다. 그러나 이들 복고풍의 드라마는 기성세대의 환상 속에 존재하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 시절의 청춘을 그리고 있을 뿐이다. 최지우가 주연을 맡은 <두 번째 스무살>은 40대 전후의 남녀가 대학가를 배경으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캠퍼스 청춘 드라마의 주인공 자리까지 20대로부터 빼앗기도 했다.

당대의 진짜 청춘들은 스스로를 잉여라고 부르게 되었다. 주인공의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자조의 선언이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들의 진실된 내면을 담은 이야기를 만나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청춘시대>와 <혼술남녀>라는 청춘의 이야기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이 작은 놀라움이 되고 있다.

2016년, 누추한 현실을 안고 돌아온 청춘 드라마

<청춘시대>는 <응답하라 1994>의 하숙집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셰어하우스에 모여 사는 다섯 하메(하우스메이트)들의 이야기다. 어느 정도의 판타지 필터가 들어가 있지만, 나름대로 개성과 현실성을 갖춘 다섯 여대생이 주인공이다. "애인 하나 만들어." 미모를 적당히 팔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사는 강이나(류화영), 그와 대조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며 칙칙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윤진명(한예리)을 중심으로 주요 등장인물 각각의 고민이 펼쳐진다. 처음에는 서로 거리를 느끼고 각자 외롭게 문제 속을 헤매던 친구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혼술남녀

무척이나 애뜻하다. 그리고 때론 너무 현실적인 말이 마음을 저리게 한다. "그냥 별일 없이 만나서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한편에서는 힘든 나날을 이겨가게 하는 연애의 상대조차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 변해버리기도 한다.

"노랑진까지 왔으면 공부나 하시지." <혼술남녀>는 제목을 <노랑진 남녀>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처음에는 퇴근 후 우아하게 와인을 홀짝이는 혼술족의 이야기를 그릴 것 같았지만, 속을 열어보니 노랑진 학원가의 생활을 제법 꼼꼼히 그리고 있다. 그래서 주연인 두 강사의 코믹한 사랑보다는 기범(Key), 채연(정채연), 공명(공명), 동영(김동영) 등 공무원 수험생들의 '웃픈' 현실이 더 가슴에 와 닿는다. "어떻게 방 안에 돈 주고 산 물건이 없냐?" 공부에 매달리느라 애인도 없고, 라면 한 봉지에 티격태격한다. 그러다 한 친구가 바다로 간다.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가 아니다. "합격해서 꼭 갚고 싶었는데 이렇게 빚만 지고 떠나네. 다음 생엔 부자로 태어나서 멋지게 술 한잔 살게." 세상 하직하러 바다에 간 친구는 뒤따라 온 친구들이 사준 민어회를 먹고 재빨리 삶으로 복귀한다. 무모한 배짱조차 사치스러운 젊음이다.

그들은 "희망, 그 빌어먹을 놈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손잡고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각자도생의 하루하루가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봄이 오기 직전의 그 시간이 가장 춥다. 오기로 한 때에 봄이 오지 않으면, 더욱 견디기 어렵다. 영원히 오지 않을까 두려워진다. 하지만 <청춘시대>와 <혼술남녀>의 주인공들 속에는 반짝거리는 그 조각들이 분명히 있다. 청춘, 그 빌어도 빌어도 되돌릴 수 없는 청춘이.



글
이명석
문화비평가 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여행의 즐거움과
인문학적 호기심을
결합한 <여행자의
로망백서> <지도는
자구보다 크다>
<도시수집가>
<모든 요일의 카페>
등의 저서가 있고,
KBS 라디오
<신성원의 문화공간>,
SBS 라디오
<책하고 놀자>에
고정 출연 중이다.

사진 제공
JTBC, CJ E&M

독일의 음악과 음악관을 적극 수용한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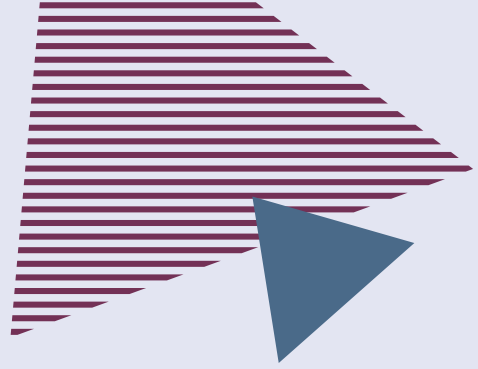
베토벤 심포니 9번과 ‘다이쿠(第九)’

일본은 유럽에서 태동한 고전음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교육·연주·감상하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다이쿠’는 베토벤 심포니 9번을 지칭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타국의 문화를 현지화하는 일본인의 특성과 독일어권 음악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단어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역사 및 세계사의 맥락이 존재한다.



2014년 <1만인의 다이쿠>에 참여한 한국의 바리톤 한규원.



매년 12월 ‘오사카성 홀’에서 연주되는 <베토벤 심포니 9번>

해마다 11월에 접어들면 일본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베토벤(Ludwig von Beethoven, 1770~1827)의 심포니 9번 공연을 준비하는 마무리 연습이 한창이다. 일명 <합창(the Choral)>이라는 부제로 유명한 이 곡은, 심포니로는 드물게 후반부에 장대한 합창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 이 심포니 9번의 4악장 <합창>을 독일어 가사 그대로 배우고 부르기 위해, 참가자들은 신청 절차를 거쳐 이르게는 8월부터 전문가의 지도 아래 총 12차례의 연습에 돌입한다. 전국의 참여 인원을 합하면 무려 1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준비하는 공연은 1983년 시작된 이래 매년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1만인의 다이쿠(1万人の第九)>라는 대규모 음악회다. 이 음악회는 애초에 ‘오사카성 홀’ 완공을 기념해, 오사카에 본사를 둔 음료 제조 대기업 협찬으로 기획된 이벤트였다. 오사카성 홀은 158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 시대에 건축됐다고 전해지는 오사카성(大坂城) 건립 400주년에 맞춰 개장된 대형 돔 공연장이다. 이렇게 일본 제2의 도시에서 맞이하는 역사적 순간을 위해 선택된 주인공은, 그 어떤 일본인도 아닌 독일인 음악가 베토벤이었다.

공연의 명칭처럼 일본에서는 베토벤 심포니 9번을 간단히 ‘제9(第九・だいく)’라는 약칭으로 표기한다. 우리에게만 ‘다이쿠’라는 낯선 발음이지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도 누구나 알아듣는 고유명사에 해당한다. 몇 해 전 일본의 한 음악 월간지는 ‘일본인과 다이쿠’라는 주제로 약 스무 페이지에 걸친 기획 기사를 게재한 연말 특집호를 내놓기도 했다. 이 기사는 ‘지난 반세기 이상 연말마다 일본에서 베토벤의 9번 심포니가 집중적으로 연주되어온 특수한 현상’을 다루며, 본고장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오히려 이 작품이 자주 연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베토벤 심포니 9번이 고유명사 ‘다이쿠’가 되기까지

일본이 서양음악을 수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심포니’는 독일의 음악을 규정하는 중요한 키워드였다. 일찍이 18세기에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의 이른바 ‘빈 악파’를 기점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은 기악음악의 본거지로 단단한 위상을 확립했다. 헤겔을 비롯한 독일 관념론 사상가들이 ‘새로운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음악’을 제시한 데 더해, 독일의 심포니는 근대 유럽을 상징하는 최고의 예술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이 주도하던 19세기 음악사 흐름의 한가운데, 멀리 동아시아의 일본에서는 정부 주도의 서양음악전문 교육기관인 도쿄음악학교가 개교했다. 1888년 학교 설립 이후 초기 30여 년간 재직했던 외국인 교사 열 명 중에서, 프랑스인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독일계 또는 독일 출신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1913년부터 약 8년간 재직한 구스타프 크론(Gustav Kron, 1874~?)은 교내 음악회에서 베토벤의 심포니 아홉 곡 중 여섯 곡의 일본 초연을 지도한 인물로 알려진다. 크론의 재직을 계기로 도쿄음악학교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베토벤 연주의 거점으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일본 내부의 민족주의가 고조되던 시기에도, 초·중등학교에서는 일본 전통 민요를 제치고 서양의 클래식음악이 우선시되었다. 음악학자 니시지마 치히로(西島千尋, 1981~)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국정교과서에 연계된 감상용 교재 70여 곡 중 일본 음악 11곡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독일어권 고전음악이었다. 당시 정부는 ‘바흐에서 베토벤까지의 독일 고전에는 일본인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0년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3국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나치 집권 아래 뿌리 깊은 게르만의 음악 전통과 명성 있는 오케스트라를 과시하던 당시 독일의 음악관은 동맹국 일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940년 12월 31일 밤에는 도쿄에서 베토벤 심포니 9번이 연주되었고, 1942년 내각정보부 소속 기관으로 결성된 일본교향악단은 전시 체제 국가의 통제와 관리 아래 모두 267회에 걸쳐 정기 공연을 개최했다. 1945년 6월, 전쟁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267회 무대에서 이들이 연주한 곡목 역시 베토벤 9번 심포니였다.



〈1만인의 다이쿠〉의 지휘를 맡은 일본의 지휘자 유타카 사토.

우리에게 ‘베토벤’ 또는 ‘고전음악’은 어떤 의미일까

올해로 34년째 이어지는 〈1만인의 다이쿠〉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본 근대사 특유의 서양음악 인식, 그리고 베토벤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의 ‘다이쿠’와 ‘베토벤’ ‘서양음악’에 관한 논의는, 서양 문화를 학습하는 한편으로 상대의 문화를 자기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다이쿠’는 이미 베토벤의 ‘심포니 9번’과는 별개로, 독일 음악의 범주를 넘어서 일본의 독자적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다이쿠’의 사례처럼 음악은 원작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젠가 새롭게 해석되고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연말 크고 작은 무대에서 베토벤 심포니 9번이 연주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주요 지역 시립교향악단 등 곳곳에서 연말을 노래할 ‘합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연주가 거듭될수록 기존의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감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음악사를 엮어가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독일과 일본의 역사 속 베토벤을 집요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도, 독일이나 일본의 역사 학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우리 근현대사 안에서의 베토벤과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물음표를 던지기 위해서일 것이다.

글
장윤선
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악사를 전공하고
‘근대 일본의 서양음악
수용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라디오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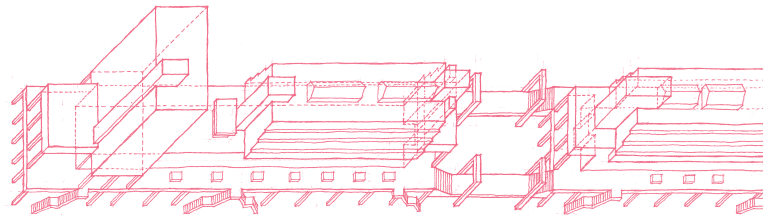


세운상가의 내부.

다시 돌아온 유토피아 '세운상가'

도시의 이상(理想) 그리고 상상(想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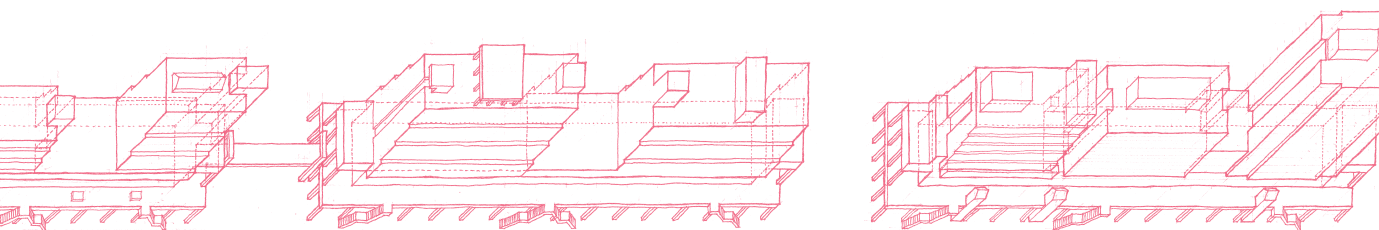
세운상가가 다시 이어진다.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끊어졌던 종로세운상가와 청계·대림상가의 공중가로(공중보행데크)가 다시 이어진다. 학창 시절 내게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준 그 공중가로는 다시 이어진다.



세운상가는 나만의 공간이었다.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내려 계단을 타고 올라와 공중가로 위에 서면 자동차 소리와 지저분한 풍경도 모두 사라지고, 북쪽으로는 종묘를 거쳐 푸른 북악산이, 서쪽으로는 빌딩 사이로 검은색 삼일빌딩이, 남쪽으로 남산타워(N서울타워)가 오롯이 남산 위에 서 있고, 동쪽으로는 성곽과 함께 낙산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온전히 나만의 서울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종로세운상가와 청계·대림상가 사이의 공중가로를 건너며, 위쪽 청계고가도로의 구조물을 통해 전달되는 수많은 차량의 진동과, 아래쪽 복개된 청계천로의 차량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세계, 나만의 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한쪽 공중가로를 타고 세운상가와 청계·대림상가로, 다시 반대쪽 공중가로를 타고 청계·대림상가에서 세운상가로 육상트랙을 돌듯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내 안에 억눌렸던 욕망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다. 세운상가는 내 사춘기 시절,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세운상가를 부수고 지워버리겠다고 했다.

세월과 이해관계에 의해 좌절된 이상(理想)

세운상가의 시작 역시 도시를 지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태평양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일본은 대규모 화재를 유발하는 소이탄(燒夷彈) 공격을 대비해 종로에서 남산 기슭까지 멀찍한 마을을 철거하고 길이 1km 폭 50m의 소개공지(疏開空地)를 만들었다. 그렇게 비어 있던 땅에는 6·25전쟁 후에 집을 잃은 이재민과 월남한 이주민이 판잣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고, 어느새 몸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종삼(鐘三)'이라 불리는 대규모의 사창가가 만들어졌다. 1966년 4월 서울시장으로 부임한 '불도저' 김현옥 시장은 도심 한복판에 판잣집과 사창가가 있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전격적으로 이 일대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



사장이던 건축가 김수근은 이렇게 종로3가에서 퇴계로3가까지 무려 1km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김수근이 계획했던 세운상가는 단지 긴 건물이 아니라, 건물마다 파출소, 소방서와 공중정원 등 공공시설이 있고, 보행자만을 위한 공중가로로 연결된 이상적인 입체 도시였다. 프랑스 근대 건축가 르 코르뷔제(Le Corbusier, 1887~1965)가 설계한 단위 주거 아파트(불어로 '위니테다비타시옹 Unite d'Habitation')와 르 코르뷔제를 흠모한 일본 건축가 겐조 단게(Kenzo Tange·丹下健三, 1913~2005)의 동경만(東京灣) 프로젝트의 입체적인 공중가로를 연상시키는 세운상가에서, 김수근은 역동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유토피아를 꿈꿨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운상가는 건축가 김수근의 의도대로 지어지지 않았다. 건물의 위압감을 줄이기 위해 유리로 계획되었던 외벽은 콘크리트 덩어리 그대로 노출되었고, 공중가로는 을지로 위에서는 하나로 줄어들고 마른내길 위에는 아예 지어지지 않았다. 공중가로를 지지하는 V자형 열주들이 만들어냈을 리드미컬한 공간은 지루한 수직 기둥들로 대체되었고, 여유로운 공공 공간을 만들기 위해 뺀 공간은 모두 채워지고 상가로 분양되었다. 분양 초기 인기도 잠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강남 개발로 서서히 외면당하고, 그 빈자리는 은밀한 욕망의 공간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특히 1987년 조성된 웅산전자상가는 그나마 세운상가를 유지하고 있던 전자상가에는 치명적이었다. 세운상가는 당연히 철거해야 하는 홍물처럼 취급되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세운상가를 철거하겠다고 하고, 건축학도들은 그 위에 온갖 이상향을 그려보았다.

다시, 이곳은 유토피아(Utopia)

하지만 세운상가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 끈질긴 생존의 끝에 드디어 빛을 보려 한다. 예술가들이 몰리고, 협동조합이 생기고, 시

장이 살리겠다고 한다. 사람들은 왜 세운상가를 다시 찾을까? 그 답은 세운상가가 어디에도 있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있지 않은 장소'는 바로 '유토피아'다. 유토피아(Utopia)는 원래 그리스어 οὐ(not)와 τόπος(place)가 합해 만들어진 라틴어로, 그 의미를 직역하면 존재하지 않는 장소 'no-place'이다. 즉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향하는 어떤 곳인 것이다. 세운상가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이상향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 그랬다면 이곳 역시 수많은 건물처럼 유행에 따라 철거되고 또 다른 건물에 의해 대체되었을지 모른다.

한동안 세운상가는 영화감독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었다. 2010년 개봉한 영화 <초능력자>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초능력을 가진 초인(강동원)이 초능력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인 규남(고수)을 위협하기 위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비처럼 떨어뜨리던 음침한 실내 중정이 있는 곳이 바로 세운·현대상가 아파트 내부였고, 2012년 개봉한 영화 <도둑들>에서, 마카오박(김윤석)이 영화 끝부분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홍콩 암흑가 보스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고 복도 가운데 중정에 뛰어내려 빠져나오는데, 바로 청계·대림상가 아파트 내부다. 마카오박이 줄 하나에 매달려 총격전을 펼치던, 총천연색 차양이 붙어 있던 부산의 이국적인 아파트는 사실 총무로 진양상가 아파트 외벽이다. 그렇게 세운상가는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곳 이기에, 영화라는 상상의 세계를 펼치기에 좋은 곳이었다. 이제 이곳은 모든 이에게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단지 희망하는 것은 역지로 답을 주려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게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아무 곳에도 없는 곳, 모든 산업권과 편견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금 이어진 그 공중가로에서 자유롭게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한지}

글·사진·스케치
조한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이며
한디자인(HAHN
Design) 대표로
건축·철학·영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간·공간'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서울, 공간의
기억·기억의 공간:
건축가 조한의
서울탐구>(둘레개,
2013)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해를 작

등장인물 남자(25세)

여자(35세) 남자의 10년 후

무대 원형 탁자 하나를 가운데 두고 의자 두 개가 마주하고 있다. 시계가 의자 뒤쪽으로 각각 하나씩 걸려 있다. 이 시계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리키고 있다.

막이 오른다. 두 명의 등장인물은 모두 같은 모양의 코트를 입고 있다. 남자가 왼쪽, 여자가 오른쪽 의자에 앉아 있다.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뒤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곤 이내 서로를 바라본다. 원형 탁자 위에는 푸른색 물약이 담긴 병, 두 개가 놓여 있다.

남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자 나는 먹을 거야.

남자 그러면?

여자 그러면 모든 게 끝나, 마침내.

남자 그걸 왜 하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자 우리니까, 그리고... 너도 먹었으면 해.

남자 너는 정말 이기적이다.

여자 어떤 면이?

남자 나도 네가 될 기회가 필요해.

여자 내가 그걸 기회라고 했구나.

남자 기억은 하는구나.

여자 그럼... 어쩌면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남자 무슨 말이야?

여자 가장 아름다울 때, 너로서 기억되고 싶을 뿐이야.

남자 나는 아름답지 않아, 그러기를 꿈꾸고 있을 뿐이지.

여자, 코트 안 쪽 가슴팍에서 메스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 놓는다.

여자 자, 이걸 봐.

남자 나는 나약하지 않아.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

여자 거 봐, 자만하고 있잖아.

남자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지.

여자 이건 의사 손에 들려 있던 게 아니야.

남자
 여자 너를 사랑하던,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 중 하나. 그의 손에 들려 있었지.

남자 누군지 말해줄 수는 없어?

남자 누군지 말해줄 수는 없어?

여자 딱 집어서 말할 수 있을까? (사이) 무섭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다 이내 고개를 젓는다.

남자 불을 켜고 거울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참을 수 있을 거야.

여자 미안해.

남자 왜?

여자, 코트 안 쪽 가슴팍에서 깨진 손거울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남자 왜.

여자 볼 수 없어.

남자 (코트 안쪽에 손을 넣으며) 나한테도 있어, 내 거울을 줄게.

여자 꺼내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그 거울도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깨지고 말 거야.

남자 해보거나 해.

여자 아니! 네가 내가 된다고 해서 결코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건 아니야.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남자 (코트 안쪽에서 손을 빼고) 그게 왜 다르다는 거야!

여자 힘들지?

남자 그래, 네가 나를 힘들게 해.

여자 지금은 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네가 나를 힘들게 할 거야. 이 칼을 쥔 사람도 마주할 거고... 보기만 해도 깨져버리는 거울도 마주하겠지.

남자 치사하다, 넌.

여자 뭘?

남자 아무리 나지만 네가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나도 분명히 알고 있어.

여자 …….

남자 보여줘.

여자 실망할 거야.

남자 그건 내가 판단할게.

여자, 코트 바깥쪽 주머니에서 축 늘어진 꽃 한 송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여자 내가 된 그날, 길에서 꺾었어.

남자, 꽃을 들어 향을 맡는다.

남자 거 봐. 있잖아.

여자 하지만 향기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

남자 너한테 열어진 향기지만, 나는 처음 맡아보는걸. 굉장해.

사이.

여자 먹지 않을 거구나.

남자 꽃 한 송이면 충분한걸… 슬퍼?

여자 슬프다기보단… 아쉽네.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

남자 하지만… 너는 먹을 거지.

여자 그래.

남자 우린 서로를 막을 수 없을 거야.

여자 그래.

사이.

여자 그런데도… 괜찮아?

남자 슬프네. 하지만….

여자 하지만?

여자 하지만 나는 네가 되어야 해.

여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도 그녀에게 응답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여자, 탁자 위에 놓인 물약 하나를 가져간다.

여자 (잠시 물약을 바라보곤) 먹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

남자 소용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될 거야.

여자 그래서 하는 말이야.

남자 해 봐.

여자 … 무서울 거야. 힘을 내.

남자 어… 고마워.

여자, 물약을 들이킨다. 빈 병을 탁자 한쪽에 올려놓는 그녀.

남자 (다급하게) 남은 약 하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여자 네가 갖고 있다가… 비로소 내가 되었을 때… 그때, 너도 선택해.

남자 기회를 주는구나.

여자 응. 너는 분명 이 약을 들이켜겠지… 우리니까. 하지만….

남자 하지만?

여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기를 빌게.

남자 잊지 않을게.

여자 잊지 않을게.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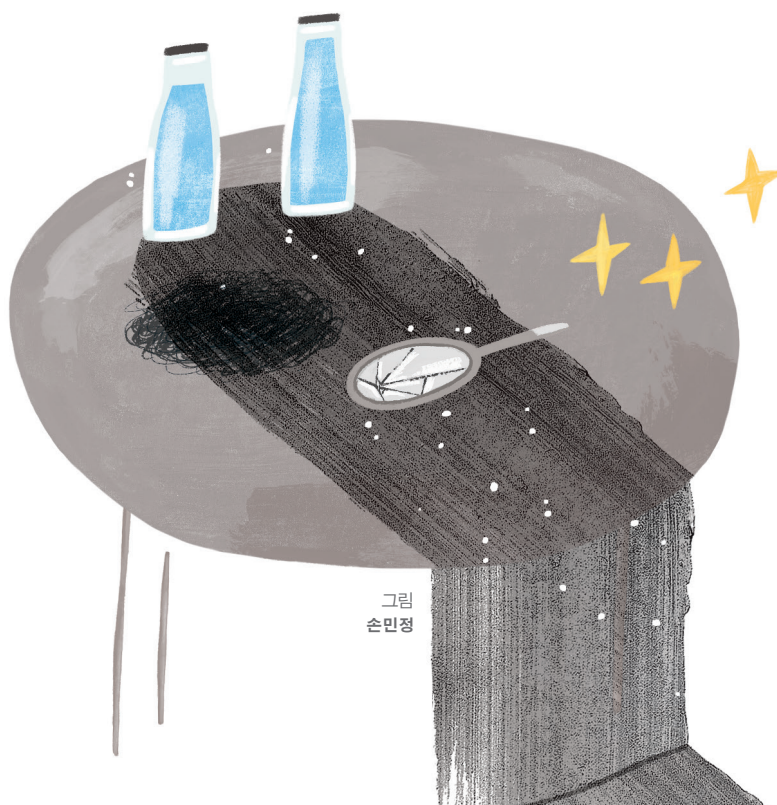


그림
손민정

<10분 희곡 릴레이>는 젊은 작가 혹은 지망생들의 재기발랄한 10분 단막극입니다.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사에 가시면 더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webzine.e-stc.or.kr)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프랑스의 가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국내 거리예술 및 서커스의 발전과 예술가들의 역량 강화,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국제교류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서커스, 거리무용 등의 공연과 구조물, 영상, 거리예술 이동형 전시 등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1월 4일(금) 오후 5시~10시
11월 5일(토) 오후 4시~9시 30분
장소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광나루역 위커힐 서틀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서틀버스 운영, 주차장 이용 불가
관람료 무료 *사전 신청
문의 ssacc.or.kr 02-3437-0082

- 시민청·시청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래예술공장
- 서울예술치유허브
- 금천예술공장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신당창작아카데미
- 남산예술센터
- 창작지원팀 제휴협력실
- 문화지원기증센터
- 공공예술센터 축제팀
- 문화나눔팀
- 예술교육팀
-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 정책연구팀
- 기타 문화행사 추천

www.sfac.or.kr

MON

- 7
- WOMEN IN MUSIC. 08
 - 오라토리오 갈라 콘서트
 - 여음목관5중주 제27회 정기연주회

- 14
- 바리톤 김동섭 독창회
 - 트리오 아미스 콘서트

- 21
- 가이아 코르셋 콘서트
 - 예술의전당 〈대학오케스트라축제〉(~11.27)

- 28
- 크로스오버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로맨틱 박안 콘서트

TUE

- 1
- 남산예술센터 〈나는야연기왕〉(~11.6)
 - '99℃' 선정작가 쇼케이스 전시(~11.11)
 - 전시 〈7천만의 한국인들〉(~2017.2)
 - 활력콘서트, 군기유적전시
 - 전시 〈ART Beyond ART〉(~12.31)
 -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12.31)
 - 2016 서울프라이드페스티벌(~11.13)
 - 연극 〈THE POWER 더 파워〉(~11.13)

- 8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11.13)
 - 연극 〈성수동 신데렐라〉(~11.26)
 - 연극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11.27)
 - 한국을 빛낸 위대한 성악가들
 - 청춘무대열전-내일을 사는 법(~11.13)
 - 연극 〈언어를 사랑하다〉(~11.30)

- 15
- 10분극필리페페스티벌2016(~11.20)
 - 오페라 마티네 〈로미오와 줄리엣〉
 - 창무회 40주년 〈창무큰출판〉

- 22
- 서울-북경 문화교류 프로젝트 공동전시회 〈꽃, 함축의 시간〉(~12.2)
 - 중로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제〉(~12.6)
 - 마티아스 피르네 & 윌리엄 켄트리지의 〈겨울나그네〉
 - 2016부암아트초청 〈제6회 명인명창전〉(~12.15)

- 29
- 롯데콘서트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의 밤〉

WED

- 2
-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정명훈
 - 연극 〈덕혜옹주〉(~11.13)

- 9
- 2016 잠실창작스튜디오 〈8기 오픈스튜디오〉(~11.10)
 - 전시 〈공작소〉(~11.20)
 - 제6회 국제2인무페스티벌-서울(~12.4)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제4회 한국여성극작가전(~12.4)
 - 금난새의 Classic Fantasia 〈슈베르트〉
 - 미래의 명곡-가야금양상블 사계
 - 오페라 〈복사골 러브스토리〉(~11.10)

- 16
- 남산예술센터 〈파란나라〉(~11.27)
 - 남산골한옥마을 〈눈먼사람 심학규이야기〉(~11.20)
 - 국립오페라단 〈로엔그린〉(~11.20)
 - 파리 오케스트라
 - 연극 〈북새통의 겨울이야기〉(~12.4)
 - 연극 〈변태〉(~12.31)

- 23
- 강은영 피아노 독주회
 - 뮤지컬 〈반드시오고야말행복〉(~12.10)

- 30
- 피아니스트 박중훈과의 화려한 데이트 Vol.3



THU	FRI	SAT	SUN
3 ● 문래오피포럼 <문래동,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 시민청 전시 <안녕하세요, 서울씨!> (~11.27) ● 제37회 서울무용제(~11.26) ● 국립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11.6) ● 연극 <너를 향해 활짝>(~11.13) ● 2016 중국현대희곡전 <승관도>(~11.5)	4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프랑스의 가을>(~11.5) ● 2016 성수예술마을만들기축제(~11.6) ● 발레 <크레이지 햄릿>(~11.6) ● 뮤지컬 <천변카바레>(~11.27) ●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제88회 정기연주회 ● 오페라 <스타구출작전>(~11.5) ● 무용 <AURA>(~11.5) ● 연극 <유츄프라카치야>(~11.20)	5 ● 제16회 2인국페스티벌(~12.4) ● 연극 <비극의 일인자>(~11.20) ● 앙상블 마티네III ● 스트라다음악라이브 -이정란 & Avirm Reichert	6 ● 프린팅 페스티벌(~11.30) ● 바리톤 정재원 독창회 ● 소프라노 여지영 귀국독창회 ● 김준희 피아노 독주회 ● 이호진 피아노 독주회
10 ● 국립국악원 <현의 노래>(~11.20) ● 부암아트홀 <쇼코 히카게 고토 독주회> ● 클라라주미강&손열음 듀오콘서트 ● 연극 <페리클레스>(~12.4)	11 ● <젊은 공연예술가 작품 비평>(~11.12) ●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11.20) ● 필립드쿠플레 <콘택트>(~11.13) ●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11.13) ● 연극 <비 BEA>(~11.30) ● 창작오페라 <가리베가스>(~11.13)	12 ● 시민청 <한마음살림장>(~11.13) ● 2016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 세컨드네이처댄스컴퍼니 <눈먼자들>(~11.13) ● 한일공동뮤지컬 <A Common Beat>(~11.13)	13 ● 6기 시민청예술가 공개오디션(~11.27) ● 뮤지컬 <구텐버그>(~17.1.22) ● 브레게-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수상자 콘서트 ● 클래식악기 체험공연 <악기아 놀자> ● 2016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7 ● 극단 작은방 <빨강의 보색은 녹색>(~11.27) ● 노르웨이 영 스트림스 내한공연 ● 존 액셀로드의 알프스 교향곡 ● 헤화마티네with장일범 <4인4색-하임과르벳> ● 미래의 명곡-Alternavive Sound Theater(~11.19) ● 2016 ST-BOMB(서울연극축탄)(~11.25)	18 ● 우구르 워크숍 <Free Flow: 신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12.4) ● 미디어아트 공연 <갈라테아>(~11.20) ● 국립무용단 <Soul, 해바라기>(~11.20) ● 국립국악관현악단 <아빠사우루스>(~11.30) ● 파사무용단 <버려야 할 것들...>(~11.19) ● 연극 <타조소년들>(~12.4)	19 ● 제8회 연리미티드 에디션(~11.27) ●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11.20) ● KBS교향악단 제712회 정기연주회	20 ●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창작의 세계> ● 테슬라 카르넬 초창연주회 ● 마리아칼라스홀 <국악그림 대한사람 콘서트>
24 ● 서울시오페라단 <맥베드>(~11.27) ● 맨스컬 <마리아>(~11.26) ● LG아트홀 <피에르 로랑 에마르> ● 금호아트홀 <인터내셔널 마스터즈 시리즈> ● 올림푸스홀 <Music & Electronics>	25 ● 고지혜 & Kay Patru <유동모자이크> 쇼케이스(~11.26) ● 제4회 시민청영화제(~11.27) ● 시민청 <토요일은 청이좋아> '시민시네마토크콘서트'(~11.27) ●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마스터피스> ● 연극 <고모를 찾습니다>(~12.11)	26 ● 시민청 <한마음살림장>(~11.27) ● 롯데콘서트홀 <데이비드 브릭스 무성영화 클래식> ●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11.27) ●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11.30)	27 ●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피아노 리사이틀

01

TUE



남산예술센터 <나는야 연기왕>

연극계에서 적지 않은 화제작과 문제작을 만들어온 그린피그의 배우들이 '연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섰다. 배우들은 오디션이 요구하는 연기에 도전하며 진정한 연기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나선다.

일시 10월 26일(수)~11월 6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정가 3만 원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미디어아트 <ART Beyond ART>

시민청의 힐링 공간인 소리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다. 영화와 최첨단의 영상기술이 결합돼 만들어지는 융복합 장르가 감동을 전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컨버전스 아트(Convergence Art)로 만날 수 있다. 컨버전스 아트란 기존의 평면 그림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것을 말한다.

일시 ~12월 31일(토)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소리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유망예술지원사업 99°C 선정작가 쇼케이스 전시

예술가로서 첫 발걸음을 응원하는 2016 유망예술지원사업(시각분야) 99°C에 선정된 작가 6인을 소개하는 단체 쇼케이스 전시다. 5기 선정작가 김문정, 김희영, 박경중, 안유리, 임소담, 최민경이 지난 7개월 동안 발전시켜온 회화,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의 작업 결과물을 선보인다.

일시 ~11월 11일(금) 오전 11시~오후 8시 *월요일 휴관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

시민의 일상에서 사용되던 물건이 모여 서울의 작은 박물관이 만들어집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한 생활유산을 기록하고자 하는 이번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 30일(금)
참여방법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클릭 후 '캠페인 참여 페이지' 카테고리 등록
문의 fb.com/museumseoul 02-3290-7192

전시 <7천만의 한국인들>

시민청과 성균관대학교 트랜스미디어연구소가 함께하는 영상 인터뷰 프로젝트 <7천만의 한국인들 (70mk, people in Seoul)>은 '서울의 통일'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인터뷰를 담아 전시한다.

일시 ~2017년 2월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담벼락미디어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국립극단 <THE POWER(더 파워)>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와 불안의 원인을 '자본'이라는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힘에서 찾아냈다. 기상천외한 사건들과 다소 황당한 행동들로 가득 채운 국립극단의 무대를 만나보자.

일시 ~11월 13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
 *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ntck.or.kr 1644-2003

활력 콘서트

활력콘서트

시민예술가들이 선사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일시 평일 오후 12시·12시 30분 주말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활력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7331

03

THU



시민청 전시 <안녕하세요, 서울씨!>

서울을 사람으로 보고 관객과 서울이 친해질 수 있는 시민청 시민기획단의 기획 전시다. 서울의 이름, 얼굴, 체험, 노래, 만화 등 다양한 내용으로 만날 수 있다.

일시 11월 3일(목)~12월(토)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시민청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문래오픈포럼 <문래동,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문래동의 사회적 이슈분야를 내용으로 포럼이 열린다. 도시정책, 젠트리피케이션의 이해와 지역 부동산 관련, 예술현장으로서의 평가, 문래동 지역예술가의 삶 등 각 분야별 주제 발표 및 질의가 진행될 예정.

일시 11월 3일(목) 오후 5시 30분 사전공연, 오후 6시 포럼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2676-4300



제37회 서울무용제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하는 무용계 대표 예술축제다. 장르를 구별하지 않고 젊은 무용가부터 중견 무용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민간예술단체가 참여해 창작 무용 작품, 안무가 및 무용수를 발굴한다.

일시 11월 3일(목)~24일(목) 오후 7시 30분
 *시상식 및 폐막식 26일(토) 오후 5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sdf1979.kr 02-744-8066

04

FRI

2016 성수예술마을만들기축제

성동구 성수동이 예술마을로 새롭게 태어났다. '예술마을만들기'로 선정된 성수동의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공동예술창작작업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공유하는 축제다.

일시 11월 4일(금)~6일(일)
장소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3길 9 공장터
관람료 무료
문의 sdfac.or.kr 02-2204-7500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프랑스의 가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국내 거리 예술 및 서커스의 발전과 예술가들의 역량 강화,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국제교류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일시 11월 4일(금) 오후 5시~10시
 11월 5일(토) 오후 4시 ~ 9시 30분
장소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광나루역 워커힐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셔틀버스 운영, 주차장 이용 불가
관람료 무료 *사전 신청
문의 ssacc.or.kr 02-3437-0082

국립현대미술관 <백년의 신화: 한국근대미술 거장전 유영국 1916~2002>

한국에서 추상화의 영역을 처음으로 개척한 선구적 화가다. 고향 울진의 깊은 산과 바다를 소재로 하되, 점, 선, 면, 색 등 기본적인 조형 요소만으로 자연과 우주적 울림을 표현하는 데 매진한 유영국의 진면모를 소개한다.

일시 11월 4일(금)~2017년 3월 1일(수)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 1~4전시실
관람료 3천 원(덕수궁 입장료 포함)
문의 mmca.go.kr 02-2022-0600

05

SAT



연극 <비극의 일인자>

비극 쓰기에 몰두했던 노벨상 수상 극작가 고일봉과 젊은 작가의 이야기다. 비극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존 재성에 대해 충실하게 사고한다.

일시 11월 5일(토)~20일(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만 13세 이상 관람가
문의 koreapac.kr 02-765-1776

제16회 2인국페스티벌

매년 새롭고 특별한 작업으로 진행되는 적극적인 연극 운동으로 다양한 표현과 극적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2인국 축제다.

일시 11월 5일(토)~12월 4일(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등
관람료 일반 2만5천 원, 학생 1만5천 원
문의 02-921-3110

06

SUN

프린팅 페스티벌

전통적인 판화 기법에서부터 현대적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미술 작품 프린팅 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프린팅 작품을 전시한다. 협업과 하도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문래 철강단지의 기계제품 제작과정과 결을 같이해 함께 거주하는 문래 예술인들의 작품 제작과 전시를 협업 시스템으로 재현하려 한다.

일시 11월 6일(일)~30일(수)
장소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M30, 예술공가 세이, 빛타래, 아지트, 상상채굴단, 정다방 프로젝트 등
관람료 무료 *체험 유료
문의 sfac.or.kr 02-2676-4300

08

TUE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더 뉴 웨이>

헤닝 브록하우스(Henning Brockhaus)가 1992년에 연출해 공연한 작품을 그대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올린다. 이미 <라 트라비아타>를 관람한 관객에게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이라는 의미로 '더 뉴 웨이(The New Way)'라는 부제를 달았다.

일시 11월 8일(화)~13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5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ER디석 28만 원, R석 23만 원, S석 17만 원, A석 13만 원,
B석 9만 원, C석 5만 원, D석 3만 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000



제6회 국제2인무페스티벌

실험적이면서 대중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국제 2인무 축제다. 국내 춤 인력의 해외 진출 및 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며 오는 8일에는 <2016 2인무 포럼>도 진행될 예정.

일시 11월 9일(수)~12월 4일(일)

장소 대학로스튜디오SK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747-5035



극단 현장 <성수동 신데렐라>

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역사와 그 곳에서 신발을 맞춘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다. 진정한 내 신발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어울리지 않는 신발은 결국 자 신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시 11월 8일(화)~11월 26일(토) 평일 오전 11시, 주말 오후 2시·4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성수아트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극단 현장 02-765-3516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대표 상설 공연. 한국 국악 작곡 1세대로 불리는 작곡가 김희조의 '합주곡 1번'으로 문을 열어 베트남 전통 악기인 단보우 협연, 대금 앙상블, 명창 최수정의 경기민요와 강상구 작곡의 국악 관현악곡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만날 수 있다.

일시 11월 9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09

WED

2016 잠실창작스튜디오8기 오픈스튜디오

잠실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개방한다. 작가들의 개인 스튜디오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일시 11월 9일(수)~10일(목)

장소 잠실창작스튜디오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423-6674

전시 <공작소>

문래동 주민과 관객에게 의뢰받은 물건, 작품을 문래동에서 생긴 원재료와 함께 새로운 오브제로 탄생시켰다.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M30에서 전시로 만날 수 있다.

일시 11월 9일(수)~20일(일)

장소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M30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2676-4300

11

FRI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국립극장과 싱가포르예술축제가 공동 제작한 국립창극단의 신작이다. 에우리피데스의 '트로이 전쟁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대명창 안숙선 선생이 창작하고 웅켄센 연출가와 정재일 음악감독이 함께한다.

일시 11월 11일(금)~20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12
SAT



한마음살림장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나가는 시민소통장터.
매월 둘째·마지막 주 토·일요일에 열리는 장터로 다
양한 공연, 전시, 예술 체험을 만날 수 있으며 시민이
만든 공예품을 사고팔 수 있다.

일시 11월 12일(토)~13일(일), 26일(토)~27일(일) 오후 12시~6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일대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0057

13
SUN



제 6기 시민청예술가 공개오디션

시민예술가의 문화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
문화 향유를 위해 '제 6기 시민청예술가'를 모집한다.
13일(일)에는 음악, 극, 무용, 시각, 체험 등 다양한
장르로 지원한 예비 시민예술가의 공개오디션이 진
행된다.

일시 11월 13일(일) 오후 1시~5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7331

15
TUE



10분외국릴레이 페스티벌 2016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의 웹진 『연극in』에 게재
된 신진 극작가들의 초단편 희곡집 29편을 무대화해
실연과 낭독으로 만날 수 있는 페스티벌이다.

일시 11월 15일(화)~20일(일)
장소 서울연극센터 1층 및 아카데미룸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743-9332

16
WED



남산예술센터 <파란나라>

현재 혜화동1번지 6기 동인으로 활동 중인 김수정의
신작이다. '환상적인 실험'(EBS TV <지식채널e>)에
서 소개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2016년의 한국 사
회를 살아가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파시즘을 경험하
는 지를 보여줄 예정. 2014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
지원사업 NEWStage 선정작.

일시 11월 16일(수)~27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18
FRI



미디어아트 공연 <갈라테이아>

인간의 마지막 창조물이라 일컫는 인공지능을 소재
로 피그말리온 신화가 전하는 인간과 기술의 상생적
미래를 이야기한다. 크리에이티브 그룹 엠(Creative
Group M)의 미디어아트 작품 '타블로 비반트
(Tableau Vivant)'와 신체극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작
품을 선보일 예정. 연출 김제민.

일시 11월 18일(금)~20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7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관람료 전석 1만 원 *중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sfac.or.kr 02-2676-4300

우구르 워크숍 <프리 플로우(Free Flow)>

신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모든 창작의 근본인 몸과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으로 타고난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워크
숍이다. 안무가나 공연예술가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 11일(일)에 워크숍 결과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일시 11월 18일(금)~12월 4일(일) 매주 금, 토, 일 총 9회
장소 서울무용센터
참가비 무료 *누리집 사전신청 후 참여가능
문의 sfac.or.kr 02-304-0235



국립무용단 <Soul, 해바라기>

재즈와 한국무용이 결합된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
리다. 초연부터 함께해온 독일의 재즈 그룹 살타첼로
의 연주에 더블베이스의 성민제가 새롭게 합류해 인
생의 삼라만상을 감성적이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냈
다. 안무 배정혜.

일시 11월 18일(금)~20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국립국악관현악단 <아빠 사우루스>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어린이 음악회다. 국악기로 공룡의 발소리를 만드느라 하면, 방귀 소리, 빗소리, 친구들의 재잘거림까지 표현하며 재미와 신비로움을 만들어낸다.

일시 11월 18일(금)~30일(토) 평일 오전 11시, 주말 오후 2시

장소 국립극장 KB홀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36개월 이상 관람가

문의 ntok.go.kr 02-2280-4114



제8회 언리미티드 에디션-서울아트북페어 2016

2009년부터 매년 참여해온 국내외 독립출판 제작자를 한곳에 모아 진행하는 아트북페어, 독립출판 시장이다. 작가 및 제작자와 관람자가 판매 부스를 매개로 만나며 한 해 동안 독립출판된 제작자들의 창작물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1월 25일(금)~27일(일) 평일 오후 1시~8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7시 *〈포스터 온리〉 11월 17일(목)~18일(금)

장소 일민미술관 1~3층

관람료 무료

문의 unlimited-edition.org 02-2020-2050

22

TUE

서울-북경 문화교류 프로젝트 공동전시회

<꽃, 함축의 시간>

서울과 북경 두 도시 여성예술가의 담론과 작품이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에 전시된다. 회화, 금속, 섬유,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미술 영역의 작가들이 두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 안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예술의 시사점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일시 11월 22일(화)~12월 2일(금)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로비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052



고지혜 & Kay Patru <유동모자이크> 쇼케이스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퍼포먼스다. 유기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유동적이고 끊임 없는 움직임과 순환, 내부와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 성장, 소멸, 재생산하는 과정을 작업으로 옮겼다. 서울무용센터-국제레지던스 오픈콜 선정 단체.

일시 11월 25일(금)~26일(토)

장소 서울무용센터

관람료 무료 *누리집 사전 신청

문의 sfac.or.kr 02-304-0235

24

THU



서울시오페라단 <맥베드>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서울시오페라단의 무대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화려하고 매혹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맥베드>를 구자범 지휘, 고선웅 연출로 만날 수 있다.

일시 11월 24일(목)~27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5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석 12만 원, R석 8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2만 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783~6

25

FRI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마스터피스>

한국음악사의 거장 음악가 6인의 음악 세계를 재조명한다. 고인이 된 작곡가 김기수, 김희조, 이강덕, 이성천, 백대웅, 이상규의 음악 세계를 각 제작들이 무대에 올려 선보인다.

일시 11월 25일(금)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제4회 시민청영화제

시민청 프로그램인 사랑방 워크숍의 시민청 영화제다. ‘한강의 재발견’을 주제로 워크숍부터 참가한 경쟁 부문 참가작 외에 시민 참여, 초청부문 등 한강과 관련한 다양한 영화를 무료 상영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화제 연계 출품작을 대상으로 한 <토요일은 청이좋아>의 ‘시민 시네마 토크 콘서트’도 만날 수 있다.

일시 11월 25일(금)~27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개막식 11월 25일(금) 오후 7시 바스락홀

장소 서울시장 지하 1, 2층 시민청 일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2

정리 이나래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2016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11.1
/
11.25

어린이가 있는 곳
어디나 극장이 된다

관악TA가 찾아가는



문의 및 신청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02) 871-7417, 7400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영민
서울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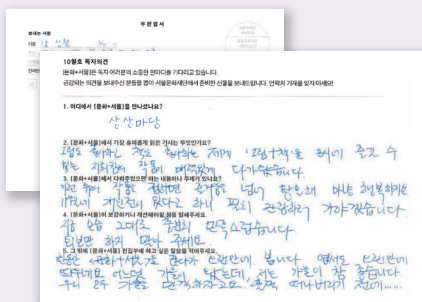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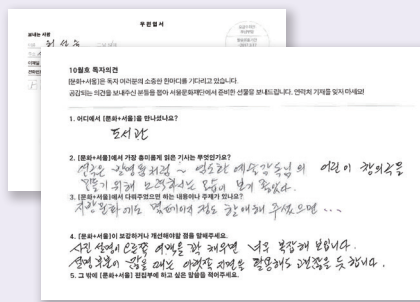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서울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1. 상상마당
2. 그림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는 제게 '그림+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희킴의 작품이 매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작품을 접하면 즐거움을 넘어 황홀해 마냥 행복하지요. 11월에 개인전이 있다고 하니 필히 관람하러 가야겠습니다.
4.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퇴보만 하지 말아주세요.
5. 한동안 [문화+서울]을 끊다가 오랜만에 봅니다. 엽서도 오랜만에 띄우네요. 어느덧 가을이 왔는데 저는 가을이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 가을을 만끽하자고요. 훌쩍 떠나버리기 전에...

강상철 님



1. 도서관
2. 연극은 발명품처럼~ 임도환 예술감독님이 어린 이창희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3. 지방 문화에도 몇 페이지 정도 할애해주셨으면...
4. 사진 설명이 오른쪽 여백을 꽉 채우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설명 부분이 많을 때는 아래쪽 지면을 활용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허선숙 님

편집 후기

햄살로 밥을 지어먹었다. 햇살처럼 환해졌다.
국화꽃을 사러 가야겠다.
안현미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비 오는 주말 가을은 미뤄뒀던 청소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추워지기 전에 비를 드세요!
이준결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대리

찬 계절이 돌아왔다.
알차게! 기차게! 힘차게!
이나래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가을이 왔다 갔다 왔습니다.
전민정 | 객원 편집위원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 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몽앤몽, 문래예술공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종강아트갤러리,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 프로그램

김수정 작/연출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오만
시대의
정신

극단
신세계

파란나라

11.16
- 11.27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극단 신세계
제작
남산예술센터
극단 신세계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매
남산예술센터
인터파크
대학로티켓닷컴
클립서비스
에스24공연
옥션티켓
문의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NAMSAN ARTS CENTER



테마 토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사람과 사람
한글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이끄는 캘리그래퍼 강병인

진실 혹은 대담
'아티스트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돼야 할까

쟁점 1
김영란법으로 직격탄 맞은 공연계

쟁점 2
공연단체 티켓 사재기로 도마에 오른 '공연티켓 1+1 사업'

화제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총회 참가기

공간 1
〈2016 서울상상력발전소: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

공간 2
지켜줘서 고마운 최순우 옛집

11월의 서울문화매뉴얼